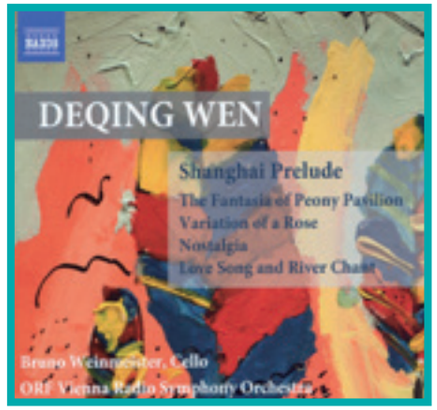


더칭 원: 상하이 서곡, 모란정 환상곡 등

브루노 웨인마이스터(첼로),
비엔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고트프리트 라블(지휘)

중국 전통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더칭 원의 작품들
중국 출신 스위스 작곡가 더칭 원의 작품이 수록된 음반.
중국의 정취와 전통 예술을 재해석하고 있는 더칭 원의 작품들은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탕현조(湯顯祖)가 쓴 《모란정환혼기(牡丹亭還魂記)》의 쿤취(KunQu opera, 崑曲) 버전을 모티브로 작곡한 '모란정 환상곡(2번 트랙)'에서는 경극의 한 장면이 생생하다. 프랑스 민요 '맑은 샘에서'를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색채로 재해석한 '노스텔지아(4번 트랙)'를 비롯해 중국 각지의 민요를 주제로 작곡한 작품들(3 · 5번 트랙)에서는 민요의 무한한 가능성도 느껴볼 수 있다.

8.570619 **[전곡 세계 최초 녹음]**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1집
바르셀로나 심포니 & 카탈루냐 내셔널 오케스트라(연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피아노 작품에 가려졌던 그라나도스의 관현악 작품들

8.573263

아나 소콜로비치:
민속 영감
앙상블 트랜스미션(연주)
발칸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

8.573304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피아노 3중주 1집
트리오 판게아(연주)
19~20세기 포르투갈 실내악의 재조명

8.573402

이투랄데:
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 전곡
히메네스(색소폰), 오카냐(피아노), 드랑글레(알토 색소폰)
이투랄데가 음반을 위해 직접 편곡한 작품들(2014년 버전)

8.573429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들
오하이오 주립대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러셀 미켈슨(지휘)
관악 앙상블이 보여주는 현란한 색채

8.573446

리스트: 피아노 작품 42집
– 두개의 파가니니 연습곡
고란 필리펙(피아노)
두 개의 파가니니 연습곡(S.140, S.141)을 비교 감상해 볼 수 있는 음반

8.573458

쇼스타코비치:
3개의 실내교향곡
키에프 솔로이스츠(연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유장한 흐름과 장중한 반향 속에 투영된 쇼스타코비치의 자화상

8.573466

메시앙의 초기 오르간 작품들
톰 윈페니(오르간)
메시앙 작곡 여정의 출발점을 보여 주는 음반

8.573471

스트라빈스키:
병사의 이야기(전곡, 영어버전)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첼버 플레이어즈(연주), 조앤 팔레타(지휘)
영어버전으로 만나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극

8.573537

20세기 영국의 하프시코드 작품들
크리스토퍼 D. 루이스(하프시코드)
영국의 하프시코드 전통에 대한 경의와 재해석

8.573668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피닉스뮤직프라자(종로)

아울로스 뉴스지 65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65호 | March 2016

***Key Issue**

Accentus를 통해 발매된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두 번째 음반**

Berlin Philharmoniker 자체 제작 **CD, DVD, Blu-ray, LP**

***Cover Story**

클래식 음악 영상물 시장에 새롭게 떠오른 레이블

Clasart Classic

CD

Key Issue 3
~: Accentus를 통해 발매된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두 번째 음반

Cover Story 4-5
~: 클래식 음악 영상물 시장에 새롭게 떠오른 레이블 Clasart Classic

Accentus 6
Arco Diva 6-7
BR Klassik 8-9
Calliope 9-10
Capriccio 10-11
Cedille 11
Dacapo 12
DanSing Music 12
Delphian 13-15
Dynamic 15
Edition Taschephilharmonie 16
Exton 17
Farao 16
Gramola 17-18
Grand piano 18
IBA 20
ICA 20
Indesens 21-22
Klanglogo 19
LPO 20
Marco Polo 23
Naxos 24-30
Ondine 23
Opus Arte 31
Orchid Classics 23
Orlando 31-32
Our Recordings 30
Paladino 32-33
Pro Musica 33
RCO Live 34
Rondeau 35
Seattle Symphony Media 34
Simax 35
Sinfonieorchester Basel 36
Solo Musica 36
Steinway & Sons 36
Tactus 37
Toccata Classics 37

DVD & Blu-ray

Accentus 38
Arthaus 39-55
Berliner Philharmoniker 56-63
Belvedere 64-65
C Major 65-67
Dacapo 68
Dynamic 69
EuroArts 70-73

피아니스트 김선욱 두 번째 음반! 프랑크의 프렐류드와 코랄, 푸가와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옛 양식의 엄격한 형식을 재정립하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는 3악장 형식으로 구성된 프랑크의 프렐류드와 코랄, 푸가

이 작품은 코랄의 강력한 힘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서 극히 제한된 피아니스트들에게만 그 신비한 문을 열어주는 난곡으로 일컬어진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의 난곡이 아니라 작곡가가 의도한 그 성스러운 힘과 탐미적인 피아니즘의 발현이 교집합을 이루어야만 음표 너머에 담겨있는 의미들이 비로소 생성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옛거장들이 이 작품에 대한 훌륭한 명연을 많이 남겨온 바 있지만 김선욱만큼 싱싱하고 치열하며 엄격한 해석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는 곡이 전개되면서 점차 증폭되는 신앙적인 믿음과 부활에의 강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아름다움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주체로서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리스트적인 화려함과 프랑크만의 독특한 화성에서 기인하는 색감을 내뿜는 첫 프렐류드. 밝고 깊은 톤을 그려내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와 이를 투명하면서도 확산감 높게 분무해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어쿠스틱 컨디션을 바탕으로 수 없이 펼쳐지는 음표 하나 하나에 강인한 에너지와 응축된 긴장감을 불어넣는 김선욱. 고난의 3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첫 곡으로서 형언하기 힘든 비애감과 찬연한 아름다움의 대비를 그려낸다. 16분음표의 리듬의 주제로 시작되면서 바흐에 대한 찬미와 풍부한 조바꿈, 순환동기를 갖춘 제2주제와 현저한 대조를 통해 표현해내는 탐미적인 고통스러움은 오직 김선욱의 연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들이다. 이후 가운데 악장에 해당하는 코랄은 서정적이되 아직은 불안한 선율이 제시되면서 프렐류드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미련을 내재하고 있다. 아르페지오에 의한 넓은 분산화음으로 변형되며 저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한 정화적 차원에서의 준비를 하듯, 김선욱은 절제되었지만 효율적인 페달링을 바탕으로 엄격하되 울림이 깊은 저역을 흔들리지 않게 발산하는 한편 오른손을 통해서는 교회 종소리를 연상케 하는 화음과 터치를 통해 고양감을 배가시킨다. 특히 반음계 진행의 점진적인 변화에 얹어지는 오르간적인 아르페지오와 가히 '파르지팔'적인 명상적인 주제의 첨예한 대비를 통해 김선욱은 이 코랄이 갖는 신성으로 향하는 문으로서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마지막 푸가. 김선욱이 자신의 재능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음악 형식인 푸가에서 그는 장대한 크레센도를 거친 뒤 지극히 전통에 충실한 성부진행과 감정적 진폭이 담긴 구축력을 내뿜는다. 이후 김선욱 특유의 초절기교적인 솜씨가 힘을 더해가며 지금까지의 모든 주제와 정신적 고행들을 통합하기 시작, 스타카토 하나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프레이징의 시작과 끝마다도 고통스러움을 탈피하고자 하는 섬세한 뉘앙스를 심어놓는다. 이렇게 주제들마다 중첩되어 온 응축적인 에너지를 숨막히게 집약한 뒤 마지막 피날레에서는 엑스타시를 분출하며 비로소 승천하는 듯한 넘치는 기쁨을 터뜨리며 이 트릴로지를 경건하게 마무리한다.

ACC 303551 [CD]

브람스 소나타 3번

김선욱에게 가장 잘 맞는 장갑과도 같은 작곡가가 바로 브람스로서, 그의 미시적인 통찰력과 거시적인 담대함, 브람스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의 감정에 어울리는 젊은 기백과 섬세한 감수성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리는 명연을 보여준다. 첫 Allegro Maestoso 악장의 대장부다운 도약과 신비로운 코랄적인 전개부, 거칠게 몰아치며 벼락과 같은 외침을 토해내는 옥타브 화음의 구조적 연결과 성격적 대비를 통해 김선욱은 젊은 브람스의 고뇌와 열정을 몹시도 자연스럽게 자신으로 육화시켜낸다. Andante Espressivo 악장의 그 한 떨기 꽃과 같은 청초함은 또 어떠한가! 건반을 통해 피아노의 현까지를 미세하게 떨게 만드는 김선욱의 타고난 터치와 본연의 야상곡적인 시적 감수성을 머금은 채 이보다 더 투명하게 빛을 굴절시키는 피아노 음향은 불가능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3악장 Scherzo와 4악장 Imtermezzo에서는 부를레스케적인 Allegro energico와 클라라 슈만에 대한 연민을 연상케 하는 cataclysmic(회상)의 연극적인 성격 대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며 이 장대한 5악장 소나타의 드라마투르기에 다채로움과 극적 긴장감을 부여한다. 마지막 5악장 피날레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김선욱. 손에 땀을 쥐게끔 하는 비르투오시티와 공간의 차원을 여러 단계로 환원시키는 듯한 천부적인 음향 컨트럴을 통해 이 장대한 소나타를 훌륭하게 마무리해낸다. **글: 박제성(음악평론가)**

1080p Full HD 고화질 클래식 영상물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클래식 음악 영상물 완제품 시장에 새롭게 떠오른 레이블 "Clasart Classic"

이 레이블은 독일 뮌션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방송 미디어인 TMG (The Tele München Group)의 산하 브랜드로서 제작, 방송, 중계, 배급, 배포 등등 오랫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노하우와 예술성, 현대 영상 테크놀로지를 총집결한 생산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 레이블의 모체인 TMG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자면, 1970년 PD인 발터 울브리히가 뮌헨에서 설립한 TV 프로덕션 컴퍼니로서 45년동안 모든 종류의 오디오-비디오 제품을 생산, 제작, 유통해온 유서 깊은 회사다. 현재 독일에서는 TELE 5, RTL II, 오스트리아에서는 ATV, ATV II 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춘 거대한 규모의 영상-방송 전문 회사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Clasart Classic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976년 헤르베르트 클로이버 박사가 설립한 레이블로서 그는 Unitel 프로덕션에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글렌 굴드,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영상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오페라, 발레, 콘서트 영상물을 제작한 베테랑이다. 그는 70년대 후반에 특히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라흐마니노프 영상물을 제작하여 에미상을 받기도 했다.

[보조자료]

하이엔드 오디오파일용 클래식 음악 레이블의 등장

Clasart Classic은 TMG 산하로 편입된 이후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와 프란츠 벨저-뫼스트의 브루크너 사이클,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마리스 얀손스의 영상물,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25편이 넘는 프로덕션 등등을 촬영, 편집하여 자신이 소유한 방송에 송출하는 동시에 DVD나 Blu-Ray를 생산하는 다른 메카니컬 프로덕션 레이블에 공급하는 제작사로서만 활동해왔다. 현재 오스트리아-독일에서 MET 오페라 시네마를 배포, 상영하고 있는 동시에 2015년부터 자체 레이블을 내세워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들을 직접 생산,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Clasart Classic의 첫 아티스트 라인업은 당연히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와 프란츠 벨저-뫼스트,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있는 뮌션에서 활동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마리스 얀손스다. CO/벨저-뵈스트와는 브람스 교향곡 전곡과 예핌 브론프만과 함께 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2번, 율리아 피셔가 가세한 바이올린 협주곡 Blu-Ray 박스, 그리고 BRSO/얀손스와는 드보르작의 '스타바트 마테르'와 드보르작 교향곡 9번/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이렇게 두 장의 Blu-Ray를 발매했다.

Clasart Classic 영상물의 장점은 모든 공연을 4K 카메라로 촬영하여 클래식 음악 영상물 시장에서는 Accentus 레이블 외에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고화질인 1080p Full HD로 생산을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오랜 동안 파트너쉽을 맺어왔던, 독일 뮌션을 대표하는 악단인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미국의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를 본격적으로 영상물 시장의 대표선수로 급부상시켰다는 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상업적으로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있는 베를린 필이나 빈 필과 같은 스타급의 악단에 대한 대항마로서, 이들에 못지 않은 실력과 전통을 갖춘 오케스트라들을 본격적으로 영상물 장르로 끌어들여 새로운 다양성과 남다른 예술성을 1080p Full HD 영상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야말로 Clasart Classic가 주목받아야 할 이유다. 하이엔드 오디오파일용 클래식 음악 소프트웨어의 만개를 알리는 Clasart Classic의 Blu-Ray에 주목하자!

1080p Full HD로 만나는 브람스의 진정한 깊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상물

BRAHMS CYCLE
브람스: 교향곡 전곡, 피아노 협주곡 전곡, 바이올린 협주곡, 비극적 서곡, 대학축전 서곡,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예핌 브론프만(피아노)/ 율리아 피셔(바이올린)
THE CLEVELAND ORCHESTRA/ 프란츠 벨저-뫼스트 (지휘)

belvedere BVE08005 [3DVDs]
belvedere BVE08009 [3Blu-ray]

마리스 얀손스의 진정한 명연과 모습을 담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belvedere BVE08015 [DVD]
belvedere BVE08016 [Blu-ray]

하이엔드 오디오파일용 클래식 영상물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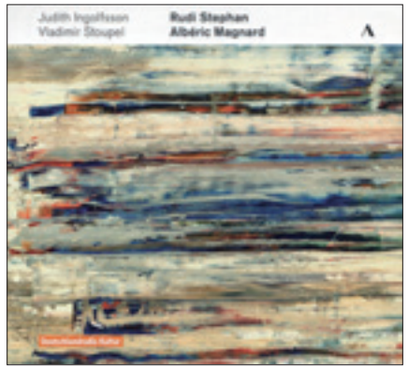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에린 월, 미호코 후지무라, 크리스티안 엘스너, 리앙 리

belvedere BVE08013 [DVD]
belvedere BVE08014 [Blu-ray]

Accentus

www.accentus.com



ACC303711

1차 세계대전 100주년 콘서트 1집

유디트 잉골프손(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스토펠(피아노)

전쟁의 참화에 대한 추모

2014년은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이었다. 잉골프손과 스토펠은 이를 추모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일생의 전기를 맞이했던 작곡가들을 재조명해 보기로 하였다. 모두 3집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첫 번째 음반에서는 루디 스테판의 유일한 실내악 작품인 '그로테스크'와 마냐르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수록되어 있다.
우아한 분위기는 물론 풍부한 색채감과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는 두 작품은 전쟁의 참화 속에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삶과 맞물려 평화에 대한 갈망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rco Diva

www.arcodiva.cz

UP 0149–2 131

코다이, 라벨, 글리에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펠릭스 프로쉬하머(바이올린), 플로리안 론(첼로)

현악사중주에 필적하는 사운드, 독일 출신 정상급 현악 듀오

"현악사중주단에 필적한다." 독일 출신의 프로쉬하머와 론은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현악 듀오이다. 프로쉬하머는 스위스 노이샤텔 심포니의 리더이며, 론은 파트릭 데멩가의 제자로 로잔 카메라타의 수석 첼리스트이다. 코다이의 이중주는 헝가리의 민속적 리듬과 화음에 강렬한 다이나믹과 세련된 서구적 음악언어를 결합한 대표작으로, 가장 자주 연주되는 이중주 중 하나이다. 라벨의 이중주는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고전적인 형식미가 어우러진 작품이며, 러시아 후기낭만의 거장 글리에르의 이중주는 깊고 풍부한 감성 표현으로 감동을 준다.

UP 0159–2 131

쇼팽,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글린카의 명가곡

안다–루이제 보그자(노래), 마르셀 야보르체크, 갈리나 알레쉬케비치(피아노)

접하기 어려운 슬라브어계의 여러 언어로 부르는 아름다운 가곡들

체로 출신의 성악가 보그자는 풍부한 성량과 따뜻한 음성으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오페라 가수이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드보르작과 쇼팽, 글린카,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슬라브어계의 여러 언어로 아름다운 가곡을 들려준다. 유명한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비롯한 드보르작의 노래들은 이국적인 독특한 리듬과 선율로 가득하며, 사후 출판된 쇼팽의 〈17개의 노래, Op. 74〉 중 일곱 곡은 춤을 추는 듯한 피아노 반주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쇼팽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다. 정감어린 러시아 가곡도 진한 감동의 여운을 준다.

UP 0165–2 231

반할: 성가 작품집

보니 푸에리 체코 소년 합창단, 파르두비체 체코 챔버 필하모닉, 마렉 슈틸레츠(지휘)

하이든에 필적하여 큰 명성을 얻었던 반할의 성가 작품들

'착한 소년들'이라는 뜻의 '보니 푸에리'는 1252년 성 비투스 성당에서 시작된 소년합창 전통을 상징한다. '보니 푸에리' 체코 소년합창단은 이 오랜 전통의 계승하는 합창단으로, 세계 정상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반할은 18세기 후반 고전시대에 빈에서 명성을 떨쳤던 체코 출신의 작곡가로, 그가 남긴 여섯 곡의 성가들을 수록했다. 그는 하이든과 비견되었으며, 당시 '질풍노도' 스타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음반은 키리에, 글로리아, 봉헌송 등 전례음악과 아리아, 모테트 등 연주회용 성가를 고루 수록하여 완벽한 고전 성가 프로그램을 들려준다.

UP 0171–2 031

드보르작: 랩소디 Op.14, 세 개의 슬라브 랩소디 Op.45

필센 필하모닉, 토마시 브라우너(지휘)

체코 음악을 그의 개성과 서구적인 세련된 음악언어로 재창조한 랩소디들

드보르작의 대표작들은 3년간의 미국 체류 기간의 곡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가 대부분의 삶을 보낸 체코에서 작곡한 작품들이야말로 진정한 체코 음악이다. 맥주로 유명한 필센(플젠)의 관현악단이 체코 음악을 그의 개성과 서구적인 세련된 음악언어로 재창조한 랩소디들이 수록했다. 〈랩소디, Op.14〉는 바그너의 영향에서 벗어나 체코 작곡가로 거듭나던 시절의 역작으로, 이 둘의 특징이 섞여 극적이며 영웅적이다. 〈세 개의 슬라브 랩소디, Op.45〉는 체코 작곡가로 명성을 떨치던 시기의 곡으로, 거장의 안정감과 토속적인 서정미가 물씬 풍긴다.

UP 0174–2 231

스트라빈스키, 하차투리안, 로자, 펜데레츠키 등: 비올라 무반주 독주곡집

크리스티나 피알로바(비올라)

무반주인 만큼 비올라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개성이 강한 작품들

피알로바는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하고 체코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중 한 사람으로, 무반주 독주곡들을 연주했다. 로자는 '쿼바디스', '벤허'로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로, 그의 〈서주와 알레그로〉는 헝가리의 민속적 특징과 영화와 같은 극적 표현을 갖추고 있다. 스트라빈스키의 유일한 비올라곡인 〈비가〉는 그에게 흔치 않은 낭만적 서정미로 가득하며, 하차투리안의 만년의 작품 〈소나타–송〉은 13분이 넘는 대곡으로 장대한 음악적 풍경이 펼쳐진다. 펜데레츠키의 기교적인 〈카덴차〉에서는 피알로바의 연주력이 최고로 발휘된다.

UP 0181–2 131

드보르작: 피아노 삼중주 2번, 야나첵: 크로이처 삼중주 등

페트로프 피아노 삼중주단

극적인 장면들이 펼쳐지는 체코의 대표적인 삼중주 작품들

저명한 비한 사중주단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얀 슐마이스터에 의해 창단된 페트로프 피아노 삼중주단은 체코를 대표하는 삼중주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체코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드보르작과 야나첵, 온드르제이 쿠칼을 연주했다. 드보르작의 초기곡인 〈피아노 삼중주 2번〉은 브람스를 연상시키는 독일낭만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그의 개성적인 멜로디와 체코의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야나체크의 〈크로이처 사중주〉의 삼중주 편곡은 원곡의 멜로디가 보다 부각되어 흥미로우며, 쿠칼의 〈추락과의 투쟁〉은 극적인 장면들의 연속으로 펼쳐진다.

UP 0182–2 131

프라하 만화경: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체코 음악

루치아 풀카 코프소바(바이올린), 토마시 호녜크(기타)

우리의 감성을 담아 언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체코 작곡가의 음악들

파가니니의 곡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두오 테레스'가 생존해있는 체코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했다. 난해하기 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어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다. 브루너의 〈조용한 이야기〉는 재즈의 리듬이 인상적이며, 프라이들린의 〈프라하 만화경〉은 판타지 영화를 보듯 극적이다. 후르니크의 〈대화〉는 사람들의 대화를 악기로 모방한 흥미로운 작품이며, 쿠칼의 〈기타와 바이올린〉은 재즈와 민속음악이 결합되어 독특한 재미를 준다. 벤코의 〈이방인〉은 낭만적인 서정미와 남미의 정서가 가미된 정열적인 음악이다.

UP0071

야나체크: 콘체르티노 등 피아노 전곡

얀 이라스키(피아노)

리드미컬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전개로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야나체크의 음악세계

드보르작 이후 체코 음악을 가장 문제적으로 다룬 작곡가는 단연 레오시 야나체크이다. 야나체크는 체코 음악 특유의 절뚝거리는 리듬을 과감하게 도입했으며, 민속적인 선율을 현대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춤곡과 같이 리드미컬하면서도 반전이 있는 드라마와 같은 예상치 못한 전개로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나체크의 피아노 전곡을 녹음한 이라스키는 명료한 타건과 폭넓은 표현력으로 이러한 특징을 잘 소하해낸다. 야나체크의 대표적인 실내악곡인 〈반항 광시곡〉과 〈콘체르티노〉도 수록되어 야나체크의 세계를 보다 폭넓게 들려준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33
바그너 : 라인의 황금
미하엘 폴레(바리톤) 외,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사이먼 래틀(지휘)

뛰어난 성악진과 감각적인 해석이 어우러진 래틀의 '반지'
2015년 4월 24~25일 뮌헨 헤르쿨레스잘에서 열린 콘서트 버전 공연 실황. 래틀은 최근 10여 년간 '반지' 연작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그 결과가 래틀의 '반지' 가운데 최초로 음반화된 이 '라인의 황금'이다. 래틀은 템포의 완급과 다이내믹을 대단히 치밀하게 다룸으로써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연주를 이끌어내며, 특히 현을 강조해 연주에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하고 있다. 첫머리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라인의 처녀들'부터 보탄 역을 위엄 있게 소화해낸 미하엘 폴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성악진이 뛰어난 가창을 들려준다.

900142
드보르자크 : 스타바트 마테르
월(소프라노), 후지무라(메조), 엘스너(테너), 리(베이스), 얀손스(지휘)

드보르자크의 걸작 종교음악에 대한 경의에 찬 연주
2015년 3월 뮌헨 헤르쿨레스잘 실황. '슬픔의 성모'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스타바트 마테르'는 13세기 말에 텍스트가 성립되었으나 이 가사로 작품을 쓴 작곡가는 많지 않다. 로시니 이후 시모노프스키 이전까지 이 장르에서 걸작을 남긴 작곡가는 드보르자크가 유일하다. 얀손스는 큰 스케일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드보르자크의 악상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정성스럽게 살려내며,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은 열정과 깊은 연민을 담아 노래한다. 동서양을 고루 안배한 성악진 역시 열렬하면서도 균형 잡힌 가창으로 작품에 대한 애정과 경의를 보여준다.

900143
말러 : 교향곡 1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야닉 네제-세갱(지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지휘자의 원숙함이 돋보이는 말러 1번
2014년 6월 26~27일 뮌헨 헤르쿨레스잘 실황. 이 공연은 말러 교향곡 1번의 크리티컬 에디션(비평판) 악보에 의한 것이며, 1975년생으로 현재 몬트리올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2000년부터)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2012년부터)의 음악감독이자 로테르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2008년부터) 직위를 겸하고 있는 야닉 네제-세갱은 악상을 큰 스케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서도 대단히 신중한 태도로 모든 악구를 정성스럽게 다루며, 각 세부에 뚜렷한 명암을 부여하고 있다.

900707
R. 슈트라우스 : '장미의 기사' 모음곡,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외
아냐 하르테로스(소프라노),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이 시대 최고의 슈트라우스 전문가가 들려주는 명연
2006년 10월 공연 실황. 얀손스는 2003/04 시즌부터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계약 연장을 통해 2021년까지 상임직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 녹음을 들어보면, 얀손스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당시부터 이미 대단히 친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얀손스는 슈트라우스 전문가답게 결이 고우면서도 화사한 연주를 들려주며, '네 개의 마지막 노래'에서도 소프라노 아냐 하르테노스의 농익은 음색과 조화를 이뤄 일부러 꾸민 기색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감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900313
위대한 베르디 성악가들
프라이스, 바라디, 카레라스, 카푸칠리, 게다, 베르곤치, 브루손, 타데이 외

위대한 성악가들이 노래한 위대한 작곡가의 위대한 장면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와 율리아 바라디, 알린 오저,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카를로 베르곤치, 니콜라이 게다,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과 주세페 타데이…. 이들 모두는 위대한 베르디 성악가였을 뿐만 아니라 '베르디'를 떼어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위대한 성악가들이었다. 이 음반에서는 '에르나니', '맥베스',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등 베르디를 대표하는 걸작 오페라들의 주요 장면을 노래한 이들 쟁쟁한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왜 이들이 그토록 위대했다고 일컬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는 명장면들이다.

900909
바흐 : 요한 수난곡
프레가르디엥(테너), 나즈미(베이스), 콘체르토 쾰른, 딕스트라(지휘)

바흐의 또 다른 위대한 수난곡에 보내는 진심 어린 애정과 공감
2015년 3월 실황. 낭랑한 목소리로 복음사가를 노래한 테너 쥘리앙 프레가르디엥과 예수 역을 맡은 베이스 타레크 나즈미를 비롯해 전 성악진이 고른 완성도로 노래하며,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은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극도의 비통함에 이르기까지 곡이 요구하는 모든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해낸다. 독일 고음악계에서 손꼽히는 악단인 콘체르토 쾰른의 기민한 연주와 10년째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인 딕스트라의 뛰어난 통솔 역시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세 번째 음반에는 요한 수난곡에 대한 설명이 예시와 함께 실려 있다.

900131
하이든: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노래, 베토벤: 스코틀랜드의 노래, 브리튼: 포크송 편곡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바리톤), 게롤트 후버(피아노), 안톤 바라초프스키(바이올린), 제바스티안 클링거(첼로)

고전의 거장 하이든과 베토벤의 손을 거쳐 완성된 포크송의 예술
인류의 삶과 역사가 빚은 포크송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었다. 고전의 거장 하이든과 베토벤도 예외가 아니다. 하이든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노래〉는 포크송의 단순한 멜로디를 살리면서 피아노 삼중주의 세련된 화음이 어우러진 걸작이며, 베토벤의 〈스코틀랜드의 노래〉 역시 포크송의 재치와 음악적 효과를 동시에 부각시키는 표현력이 돋보인다.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브리튼이 편곡한 포크송도 수록되었다. 게르하허의 과감한 가창력과 감수성 어린 피아노 반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Calliope

www.indesensdigital.fr

CAL 9752
천국의 목소리: 프랑스 제2제정 시기의 살롱음악
프랑수아 뒤푸(하모니움), 마르틴 로티에, 마리-프랑수아즈 모로(소프라노), 코린 마세(바이올린), 세실 그리자르(첼로), 파스칼 오프레(피아노)

프랑스 살롱 문화를 대표하는 악기 '하모니움'으로 연주하는 프랑스 후기낭만 음악
'하모니움'은 발로 펌프를 밟아 바람을 불어넣으며 건반을 연주하는 악기로, 풍금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오르간처럼 '스톱'이 달려있어 음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 악기는 19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하여 당시 많은 오르가니스트들이 이 악기를 위해 작품을 썼다. 이 음반에는 하모니움을 위한 오리지널 작품인 프랑크의 〈전주곡과 푸가, 변주곡〉, 길망의 〈목가〉, 〈기도〉 등이 수록되어있다. 이외에도 프랑수아 뒤푸가 구노의 〈아베 마리아〉, 오펜바흐의 〈뱃노래〉, 프랑크의 〈파니스 안젤리쿠스〉 등을 편곡하여 19세기 프랑스 살롱의 분위기를 재현했다.

CAL 9365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 & 5번, 두 개의 론도, 아다지오

앙상블 필리도르

특유의 단아함과 고상함으로 연주한 모차르트의 협주곡

얀 탈리히(주니어)는 전설적인 지휘자 바츨라프 탈리히의 손자이자 바이올린 거장인 얀 탈리히의 아들이다. 그는 체코의 가장 중요한 실내악단 중 하나인 탈리히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설하여 탈리히 가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탈리히는 특유의 단아함과 고상함으로 모차르트의 협주곡 3번과 5번을 연주했다. 모차르트는 1775년 잘츠부르크에서 다섯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3번과 5번이 가장 자주 연주된다. 특히 5번 4악장 '터키풍의 론도'는 매우 유명하다. 이후에 작곡된 두 개의 론도와 아다지오도 수록되어있다.

CAL 9398,9

알베니스: 이베리아 (전곡)

올리비에 쇼쥐(피아노)

스페인의 풍경과 음악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집대성한 피아노 대작

스페인의 대표적인 국민악파 작곡가인 알베니스의 〈이베리아〉는 90분에 이르는 피아노 대작이다. 스페인의 풍경과 음악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피아노 문헌에서 가장 어려운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며, 또한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드뷔시는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색감적인 인상을 담은 곡을 본 적이 없다. 눈을 감고 들으면 풍부한 이미지들이 펼쳐진다."고 말했으며, 메시앙은 "현대 피아노 작곡의 기초"라고 평했다. 쇼쥐는 여행을 안내하듯 꼼꼼하면서도 곡에 배어있는 스페인의 정서를 남김없이 풀어낸다.

Capriccio

www.capriccio.at

C5202

라운드 미드나잇(자정 무렵)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금관 오중주단(연주)

금관 오중주 속에 드러나는 밤의 스펙트럼

밤은 몽환, 환상, 공포, 기괴함 또는 외로움 등 많은 이미지들을 갖고 있으며, 이는 예술 작품에 영감이 되곤 했다. 본 음반에는 밤 또는 밤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소재로 작곡된 음악을 담겨있다. 퍼셀과 포레 그리고 생상스의 작품에서부터 셀로니우스 몽크에 이르기까지 금관 오중주의 은은한 윤기 속에 펼쳐지는 밤의 스펙트럼은 그 어떤 악기보다도 묘한 매력을 발산한다. 밤이 깊어질수록 꿈이 차오르듯 트랙이 지날수록 한번쯤 들어봄직한 작품들임에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얻게 된다.

C5137

레거 : 바이올린 협주곡

빈프리트 라데마허(바이올린) & 리노스 앙상블

실내악 앙상블로 편곡된 레거의 바이올린 협주곡

막스 레거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 자신이 베토벤과 브람스의 맥을 이을만한 작품이라 자부할 정도의 야심작이자 역작이었다. 리노스 앙상블과 라데마허는 말러와 베르크의 작품에 이어 콜리슈가 실내악 앙상블을 위해 편곡한 레거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음반에 담았다. 실내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함과 그 속의 응집력 넘치는 음색은 오케스트라와는 다른 극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때로는 고고하게 그 위를 넘나드는 바이올린은 레거가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면서 주안점을 둔 유연성과 초연함을 잘 살려내고 있다.

C5209

바스크의 노래

아란차 에세나로(소프라노), 후안 카를로스 로드리게스(피아노)

스페인 바스크 지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가 소개하는 바스크의 노래

바스크 지역은 프랑스 남서부와 스페인 북부 중앙에 걸친 지역으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와 다른 바스크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스페인의 바스크주 출신인 미모의 소프라노 가수 아란차 에세나로는 이러한 바스크인의 예술을 노래로 소개한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바스크 작곡가인 술라이카와 이가르사발의 곡으로, 서정적이고 진지한 감수성이 배어있다. 선율에서 느껴지는 삶의 애환과 애수에 바스크가 낯선 이들도 곧 공감하게 된다.

C5255 [2 For 1]

하이든: 오판된 부정, 참된 정조

케르메스(소프라노), 라이스(소프라노), 트로스트(테너), 에델만(바리톤), 홀츠마이어(바리톤), 팔리(베이스), 쾰른 서독일 방송관현악단, 포쉬너(지휘), 에르난데스-실바(지휘)

에스테르하지 궁전에서 상연되었던 하이든의 오페라 갈라

하이든이 소속되어있던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는 오페라를 매우 좋아하여 1년에 무려 150회의 오페라 공연을 열었다. 이를 위해 하이든은 약 20곡의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남아있는 열네 곡의 에스테르하지 오페라는 거의 연주되지 않고 있다. 이 음반은 하이든의 오페라 두 편의 하이라이트를 수록하여 이러한 안타까움을 달래주고 있다. 〈오판된 부정〉는 1773년에, 〈참된 정조〉는 1779년에 완성된 이탈리아 스타일의 오페라로, 성악가의 화려한 기량을 뽐내는 아리아와 극의 상황을 표현하는 흥미로운 음악들로 가득하다.

C5247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미사 3번

ORF 빈 방송 교향악단,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지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해석과 종교적 감흥이 공존하는 연주

브루크너의 교향곡은 음악과 영혼이 합치되는 지점으로, 특히 9번은 그 신비와 경건함이 궁극에 이르는 제의이다. 그런 만큼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빈 필하모닉과 함께 음악의 도시 빈을 대표하는 관현악단인 ORF 빈 방송 교향악단과 수석 지휘자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는 전통적인 해석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인간적인 흐름을 들려준다. 하지만 빈 콘체르트하우스의 잔향을 담아내어 종교적인 감흥도 어우러지도록 했다. 함께 수록된 〈미사 3번〉은 신의 은총을 구하는 인간의 목소리로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C5268

아이브즈: 피아노 소나타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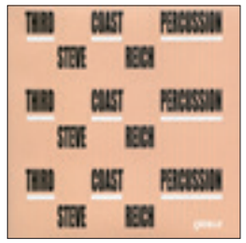
치몬 바르토(피아노), 크리스티아네 팔멘(플루트), 자크 메양쿠르(비올라)

실타래를 풀듯이 자연스럽게 연주하여 친근감이 들게 하는 마법과 같은 연주

이 음반은 미국의 대표적인 실험음악가였던 찰스 아이브즈의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피아노 소나타 2번〉을 녹음했다. 이 곡은 '1840~60년의 매사추세츠주 콩코드'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 시기에 이 곳에 있었던 철학자와 작가, 즉 에머슨, 호손, 알콧 집안, 소로가 각 악장의 제목으로 적혀있다. 그리고 베토벤 〈운명 교향곡〉의 유명한 주제가 곡 전체에 등장한다. 치몬 바르토는 매우 복잡한 이 곡을 실타래를 풀듯이 자연스럽게 연주하여 감상자가 친근감이 들도록 하는 마법을 선보인다. 아이브즈가 옵션으로 두었던 플루트와 비올라 연주도 함께 한다.

Cedille

www.cedillerecords.org



CDR90000161

라이시: 말레 사중주, 6중주, 나고야 마림바, 나무 조각 음악

서드 코스트 퍼커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라이시의 음악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음악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스티브 라이시는 최소한의 소재로 본질을 탐구하는 미니멀리즘 정신을 철저히 지켰다. 이 음반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작곡된 네 곡의 타악기를 위한 작품을 수록하여 라이시의 음악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나무 조각을 위한 음악〉(1973)은 진행하면서 변화하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기본을 보여주며, 〈6중주〉(1985)는 화음과 형식으로 미니멀리즘의 새로운 길을 찾는 라이시의 모습이다. 〈나고야 마림바〉(1994)와 〈말레 사중주〉(2009)는 미니멀리즘 예술가의 의지가 강하게 배어있는 최근작들이다.

DACAPO Dacapo

www.dacapo-records.dk

8.226112

닐센: 합창곡집

여러 덴마크 국립 합창단들, 미카엘 쇤반크(지휘), 필리프 파버(지휘), 수사네 벤트(지휘)

국민악파 작곡가 닐센의 진면목이 담겨있는 합창곡들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곡가 칼 닐센은 여섯 개의 교향곡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목록의 상당 부분은 성악 작품이 차지하고 있다. 닐센은 노래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부를 수 있도록 민속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단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국민악파 작곡가로서의 진면목은 바로 성악 작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덴마크인들이 닐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25곡의 합창곡 중 대부분은 멜로디가 단순하며 코랄 풍으로 연주된다. 하지만 그 속의 닐센의 톡톡 튀는 개성이 살아있음은 물론이다.

DanSing Music

DSM6

내 곁에 있어주세요

댄 에반스(덜시머, 기타), 실비아 시턴(바이올린), 앤디 크로우디(베이스) 외

켈틱 음악의 분위기를 잘 살려낸 덜시머 연주

오늘날 유럽 민속악기 중 하나로 알려진 덜시머는 11세기 중동에서 전래된 이래 하프시코드의 원형이 되었다. 덜시머는 양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주되는 헤머 덜시머와 손으로 뜯어 연주하는 마운틴 덜시머로 구분되는데, 본 음반에는 마운틴 덜시머 연주자 댄 에반스의 2002년 이래 8년 만의 녹음이 수록되어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 일대(영국제도)의 민속 음악이 담긴 본 음반에서 댄 에반스는 켈틱 음악의 매력과 분위기를 잘 살려낸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덜시머 연주를 연상시키는 그의 기타 연주와 고즈넉한 목소리가 매력을 더한다.

DSM7

오래된 물방앗간

댄 에반스(덜시머, 기타), 스테판 사이페르트(덜시머), 레베카 홀워스(보컬) 외

서정과 자유로움이 넘치는 덜시머의 매력

세계적인 마운틴 덜시머 연주자 댄 에반스의 다섯 번째 앨범인 본 음반에는 그가 편곡한 유럽과 미국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다. 본 음반은 프랑스에서 보낸 유년 시절과 미니멀리스트로서 그의 면모를 두루 조망해보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덜시머 연주의 대가 스테판 사이페르트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멋진 호흡 속에서 댄 에반스가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편곡한 작품들의 서정과 자유로움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댄 에반스와 사이페르트의 덜시머 2중주가 매력적인 '애니의 노래(Annie's song, 15번 트랙)'는 본 음반의 백미라고 할 만 하다.

DELPHIAN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CD34150

바흐 :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곡

필립 히검(첼로)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필사본에 근거한 유려하고 풍부한 연주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모든 첼리스트에게 성서와도 같은 곡이다. 브리튼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녹음으로 데뷔해 평단의 절찬을 받은 필립 히검에게도 이 곡은 언젠가 녹음해야 할 대상이었다. 맨 첫 번째 첼로 수업 때부터 이 곡을 접했던 그는 음악원에서도 이 곡을 놓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필사본 악보에 근거한 이 녹음은 치밀한 학문적 탐구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매우 유려하고 풍부하며, 어느 모로 보나 이 곡의 녹음사에 더해진 새로운 업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DCD34159

와일드가 연주한 쇼팽 3집

데이비드 와일드(피아노)

노장 피아니스트가 탁월한 기교와 명징함으로 연주한 쇼팽

1935년에 태어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데이비드 와일드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1961년에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리스트-버르토크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이미 베토벤부터 브람스, 슈만, 리스트 등 중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독주곡 음반을 내놓음으로써 폭넓은 해석력과 표현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쇼팽 독주곡집의 세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이번 음반에서도 그는 녹턴, 에튀드, 마주르카, 스케르초, 왈츠 등 다양한 작품을 탁월한 기교와 명징함으로 연주했다.

DCD34160

로케반투르(Loquebantur) – 볼드윈 파트북의 음악들

마리안 콘소트, 로리 매클러리(지휘), 로즈 콘소트 오브 비올스

16세기 유럽의 다성음악에 대한 생생한 기록

존 볼드윈은 16세기 후반~17세기 초에 생존한 영국인으로 1575년에 세인트 조지 대성당의 성가대원이 되었다. 그가 수집한 파트북(다성음악의 각 성부를 따로따로 한 권에 정리해 필사 또는 인쇄한 악보)인 '볼드윈 파트북'은 현재 옥스퍼드의 그리스도 교회에 있으며, 영국 및 유럽 각지의 다성음악 및 콘소트 음악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전해준다. 음반 제목 'Loquebantur'는 이 음반에 수록된 영국 작곡가 토머스 탈리스의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Loquebantur variis linguis)에서 따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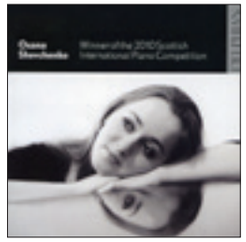
DCD34169

해괴한 소리를 내는 가인들(Mynstrelles With Straunge Sounds)

클레어 윌킨슨(메조소프라노), 로즈 콘소트 오브 비올스

여명기 비올 콘소트 음악의 집대성

인쇄 기술의 보급은 특정한 음악적 경향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데 기여했고, 이 때문에 1500년경의 유럽 음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모를 거듭했다. 비올 콘소트 음악 역시 이러한 경향을 타고 발생했고 전파되었다. 여기 실린 작품들은 이 가운데 가장 초창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로즈 콘소트 오브 비올스'는 이 프로젝트에서 표지에 실린, 볼로냐의 산 조반니 성당의 제단화에 묘사된 악기를 본떠 제작한 비올을 사용했다. 고음악 전문 메조인 클레어 윌킨슨은 비할 데 없이 섬세한 표현력을 지닌 가창으로 이 음반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있다.



DCD34061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옥사나 세브첸코 : 2010년 스코티시 국제 피아노 콩쿨 우승자

옥사나 세브첸코(피아노)

2010년 스코티시 국제 피아노 콩쿨 우승자 옥사나 세브첸코의 데뷔 음반

2010년 스코티시 국제 콩쿨 우승자인 옥사나 세브첸코의 데뷔음반이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낯익은 작곡가와 작품들 사이에 영국의 작곡가 시어 머그스그레이브의 이름이 보여 이채롭다. 맑은 음색과 반향을 지향하는 그녀의 터치는 라벨과 쇼스타코비치에 적격인 듯싶다. 연주는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다. 리스트의 미완성 작품을 부조니가 완성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중 2개의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라벨의 '라 발스'에서는 강력한 타건도 느껴볼 수 있다.

DCD34107

존 루터 : 튜크스베리 컬렉션

튜크스베리 수도원 성가대(연주), 칼턴 에서링턴(오르간), 벤자민 니콜라스(지휘)

유려한 울림이 돋보이는 해석

벤자민 니콜라스는 그의 튜크스베리 수도원 시절을 마감하는 이번 음반에 존 루터의 합창 음악을 담았다. 음반에는 존 루터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레퀴엠》의 한 대목,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를 비롯해 2011년 로열 웨딩을 위해 작곡된 'This is the day(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가 수록되었다. 막힘없이 유려하게 울리는 존 루터의 합창곡들은 압도적이며, 에서링턴의 오르간은 이 같은 해석을 극대화하고 있다. 존 루터의 합창곡이 가진 매력을 잘 표현한 본 음반은 그의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다가갈 것이다.

DCD34125

브리튼 : 무반주 첼로 조곡, 1번 & 2번 & 3번

필립 히검(첼로)

투명한 색채로 차가움과 따뜻함을 온전히 표현한 해석

본 음반은 2010년 엠마누엘 포이어만 그랑프리 2위, 2008년 라이프치히 바흐 콩쿨과 2009년 루토스와프스키 콩쿨 1위에 입상한 필립 히검의 데뷔작이다. 투명함이 특히 인상적인 그의 첼로는 브리튼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느낌을 준다. 브리튼이 그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대하는 시선을 떠올려 볼 정도로 바흐를 연상시키는 따뜻함과 쇼스타코비치를 연상시키는 차가운 색채는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브리튼의 팬은 물론 그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쯤 갖춰둘 만한 음반.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BBC뮤직 매거진 (기악부분) 이달의 음반]**

DCD34145

목자들의 크리스마스

마리안 콘소트(연주), 로리 맥클레리(지휘)

전작의 명성을 잇는 또 하나의 결과물!

예수의 탄생 장면을 전하는 복음서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등장하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등장한다. 모랄레스와 무통, 스타빌레가 '목자'를 테마로 작곡한 미사곡, '목자로 하여금 (성육신의 언약인 예수를) 찾게 하소서'가 수록되어 있는 본 음반은 탄탄하면서도 유연함을 놓치지 않는 해석이 돋보인다. '노엘(noe/noel)'과 함께 마지막 트랙(스타빌레의 작품)이 끝난 후 아우라는 강력하다. 로리 맥클레리와 마리안 콘소트는 전작의 명성을 잇는 또 하나의 결과물을 탄생시켰다.

DCD34124

독일 종교합창곡

곤빌&키스 칼리지 합창단 · 킹스 칼리지 합창단(합창), 데이비드 크렌델 & 제프리 웨버(지휘)

낭만주의 독일 종교합창곡의 정수

본 음반에는 낭만주의 독일을 대표할 만한 종교합창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델피안 레이블을 통해 발매된 이전 음반들에 대한 호평은 이번 음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데이비드 크렌델을 비롯한 연주자들은 '멋들어지게 부른다'는 표현에 걸 맞는 역량을 보여준다. 코로넬리우스의 가곡이나 슈만의 '4개의 혼성 2중 합창곡', 슈베르트의 '시편 23편(주는 나의 목자이시니)'은 새롭다. 본 음반의 백미라고 할 만 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독일 모테트'는 우아하면서도 온기와 절제를 머금은 음향이 단연 압권이다.

DCD34165

슈베르트 가곡 : 밤과 꿈

에일리시 티넌(소프라노), 이에인 번사이드(피아노)

슈베르트가 그려낸 여인의 모습들

'뮤리엘 허버트의 노래'나 '아일랜드 민요집'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일리시 티넌과 피아니스트 이에인 번사이드는 위의 녹음이외에도 델피안 레이블을 통해 발매된 몇 장의 음반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발매된 음반은 슈베르트의 가곡을 담고 있는데, 슈베르트가 그려낸 여인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에 빠진 여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그의 가곡을 접하는 것 이상의 감흥을 준다. 미묘한 여운을 살려내는 환상의 호흡이 특히 인상적이다.

DCD34171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옛 음악

바나비 브라운(백파이프), 클레어 살라만(피들, 허디거디), 빌 타일러(리라, 하프)

1797년 콜린 캠벨의 기보법으로부터 재현한 옛 스코틀랜드 음악

'게일'(Gael)이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고지대 사람들의 음악은 1745년 왕당파의 반란이 진압된 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상류층 사람들이 게일 음악의 과학적의 기보 방법에 상금을 걸었고, 응모작 중 1797년 콜린 캠벨의 작업이 단연 눈에 띈다. 그는 377페이지에 이르는 악보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바나비 브라운이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 이 음반은 그 연구의 결과로, 다양한 꾸밈음과 토속적인 멜로디, 그리고 전형적인 지속음의 어우러짐을 백파이프, 뼈피리, 하프, 리라, 피들, 허디거디 등 다양한 민속 악기로 연주한다.

DCD34182

로티: 딕시트 도미누스, 미제레레, 성 크리스토포리 미사, 크레도

사이어드 콘소트, 세인트 폴 오케스트라, 벤 팔머(지휘)

17~18세기 베네치아 최고의 음악가였던 로티의 예수 수난 성가

안토니오 로티(1667–1740)는 베니치아에서 태어나 베네치아의 중심 교회인 성 마가 성당에서 활동하며 최고 직위인 마에스트로 디 카펠라에 올랐던 인물이었다. 그는 50대 초에 약 2년간 드레스덴에서 머물며 약 30곡의 오페라를 작곡하기도 했다. 그는 바로크에 속해있지만, 그의 음악은 고전음악으로 연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은 성 마가 성당을 위해 작곡된 성가들로, 예수의 고난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노래 선율은 지극히 유려하고 아름다우며, 노래와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는 뛰어난 기악음악 또한 돋보인다.

Dynamic

www.dynamic.it

CDS7739

바흐: 모음곡 D단조 BWV 997, 트리오 소나타 BWV 525, 526, 529

로렌초 카바산티(리코더), 세르히오 치오메이(하프시코드/오르간)

정갈하고 명료한 연주로 들려주는 카바산티의 모범적인 바흐의 음악

이탈리아 정상의 리코더 연주자인 로렌초 카바산티는 정갈하고 명료한 모범적인 연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그의 연주 스타일은 바흐의 음악에 매우 어울린다. 〈모음곡 D단조〉는 전주곡과 사라방드, 지그의 모음곡의 간단한 뼈대에 특이하게도 푸가가 두 번째 곡으로 들어있는 독특한 작품이다. 네 악장의 고전 소나타에 비견될 만큼 구성의 완성도가 높다. '트리오 소나타'는 두 성부의 멜로디 성부와 반주 성부로 구성된 소나타를 뜻한다. 카바산티는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에서 한 멜로디 성부를 맡고, 오르간이 다른 성부와 반주를 모두 연주한다.

CDS7741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플루트 발라드,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리오 카르보타(플루트), 제쇼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블라디미르 키라디에프(지휘)

플루트에 최적화된 아름다운 선율과 안정된 낭만적 관현악 사운드

라이네케는 19세기 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작곡가였다. 그는 멘델스존, 슈만, 리스트의 제자였으며, 또한 그리그, 야나체크, 알베니스, 브루흐 등을 가르친 교육자였다. 그는 교향곡과 협주곡, 실내악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지만, 오늘날 관악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플루트와 관현악을 위한 〈플루트 협주곡〉과 〈발라드〉에서 플루트에 최적화된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할 수 있으며, 관현악 사운드는 안정되어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열 개의 악장이 들려주는 다양한 악상에 라이네케의 솜씨가 잘 배어 있다.

Edition Taschephilharmonie

www.die-taschenphilharmonie.de

ETP003
베토벤: 교향곡 7번
타셴 필하모니, 페터 슈탕겔(지휘)

베토벤이 상상했을 화려한 음색의 향연과 가벼운 리듬
'주머니 오케스트라'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타셴 필하모니'는 20명 이하로 구성된 실내악 앙상블로, 고전부터 현대까지 기존의 관현악곡을 실내악으로 연주하는 앙상블이다. 이러한 독특한 컨셉은 사운드를 보다 투명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타셴 필하모니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연주는 각 악기의 음색이 두드러지게 대비되어, 베토벤이 상상했을 화려한 음색의 향연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한 작품이 가진 고유의 리듬이 보다 가볍게 움직인다. 무게 있는 기존의 관현악단에서 듣기 힘든 경쾌하고 역동적인 연주이다.

ETP004
말러: 교향곡 7번
타셴 필하모니, 페터 슈탕겔(지휘)

말러의 위대한 예술성을 일깨워주는 티 없이 맑고 리드미컬한 사운드
'주머니 오케스트라'라는 특이한 이름의 '타셴 필하모니'는 20명 이하로 구성된 실내악 앙상블로, 고전부터 현대까지 기존의 관현악곡을 실내악으로 연주하는 앙상블이다. 이러한 독특한 컨셉은 사운드를 보다 투명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말러의 〈교향곡 7번〉은 상당히 두터운 음향을 가진 작품이지만, 타셴 필하모니의 솔리스트 19명은 티 없이 맑고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창출했다. 그들은 이 곡에 내재해 있는 말러 특유의 민속적 리듬의 층들을 모두 들려주며, 여기에 화려한 음색이 결합하여 말러의 위대한 예술성을 일깨운다.

ETP005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교향곡 41번 '주피터'
타셴 필하모니, 페터 슈탕겔(지휘)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현과 관의 대비와 조화가 명확히 드러나는 연주
'주머니 오케스트라'라는 특이한 이름의 '타셴 필하모니'는 20명 이하의 실내악 앙상블로, 기존의 관현악곡을 실내악으로 연주한다. 이 독특한 컨셉은 사운드를 보다 투명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타셴 필하모니는 모차르트의 유명한 최후의 두 교향곡에서 현과 관의 대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기존의 관현악 연주에서 현악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던 관악기의 더블링 연주가 명확히 나타면서, 산뜻한 음색의 조합을 듣게 된다. 두 교향곡에 들어있던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현과 관의 대비와 조화를 이 연주에서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

Farao

www.farao-classics.de

B108089
브루흐: 콜 니드라이,
달베르: 첼로 협주곡,
도흐나니: 첼로 소협주곡
다비드 피아(첼로), 뮌헨 방송관현악단, 울프 셔머(지휘)

후기 낭만의 꽉 찬 음향과 더없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명곡 명연
스위스 출신의 첼리스트 다비드 피아는 2007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로, 뮌헨 방송관현악단에서 첼로 수석을 역임했던 실력파 연주자이다. 이 음반에서 그가 몸담았던 뮌헨 방송교향악단과 함께 네 곡의 첼로 협주곡을 녹음했는데,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이외에는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희귀한 작품이다. 달베르는 리스트의 제자이자 그를 이어 바이마르의 카펠마이스터가 되었던 작곡가로, 그의 협주곡은 후기 낭만의 꽉 찬 음향과 더없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하다. 헝가리의 도흐나니는 발레를 보는 듯한 섬세한 극적 표현이 압도한다.

Exton

www.octavia.co.jp

OVCL-00450
말러: 교향곡 3번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셸 드 영(메조), 피츠버그 멘델스존 합창단/ 만프레드 호넥(지휘)

상임 지휘자 만프레드 호넥과 함께 EXTON 레이블을 통해 말러 교향곡을 녹음하기 시작한 피츠버그 심포니는 현재 1,3,4,5번까지를 완성하며 말러 해석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한편, 그 동안 얀 손스를 비롯한 많은 거장들이 다듬어놓은 악단의 빛나는 연주력을 과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10년 하인츠 홀에서 녹음된 말러 교향곡 3번은 합창의 웅장하면서도 정교한 사운드와 스케일 크면서 흐름이 매우 유려한 오케스트라가 전례 없는 음악적 엑스타시를 자아낸다. 드 영의 신비로운 목소리와 최상의 오디오파일용 음반으로서의 레코딩 퀄리티 또한 이 음반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일조했다. MUST HAVE ITEM!

OVCL-00460
말러: 교향곡 5번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만프레드 호넥(지휘)

마리스 얀손스 이후 야노프스키, 앤드류 데이비스, 얀 파스칼 토르틀리에의 3두체제를 거치며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발돋음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악단은 2008년부터 상임 지휘자를 맡은 만프레드 호넥과 함께 예술성은 물론 이려니와 인지도와 상업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을 거두고 있다. 2011년 하인츠 홀에서의 말러 교향곡 5번 레코딩은 연주에 있어서 감정과 악상의 첨예한 대비가 돋보이는 명연으로서, 특히 EXTON 레이블의 세계 최고 수준의 레코딩 퀄리티가 음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최상의 임장감 DSD녹음.**

Gramola

www.gramola.at

99023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바그너
게랄트 슈베르트(바이올린), 베르나데테 바르토스(피아노)

격동하는 오페라가 낭만적인 서정미가 넘치는 바이올린 소품으로 과거에는 녹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여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 공연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유명한 오페라들은 실내악으로 편곡되어 연주되곤 했는데, 바그너도 예외가 아니었다. 〈탄호이저〉의 주요 선율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중 발터의 수상곡,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이졸데의 사랑과 죽음, 그리고 〈지크프리드〉, 〈파르지팔〉 등이 편곡을 통해 격동하는 오페라가 낭만적인 서정미가 넘치는 소품으로 탈바꿈되었다. 편곡자인 요아힘 라프는 리스트의 조수였으며, 빌헬미는 유명한 〈G선상의 아리아〉의 편곡자이다.

99065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마티아스 헬름(바리톤), 두오 하자르트(기타 이중주)

두 대의 기타로 반주하여 소박한 사랑을 정감 있게 표현한 연주
슈베르트가 작곡한 세 곡의 연가곡 중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는 가장 먼저 작곡되었다. 떠돌이 청년이 우연히 발견한 물레방앗간에서 만난 아름다운 처녀를 사랑하게 되어 푸른 리본을 선물로 주지만 여인은 떠나가고 말았다는 내용으로, 순박한 사랑을 노래하여 밝고 가벼운 느낌의 곡들이 많다. 마티아스 헬름은 빈 예술대학에서 로베르트 홀에게서 배운 바리톤으로, 슈베르트와 슈만, 브람스의 가곡에 정통한 가수이다. 두 대의 기타 반주는 두오 하자르트의 편곡이지만, 슈베르트 생전에 그의 가곡이 기타 반주로 출판되고 연주되곤 했었다.

99089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성 플로리안 알토몬테 오케스트라, 레미 발로(지휘)

중후하게 울려 퍼지는 화음으로 숭고한 종교적 제의로 승화된 연주
브루크너가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던 성 플로리안의 성당에서는 1997년부터 '브루크너 주간' 음악제가 열리고 있다. 첼리비다케의 제자인 레미 발로는 2011년부터 이 음악제에서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는 성 플로리안 알토몬테 오케스트라와 〈교향곡 9번〉을 연주했다. 브루크너는 자신의 곡은 느리게 연주해야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발로의 연주는 77분에 이른다. 성당의 깊은 잔향을 타고 중후하게 울려 퍼지는 화음은 숭고한 종교적 제의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 앨범에는 특별히 피아노 이중주 편곡도 수록되었다.

99099
피아졸라: 르 그랑 탕고, 히나스테라: 아르헨티나의 춤, 앤더슨: 카르멘 환상곡 등
도라 델리스카(피아노), 노라 로마노프-슈바르츠베르크(비올라), 루카 몬티(피아노) 등

피아노와 함께 떠나는 세계의 독특한 춤곡 여행
그라몰라에서 발매한 여러 음반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도라 델리스카가 독특한 춤곡을 소개한다. 피아졸라의 유명한 〈르 그랑 탕고〉와 함께 스트라빈스키가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탱고〉가 수록되어 색다른 탱고를 즐길 수 있다. 민속음악 연구의 선구자인 버르토크의 〈세 개의 헝가리 민요〉와 〈불가리아 리듬을 가진 여섯 개의 춤〉은 동구권의 토속적 아름다움을 세련된 기법으로 표현했다. 앤더슨의 〈카르멘 환상곡〉은 스페인 남부의 정열을 담고 있으며, 히나스테라의 〈아르헨티나의 춤〉은 남미의 불꽃과 같은 리듬으로 가득하다.

99105
사랑의 길: 바흐와 마르완의 음악
마르완 아바도(우드), 파울 굴다(하프시코드)

유럽과 중동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다
'우드'는 류트와 흡사한 중동의 악기로, 이 음반에서 하프시코드와 이중주로 연주한다. 하프시코드는 건반악기지만 우드와 동일한 원리로 소리 내는 발현악기이기 때문에, 두 악기의 하모니는 매우 훌륭하다. 이 음반은 바흐와 우드 연주자 마르완 아바도의 작품이 번갈아 등장하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두 음악의 연관성과 조화를 보여준다. 특히 아바도가 바흐의 곡을 편곡한 〈베이루트의 바흐〉에서 절정에 이른다. 유럽과 중동의 음악과 악기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듯, '사랑의 길'이라는 제목의 이 음반은 이 두 세계의 화합을 기원한다.

Grand Piano

www.grandpiano.org

GP625
생상스 피아노 전곡 4집: 마주르카, 왈츠, 추억 등
제프리 벌슨(피아노)

고전적인 안정감을 갖추고 있으면서 낭만적인 경쾌한 춤곡들
생상스는 당대 최고의 건반 연주자로서 상당한 양의 피아노곡을 작곡했다. 새로운 레퍼토리 발굴로 명성을 얻고 있는 벌슨은 생상스 피아노 4집에서 마주르카, 왈츠 등 여러 춤곡들을 연주했다. 이 곡들은 고전적인 안정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쇼팽의 영향을 받은 듯한 경쾌한 분위기가 지배하여 생상스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된다. 12분이 넘는 〈미뉴에트와 왈츠〉는 춤의 경쾌함과 대위법적인 견고함, 그리고 낭만의 서정미가 고루 조화를 이루는 대작이다. 마지막 세 곡의 추억들은 리스본, 이탈리아, 이스마일리아 여행의 즐거운 순간을 전한다.

GP713 **[세계 최초 녹음 포함]**
발라키레프: 일곱 개의 왈츠, 세 개의 녹턴 등
니컬러스 워커(피아노)

쇼팽을 연상시키는 세련미와 러시아적인 표현이 교차하는 피아노곡
발라키레프는 러시아 5인조의 일원으로서, 특히 러시아 피아노 음악에 큰 공을 세웠다. 이 음반은 그의 일곱 개의 왈츠와 세 개의 녹턴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발라키레프의 왈츠는 러시아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상류사회가 즐길만한 세련된 멜로디와 화음으로 작곡되었으며, 음악적 규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그의 녹턴은 밤의 고요함을 노래하면서, 쇼팽을 연상시키는 낭만적인 서정성과 러시아적인 음울함이 교차하고 있다. 니컬러스 워커는 왕립음악원 교수로, 2010년 발라키레프 100주년 연주회를 가졌을 정도로 세계적인 발라키레프 전문가이다.

GP640 **[세계 최초 녹음]**
프로멜: 피아노 소나타 4~7번
타티아나 블로메(피아노)

낭만주의자 프로멜의 음악세계를 잘 보여주는 피아노 소나타들
게르하르트 프로멜은 낭만주의자였던 피츠너의 제자로, 그의 음악은 스승의 영향으로 낭만주의의 모습을 띄었다. 이 점은 청중으로부터 더욱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였지만, 음악사에서 잊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프로멜의 일곱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그의 음악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로, 이 음반에는 4번부터 7번까지 수록되어있다. 이 곡들은 독일 낭만음악을 계승하면서 스트라빈스키적인 표현력이 돋보이며, 특히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6번은 고전적 특성과 현대적 특성, 그리고 가믈란의 영향까지 보이는 종합적인 작품이다.

GP716 **[세계 최초 녹음]**
보리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및 실내악 작품
올가 솔로비에바(피아노), 드미트리 코로스텔료프(피아노), 마리나 디첸코(바이올린)

전통적인 사운드와 과감한 표현으로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보리스의 음악세계
쇼스타코비치의 제자였던 보리스 차이코프스키는 20세기 후반 소련 음악을 이끌었던 작곡가들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개성적인 과감한 표현이 두드러지면서 전통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으며, 감성적으로 어필한다. 이 음반은 10세 때의 작품부터 55세의 완숙한 시기의 작품까지 고루 수록하여 보리스의 음악세계를 조망한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모자이크 기법으로 작곡된 곡으로, 내면적인 정신에 닿는 듯한 최고의 표현력을 들려준다. 〈바이올린 소나타〉는 보리스의 미적 감각이 세련되게 다듬어진 뛰어난 작품이다.

Klanlogo

www.klanglogo.de

KL1515
갈랑트 류트
비니시우스 페레즈(류트)

갈랑트 스타일의 류트 연주를 만끽할 수 있는 음반
본 음반에는 갈랑트 시기 류트 작품 또는 이 시기 류트와 어울리거나 관계있을 법한 곡을 페레즈가 직접 편곡한 작품이 수록되어있다. 음반 곳곳에서 류트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류트로 편곡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은 원곡보다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며, 코하우트의 작품은 우아하다. 특히, 샤이들러의 '모차르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인상적인데, 루터니스트는 비르투오소의 면모라고 해도 좋을 법한 현란한 기교를 보여준다. 갈랑트 스타일의 류트 연주를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NAXOS IBA

www.naxo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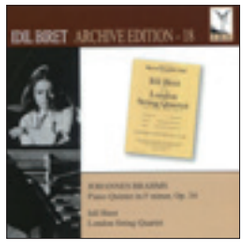
8.571319

브람스 : 첼로 소나타 1번, 2번

로데리크 폰 베닝젠(첼로), 이딜 비레트(피아노)

수십 년만의 재회가 이뤄낸 비애감 가득한 연주

2014년 9월 23~24일 벨기에 나뮈르 공연 실황. 첼리스트 로데리크 폰 베닝젠은 파블로 카살스와 피에르 푸르니에를, 이딜 비레트는 알프레드 코르토와 빌헬름 켐프를 각각 사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나디아 불랑제 아래 공부하던 시절에 처음 만나 친구가 되었으며, 1970년대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함께 연주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뒤 다시 호흡을 맞춘 이들의 연주에는 젊은 음악가들의 연주에서 느낄 수 없는 세월의 무상함과 노년의 고독감이 서려 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최소한의 표현으로 깊은 비애감을 자아내는 연주.



8.571320

브람스 : 피아노 오중주 바단조, Op. 34

이딜 비레트(피아노), 런던 현악 사중주단

찬란했던 순간을 기리는 찬란한 연주

런던 현악 사중주단은 1908년에 처음 창단한 이래 단원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이름에 걸맞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사중주단으로 존속했다. 이들이 1980년 1월 5일에 이딜 비레트와 함께 연주한 퀸 엘리자베스 홀 공연은 평단의 격찬을 받았으며, 이들은 공연 직후에 그날 프로그램의 후반부를 차지했던 브람스의 오중주를 녹음했다. 진정한 조화로움과 시정을 보여주는 이 녹음은 왜 평단이 이들의 연주에 하나같이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가를 잘 보여준다. 고즈넉하면서도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2악장은 특히 인상적이다.

ica ICA

www.icaclassics.com

ICAC 5137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1 · 17 · 20번

잉그리드 야코비(피아노),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연주), 네빌 마리너(지휘)

산뜻하고 선명한 터치가 돋보이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지나 박하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서 여러 공연과 음반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잉그리트 야코비의 신보.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와는 몇 년 전부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녹음해 오고 있는데, 본 음반은 세 번째 결과물이다. 라우라흐와 호나우어의 작품을 소재로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비롯해 모차르트의 원숙기와 만년기를 대표하는 피아노 협주곡 17번과 20번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야코비의 연주는 포르테피아노를 연상시킬 정도로 산뜻하고 선명하다. 피아노 협주곡 17번이 특히 인상적이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org.uk

LPO-0088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열 개의 노래

프세볼로드 그리브노프(테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지휘)

러시아적인 중후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득한 러시안 심포니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3번〉은 그의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적인 진행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가장 다양한 악상을 포함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템포와 분위기는 마치 장편소설과 같이 다양한 사건들을 말해주며, 그만큼 교향시적이면서 환상적이다. 런던 필하모닉과 수석지휘자인 유로프스키는 러시아적인 중후한 사운드와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들을 잘 부각시켜 이러한 극적 특징을 훌륭히 표현했다. 열 개의 노래는 영화음악 작곡가였던 유로프스키의 할아버지가 관현악으로 편곡한 것으로, 오페라의 명장면과 같이 웅장하고 극적이다.

Indesens

www.indesensdigital.fr

INDE060

에스케슈: 관악을 위한 실내악 작품

에릭 오비에(트럼펫), 이니티움 목관앙상블, 악손 색소폰 사중주단, 방돔 클라리넷 사중주단, 티에리 에스케슈(피아노)

드라마틱한 운동성과 열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에스케슈의 관악 작품집

프랑스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이자 저명한 작곡가인 티에리 에스케슈의 관악 작품을 수록했다. 에스케슈의 음악은 매우 드라마틱한 운동성을 갖고 있으며, 열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다. 〈매직 서커스〉는 유머러스한 광대를 연상케 하는 음악적 유머가 특징이며, 〈기계적인 노래〉는 강렬한 리듬을 타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펼쳐진다. 〈무도회〉는 신비로운 화음의 연속으로 환상적이다.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인 에릭 오비에와 파리음악원 실내악 1등, 마르세유 목관오중주 콩쿠르 2등에 빛나는 앙상블 이니티움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악 앙상블들이 참여했다.

INDE062

프랑스 플루트 음악의 예술

뱅상 루카(플루트), 에마뉘엘 스트로세(피아노)

프랑스를 상징하는 악기, 플루트로 연주하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프랑스 음악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이자 파리음악원 교수인 뱅상 루카가 프랑스 플루트 음악을 연주했다. 인상주의 이후 플루트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악기가 되었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은 플루트의 몽환적 표현에서 전무후무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그의 선배들의 명곡인 포레의 〈환상곡〉과 비도르의 〈모음곡〉에 그 씨앗이 있다. 고베르와 메시앙, 졸리베의 소품들은 이러한 화려하고 환상적인 프랑스 플루트를 잇는 걸작이다. 풀렝크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의 〈플루트 소나타〉는 플루트 레퍼토리로서 매우 중요하다.

INDE064

프렌치 혼의 예술: 베토벤, 슈만, 뒤카스, 힌데미트 등

다비드 알론소(혼), 엘렌 튀스망(피아노)

유럽 정상의 혼 연주자가 들려주는 영혼을 울리는 따스한 음향

다비드 알론소는 뮌헨 ARD 콩쿠르 1등상과 청중상을 비롯하여 여러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유럽 장상의 혼 연주자로서 구스타프 말러 청소년 관현악단 수석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솔리스트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알론소는 독일을 대표하는 혼을 위한 실내악 작품인 베토벤 〈혼 소나타〉와 슈만 〈안단테와 알레그로〉, 힌데미트 〈혼 소나타〉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완벽주의자 폴 뒤카스 〈바야넬레〉 등을 수록했다. 알론소의 연주는 많은 혼 연주자들이 내기 어려운 폭넓은 다이나믹을 갖고 있으며, 영혼을 울리는 혼의 따뜻함 또한 충만하다.

INDE065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등

타티아나 사무일(바이올린), 이리나 란코바(피아노)

1721년 스트라디바리우스 "크라이슬러"로 연주하는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 명곡

타티아나 사무일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최고의 콩쿠르에서 수상한 실력파 연주자로, 소치 올림픽 폐막식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그녀는 크라이슬러가 소유했던 1721년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고 있는데, 이 악기로 크라이슬러의 걸작 〈사랑의 슬픔〉과 〈사랑의 기쁨〉, 〈전주곡과 알레그로〉 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 등에서 사무일은 최고 수준의 연주력을 들려주며, 차이코프스키의 〈좋은 장소의 추억〉에서는 깊은 서정미를 표현한다.

INDE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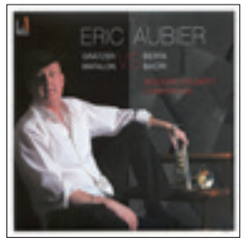
베버: 클라리넷 협주곡 전곡, 후멜: 트럼펫 협주곡

필리프 쿠퍼(클라리넷), 에릭 오비에(트럼펫), 브레타뉴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기 낭만시대를 풍미하는 베버와 후멜의 관악기를 위한 협주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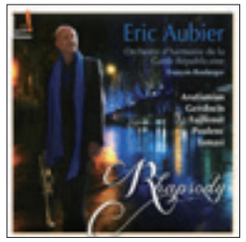
칼 마리아 폰 베버는 독일 민족 오페라의 서막을 연 오페라 작곡가지만, 당시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하인리히 베르만의 연주에 감동하여 1811년에만 무려 세 곡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작곡했다. 이 음반에서는 이 모두를 들을 수 있다. 필리프 쿠퍼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이자 베르사유 국립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상급 연주자로, 따뜻하고 화사한 음색으로 특별한 감동을 준다. 이와 함께 모차르트와 클레멘티의 제자이자 베토벤의 친구였던 후멜의 〈트럼펫 협주곡〉을 오비에의 시원하고 화통한 연주로 들을 수 있다.

INDE070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1번, 패르트: B–A–C–H 주제의 작은 협주곡 등
에릭 오비에(트럼펫), 루스템 사이트쿨로프(피아노), 패드사봐 오케스트라, 니콜라 샬뱅(지휘)
트럼펫, 피아노, 현을 위한 독특한 협주곡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이후 여러 작곡가들이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오마주로서 피아노, 트럼펫, 현악의 편성으로 협주곡을 작곡하곤 했는데, 이 음반은 쇼스타코비치의 작품과 함께 특별히 에스토니아의 작곡가인 아르보 패르트와 얀 래트의 협주곡을 수록했다. 래트의 협주곡은 트럼펫의 활약이 돋보이면서 드라마틱하고 거친 표현이 인상적이며, 패르트의 협주곡과 현악곡 〈동양과 서양〉에는 특유의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어조가 있다.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 오비에와 러시아 피아니즘을 계승한 사이트쿨로프의 앙상블은 최고이다.



INDE071 **[세계 최초 녹음]**
에릭 오비에가 연주하는 현대 트럼펫 협주곡
에릭 오비에(트럼펫), 공화국 근위대 관현악단, 로렌 국립 관현악단, 브레타뉴 교향악단, 프랑스 방송 관현악단
프랑스 작곡가 베파와 바크리, 아르헨티나 작곡가 마탈론과 그레처의 대결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가 네 곡의 현대 트럼펫 협주곡을 연주했다. 이 음반은 프랑스 작곡가인 카롤 베파, 니콜라 바크리와 아르헨티나 작곡가 마르틴 마탈론, 카를로스 그레처의 작품으로 두 나라를 비교한다. 그래서 '그레처/말라톤 VS 베파/바크리'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베파의 협주곡은 감상적인 애수가 녹아있다면, 바크리의 협주곡은 거칠고 역동적이다. 마탈론의 협주곡 〈Trame V〉는 다양한 악음기를 활용한 음색 연주가 흥미로우며, 그레처의 협주곡 〈아우라〉는 앙상블 곡으로서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지는 음색의 향연이 이채롭다.

INDE072 **[세계 최초 녹음 포함]**
크리스마스의 트럼펫
에릭 오비에(트럼펫), 티에리 에스케슈(오르간), 공화국 근위대 관현악단, 뮈지크 드 레르 오케스트라, 베르만 클라리넷 육중주단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재즈와 클래식 명곡 앨범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가 연주하는 소품들이다. 거슈윈의 걸작 〈랩소디 인 블루〉를 트럼펫으로 편곡하여 재즈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며, 바로크 춤 모음곡을 모방한 클로드 볼링의 재즈곡 〈Toot Suite〉로 이어진다. 라위페르츠의 빅밴드풍의 작품 〈트럼펫 협주곡〉은 모던 재즈 사운드를 들려준다. 두 번째 CD에는 바흐 〈예수는 나의 기쁨〉, 모차르트 〈아베 베룸 코르푸스〉, 프랑크 〈파니스 안젤리쿠스〉, 구노 〈아베마리아〉 등 클래식 명곡이 수록되어있다. 에스케슈가 편곡한 〈크리스마스 메들리〉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다.



INDE073 **[세계 최초 녹음 포함]**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 아루티우니안: 트럼펫 협주곡, 풀렝크: 장군의 연설 등
에릭 오비에(트럼펫), 공화국 근위대 하모니 오케스트라
에릭 오비에와 공화국 근위대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궁극의 관악 사운드
프랑스 최고의 트럼페터 에릭 오비에와 공화국 근위대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트럼펫 협주곡 작품집이다.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는 본래 피아노가 독주를 연주하지만 트럼펫 독주로 편곡하여 재즈의 분위기를 더욱 살렸다. 중요한 프랑스 트럼펫 레퍼토리인 토마시의 〈트럼펫 협주곡〉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트럼펫 협주곡 중 하나인 아루티우니안의 〈트럼펫 협주곡〉은 특별히 공화국 근위대 오케스트라를 위해 윈드 앙상블을 위해 편곡하여 연주했다. 모리스 페유노의 〈콘체르티노〉는 영화음악과 같은 극적 표현이 돋보인다.

INDE074
라이네케, 힌데미트, 프로코피에프: 플루트 소나타
다니엘라 코흐(플루트), 올리버 트린들(피아노)
남다른 레퍼토리로 플루트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오스트리아의 라이징 스타
다니엘라 코흐는 2009년 고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10년 뮌헨 ARD 국제 콩쿠르에서 2등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또한 빈 콘체르트하우스와 무지크페라인으로부터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현재 밤베르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이며, 여러 음반이 큰 호평을 받았다. 코흐는 이 음반에서 플루트 레퍼토리의 중심에 위치한 라이네케의 〈운디네 소나타〉로 플루트의 진정한 묘미와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들려준다. 또한 프로코피에프와 힌데미트의 소나타 등 남다른 레퍼토리로 플루트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INDE079
다비트, 토마시, 그린달: 트롬본 협주곡 / 마르탱: 발라드
자크 모저(트롬본), 프랑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랑 프티지라르(지휘)
"위대한 트롬본 협주곡"에 걸맞은 중요한 트롬본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
"영감이 가득한 뛰어난 아티스트" 세계 정상의 트롬본 연주자인 자크 모저는 여러 콩쿠르를 석권하고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트롬본 솔리스트이자 파리 레욘망 레지오날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음반은 트롬본 협주곡의 고전인 페르디난트 다비트의 〈트롬본 협주곡〉을 비롯하여 보석과 같은 프랑크 마르탱의 트롬본과 관현악을 위한 〈발라드〉, 프랑스 관악의 자존심 앙리 토마시의 〈트롬본 협주곡〉 등 타이틀 "위대한 트롬본 협주곡"에 걸맞은 중요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또한 덴마크 작곡가 그린달의 걸작 〈트롬본 협주곡〉도 연주했다.

Marco Polo

www.naxos.com

8.225829
양산백과 축영대 피아노 협주곡, 1930 · 40년대 중국 유행가요
케네스 셔머혼(지휘), 슈 페이핑(피아노), 천동(바리톤),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외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재로 한 피아노 협주곡
음반 제목의 '양축(梁祝)'은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불리는 '양산백(梁山伯)과 축영대(祝英台)' 설화를 뜻한다. '양축' 피아노 협주곡은 원래 1958년에 천강과 허 장하오가 작곡한 같은 이름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는데, 1985년에 천강은 이를 피아노협주곡으로 편곡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음반에는 1930 · 40년대 중국에서 유행하던 가요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2번 트랙인 '장미, 장미, 너를 사랑해'는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다. '양축' 협주곡은 경극의 한 장면을, 1930 · 40년대 유행 가요는 그 시절 '상해탄(上海灘)' 어딘가를 떠오르게 한다.

Ondine

www.ondine.net

ODE1279–5 **[하이브리드 서라운드 DSD SACD]**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 로망스 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욘 스토르고르즈(지휘)
테츨라프가 연주하는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폭 넓은 레퍼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테츨라프가 드보르작과 수크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녹음했다. 이 중에서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이 기대되는 이유는 실황과 녹음 모두 고른 기량을 보여준 전작 때문일 것이다. 테츨라프는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연주를 보여주며, 악단과 바이올린 모두 군더더기 없고 섬세하고 자유롭다.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에서 마음껏 들판을 누비는 바람을 연상시키는 바이올린의 음색은 보헤미안의 이미지 그 자체이다.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201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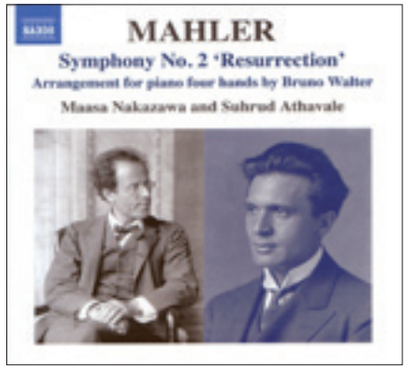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100051
차이코프스키, 스메타나: 피아노 삼중주
트리오 콘 브리오 코페하겐
고급스러운 사운드와 안정된 조화에서 듣는 실내악의 아름다움
덴마크 코펜하겐을 근거지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리오 콘 브리오' 삼중주단은 뮌헨 ARD 콩쿠르와 피렌체 '비토리오 기' 콩쿠르, 노르웨이 트론헤임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여 세계 정상의 앙상블임을 입증했다. 또한 덴마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P2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코펜하겐 실내악 축제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차이코프스키와 스메타나의 사중주곡을 수록한 이 음반에서 이들은 미세하게 조절된 현악기의 다이나믹과 낭랑한 피아노의 임팩트로 고급스러운 사운드와 안정된 조화를 만들며 두 작품이 지닌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Naxos

www.naxos.com



8.573350 **[세계최초녹음]**

말러: 교향곡 2번 '부활'(네 손을 위한 피아노 버전)

나카자와 마사, 서러드 애서베일(피아노)

말러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으로 가득 찬 발터의 '부활' 편곡

브루노 발터는 1894년에 함부르크 가극장의 지휘자로 있던 말러의 조수가 되었다. 이후 그는 평생에 걸쳐 후배이자 동료로서 말러를 지극히 존경했으며, 말러가 자신의 '교향곡 2번'을 전곡 초연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발터가 작곡가 자신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이 곡을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하는 일에 착수한 것 역시 이런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나카자와 마사와 서러드 애서베일은 대단히 명민하고 엄격한 연주로 발터가 이 축약 버전에서 가능한 한 온전히 유지하고자 했던 극적 긴장감과 다양한 표현을 최대한 살려내고 있다.

8.573368

영: 언인바이티드, 걸리버 여행기 외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윌리엄 스트롬버그(지휘)

할리우드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던 빅터 영의 대표작들

미국의 작곡가, 편곡가,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 빅터 영은 한창 활동하던 당시에는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축에 속하는 작곡가였다. 그는 경쾌하고 매력적인 음악으로 많은 관객의 귀를 사로잡으면서 할리우드 주류 영화음악의 한 축을 이루었다. 여기서는 한동안 할리우드에서 나온 유령 영화 가운데 최고의 수작으로 꼽혔던 '언인바이티드', 파라마운트 사의 첫 번째이자 미국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 '걸리버 여행기', 담배를 매개로 인간사의 온갖 영욕을 담아낸 '위대한 연초' 등 그의 스타일을 특히 잘 보여주는 작품들을 골라 수록했다.

8.573382

로시니, 파가니니, 베르디 외: 관현악 작품

뷔르츠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엔리코 칼레소(지휘)

잘 알려진 작곡가들의 색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관현악 작품들

맬컴 사전트가 연주회용 모음곡으로 편집한 레스피기의 로시니 편곡 '이상한 가게'를 제외한 다른 수록곡은 거의 접하기 힘든 곡들이다. 극적이고 비장한 푸치니의 '교향적 전주곡'과 매혹적인 악상과 유머감각이 가득한 로시니의 '바순 협주곡', 베르디의 초기작 중 하나이지만 중기 오페라와 비슷한 역동적인 악상이 인상적인 '바순과 관현악을 위한 카프리치오', 1985년에야 비로소 출판된 파가니니의 '호른과 바순 및 관현악을 위한 콘체르티노' 등 오페라나 바이올린 작품으로만 잘 알려진 작곡가들의 새로운 면모를 이 음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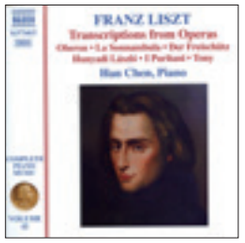
8.573403

바이올린을 위한 오페라 환상곡 2집: 베르디, 헨델, 사라사테 외

리비아 손(바이올린), 베냐민 뢰브(피아노)

헨델에서 21세기까지 걸친 다양한 오페라 선율의 편곡

녹음 기술이 출현하기 전에는 오페라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오페라 선율을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였다. 여기에는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편곡한 헨델의 '크세르크세스'나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글루크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같은 고전적인 예 외에도 베르디나 후바이, 마르티누 등의 작품 편곡도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피아니스트 베냐민 뢰브가 직접 편곡한 것이다. 베르거가 자신의 오페라 '종군 기자' 주제를 환상곡으로 각색한 작품 등 21세기에 작곡된 곡도 있다. 중견 음악가로 성장한 재미 바이올리니스트 리비아 손의 유연한 연주가 돋보인다.



8.573415

리스트: 오페라 편곡

한 천(피아노)

리스트의 손에서 화려하게 재탄생한 오페라 명곡의 선율들

리스트는 다른 작곡가들의 오페라 주제를 즐겨 피아노곡으로 편곡 또는 개작하곤 했으며, 이것은 집에서 유명 오페라의 선율을 쉽게 즐기는 방법이기도 했다. 편곡의 대상은 베버의 '마탄의 사수'나 '오베론', 벨리니의 '청교도' 및 '몽유병의 여인' 같은 유명 작품뿐만 아니라 페렌츠 에르켈의 '후냐디 라슬로', 에른스트 폰 작센-코부르크-고타(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앨버트 공의 형)의 '토니' 등 오늘날 잊힌 작품까지 골고루 망라하고 있다. 태만 태생으로 2013년 중국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한 천은 힘차고 명쾌한 타건으로 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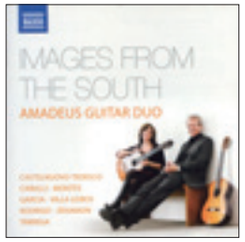
8.573436

슈만: 젊은이를 위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외

이진상(피아노)

진정한 슈만 애호가를 위한 말년의 작품들

여기 수록된 곡 대부분은 슈만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이 끝나갈 무렵에 쓴 것들이다. '새벽의 노래'는 그의 유명한 자살시도 직전에 완성되었다. '젊은이를 위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는 슈만이 자기 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산뜻하고 천진한 분위기의 작품들이다. '소나타 3번'의 원래 피날레로 계획된 악장과 슈만의 스케치에서 복원한 '소나타 4번'의 악장들도 흥미를 자극한다. 2005년 퀼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및 2009년 게자 안다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바 있는 이진상은 모든 곡에서 명쾌한 아티큘레이션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8.573442

'남국의 이미지'(Images From The South): 빌라-로보스, 로드리고 외

아마데우스 기타 이중주단

태양빛 가득한 라틴계 국가들의 기타 음악

이탈리아와 스페인, 중남미의 기타 음악들로 채워진 음반.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곡들은 그의 작품 상당수가 그렇듯 바로크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가풍의 푸가'는 그의 마지막 작품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위대한 기타 연주자였던 카룰리의 '세레나데', 아마데우스 기타 이중주단에 헌정된 몬테스의 '수라마', 가르시아가 쓴 두 대의 기타와 기타 앙상블을 위한 협주곡을 기타 이중주용으로 편곡한 '로르카 환상곡' 등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작품들과 로드리고와 빌라-로보스, 타레가 등 친숙한 작곡가들의 작품 모두 빼어난 솜씨로 연주되었다.

8.573457

일본 기타 음악 2집: 다케미츠, 하라, 미요시, 호소카와 외

후쿠다 신이치(기타)

특이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현대 일본의 기타 음악들

일본의 현대 작곡가들도 기타를 위한 곡을 상당히 많이 썼으며, 이들 작품은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와는 전혀 다른 감수성을 보여준다. 다케미츠의 '초봄의 노래'는 나카다 아키라의 유명한 노래를 편곡한 것이다. 하라 히로시의 '만가'는 엄숙하면서도 애잔하며, 미요시 아키라의 '기타를 위한 다섯 편의 시'는 인상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윤이상의 제자인 호소카와 도시오는 '세레나데' 및 '두 개의 일본 민요'에서 일본의 옛 악기인 샤미센 및 고토의 음을 모방함과 동시에 예측키 어려운 색채와 짜임새로 동서양의 음악적 융합을 이뤄내고 있다.

8.573486

반 더 로스트: 교향시 '스파르타쿠스' 외

오사칸, 얀 반 더 로스트(지휘)

관악 오케스트라의 표현력을 극한까지 추구한 반 더 로스트의 작품들

벨기에 작곡가인 얀 반 더 로스트는 지금까지 대략 100편의 곡을 썼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은 관악 오케스트라나 관악 앙상블을 위한 것이다. 교향시 '스파르타쿠스'는 제목이 암시하듯 로마 시대를 그린 할리우드 사극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레스피기에게 헌정된 작품답게 관현악의 색채감이 십분 발휘되고 있다. '산의 시'는 이탈리아 아오스타 계곡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웅대하고 장엄한 느낌의 곡이다. 네 개의 대조적인 악장으로 이루어진 신포니에타 '스케치 모음'은 기교와 표현 양면에서 현대 관악 오케스트라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을 탐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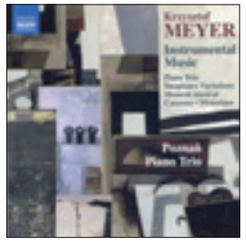
8.573490

맨해튼 간주곡: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영미권 음악

제프리 비걸(피아노), 브라운 대학교 오케스트라, 폴 필립스(지휘)

장르의 경계를 가로질러 펼쳐지는 음악의 유희

이 음반은 정통 클래식 이외의 장르에서 크게 활약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담고 있다. 재즈계의 신화적 인물 듀크 엘링턴의 '새 세상이 오고 있네'는 모리스 페레스의 편곡으로 연주되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인 닐 세다카의 '맨해튼 간주곡'은 끊임없이 변모하는 악상으로 다양한 인종의 용광로인 뉴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본다.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인 '에머슨, 레이크 & 팔머'를 이끌면서 아트 록의 새 경지를 개척한 키스 에머슨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대위법 등 학구적인 면모와 유희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뜻밖의 즐거움을 준다.



8.573500

메이에르: 피아노 삼중주 외

포즈난 피아노 삼중주단

30여 년에 걸친 엄격한 음악적 탐구에 대한 기록

폴란드 작곡가이가 피아니스트 겸 음악학자인 크시시토프 메이에르는 1960년대 초에 작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에 걸쳐 많은 작품을 썼으며, 이 가운데는 기악을 위한 실내악이나 독주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단히 기교적인 '악흥의 순간'(1976)부터 30여 분 내내 밀도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는 '삼중주'(1980)를 거쳐 끊임없이 변모하는 형식에 대한 탐구인 '상상 변주곡'(2010)에 이르기까지 여기 실린 작품들은 그가 낯선 음향 효과에 몰두하던 초기의 경향을 버리고 고전적이고 명확한 짜임새를 중시하게 된 후기 경향을 보여준다.

8.573520

'타악기의 세계'(World Of Pucussion): 외트뵈시, 라이보비츠 외

티에리 미롤료(타악기)

끝없이 확장되는 타악기의 세계 현주소를 보여주는 음반

여기 실린 여섯 작품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현대 타악기 음악을 조명하고 있다. 다양한 리듬과 전자음악 음향이 복잡하고도 멋지게 교차하는 브루노 만토바니의 '위대한 놀이'부터 금속 타악기와 전자음악으로 색다른 음색을 추구하는 마르코 스트로파의 '아우라', 베이스 팀파노 단 하나로 다양한 표현을 들려주는 외트뵈시의 '천둥', 현대음악의 기수였던 지휘자 르네 라이보비치가 작곡한 '세 개의 카프리스' 등 모두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400개가 넘는 레퍼토리를 지니고 40여개 나라에서 공연한 바 있는 티에리 미롤료는 애매한 데 없이 명쾌하게 연주했다.

8.573544

솔레르: 건반 소나타 57~62번

믈라덴 촐리치(피아노)

스카를라티의 가장 뛰어난 제자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들

스페인의 성직자였던 안토니오 솔레르는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제자 중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기도 했다. 스승과 마찬가지로 건반 소나타 작곡에 주력했던 그는 이 장르에서 120곡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다. 솔레르의 건반 소나타 5집에 해당하는 이 음반에 실린 건반 소나타들은 스카를라티의 영향과 중부 유럽의 최신 경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2007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3회 마리아 카날스 국제 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세르비아 출신 피아니스트 믈라덴 촐리치는 투명하면서도 대비가 명확한 연주를 들려준다.

8.660367–68

마이어: 오페라 '사포'

브라운(소프라노) 외, 지몬 마이어 합창단, 콘체르토 데 바수스, 프란츠 하우크(지휘)

마이어의 출세작 '사포'의 세계 최초 녹음

독일 출신의 이탈리아 작곡가 요한 지몬 마이어는 만하임 악파와 빈 고전주의의 영향에 이탈리아 음악의 성악과 극적 구조를 결합해 뛰어난 오페라를 다수 작곡했다. 첫 오페라인 '사포'의 성공은 그를 일약 주목받는 작곡가로 만들었다. 근래 마이어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프란츠 하우크는 하프시코드를 겸하는 와중에도 힘차고 생생한 연주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역인 안드레아 로렌 브라운을 포함한 전 성악진이 멋진 가창을 들려주며, 파오네 역을 청아한 목소리로 훌륭히 소화해낸 소프라노 윤재원의 활약은 특히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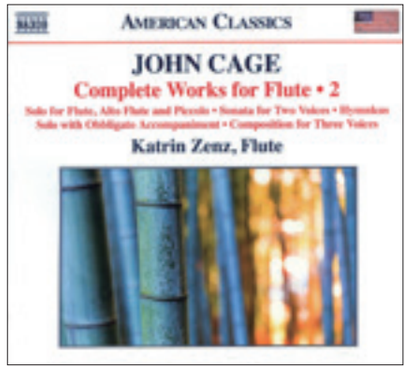
8.559797

모라벡: 바이올린 협주곡, 샤쿠하치 오중주 외

바흐만(바이올린), 슐레퍼(샤쿠하치), 고슬링(피아노), 밀라노프(지휘)

독특한 서정미를 보여주는 신낭만주의자 폴 모라벡의 작품들

1957년생인 미국 작곡가 폴 모라벡은 우아한 선율과 서정적이면서도 극적이고 긴장감 있는 음악 어법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바이올린 협주곡'은 그의 대작 가운데 하나이며, 독주 바이올린이 끊임없이 긴 호흡으로 노래하는 이 곡은 그가 왜 신낭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지 알게 해준다. 일본의 관악기로 일종의 퉁소라 할 수 있는 샤쿠하치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샤쿠하치 오중주'는 애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우며, '평정'은 이 음반에 수록하기 위해 2015년에 작곡한 곡이다. 달콤한 분위기의 소품 '언제나'는 바흐만을 위한 결혼 선물로서 작곡되었다.



8.559774

케이지: 2성부 소나타, 3성부를 위한 구성 등

카트린 첸츠(플루트), 루도비치 프로호트, 카라 야코비두(피아노) 외

다양한 기법과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케이지의 플루트 작품들

존 케이지의 플루트 작품 시리즈 중 두 번째. 여기 실린 곡들은 '2성부 소나타'(1933)부터 'Hymnkus'(1986)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에 걸쳐 작곡되었다. 1집 음반에서 놀라운 연주를 들려주었던 카트린 첸츠는 여기서도 다양한 연주 기교와 복잡한 리듬이 특징인 1930년대 작품들서부터 우연적 요소가 다분한 'Humnkus'(찬가를 뜻하는 'Hymn'과 '하이쿠'의 합성어)에 이르기까지 케이지가 걸어간 궤적을 놀라울 만큼 치밀한 태도로 추적하고 있다. **'플루트와 알토 플루트, 피콜로를 위한 독주'(1958)을 제외한 모든 곡은 세계 최초 녹음.**

8.571371

채그린: 교향곡 1번, 2번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틴 브래빈스(지휘)

다양한 분위기와 극심한 명암 교차가 돋보이는 채그린의 교향곡들

스스로 '태생으로는 루마니아인, 국적으로는 영국인, 기질은 세계인'이라고 칭하곤 했던 프랜시스 채그린은 폴 뒤카스와 나디아 불랑제를 사사했으며, 영화음악 분야에서 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장르에 걸쳐 작품을 남겼다. 여기 수록된 두 교향곡은 그의 전체 작품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극적이고 다양한 색채와 분위기를 지녔으며 극심한 명암 교차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새로운 음악을 능숙하게 연주하는 것으로 이름난 BBC 심포니는 여기서도 브래빈스의 통솔 아래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171

루셀: 푸가, '부활', '시간은 흘러간다' 외

장-피에르 아르멩고(피아노)

알베르 루셀의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피아노 작품들

알베르 루셀은 관현악 작품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피아노곡도 적잖게 작곡했다. 루셀 피아노 작품집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음반에는 작곡가가 톨스토이의 장편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자신의 동명 관현악곡을 축약한 '부활' 외에도 작곡가의 초기작으로 각각 형식과 분위기에 대한 탐구의 소산이라 할 수 있는 '푸가' 및 '시간은 흘러간다', 자연에 대한 애정과 독창적인 리듬 감각이 돋보이는 '시골풍', 바로크 시대 모음곡 양식을 의도적인 모방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발랄한 악상과 신선한 효과를 보여주는 '모음곡 올림바장조'가 수록되어 있다.

8.573257

그라치아니: 칸타타집, Op. 25

콘소르티움 카리시미, 개릭 코모(지휘)

우아하고 격조 높은 그라치아니의 칸타타집

로마 예수회 성당의 악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던 보니파치오 그라치아니는 사제이자 작곡가로서 교황에게 직접 작곡을 명받을 정도로 명성을 떨쳤으며, 그의 작품은 유럽 전역에 걸쳐 큰 인기를 누렸다. 'Op. 25'로 묶인 그의 칸타타는 크리스마스 찬가에서 마지막 곡 '세상의 헛됨에 대하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전례용 칸타타 혹은 모테트에 관한 한 당대 일급의 대가였던 그라치아니의 능력을 잘 보여준다. 그의 오라토리오 녹음으로 격찬받은 바 있는 콘소르티움 카리시미는 여기서도 격조 높은 연주를 들려준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285

폰세: 기타 음악 4집

쥐디셀 페루아(기타)

20세기 멕시코 음악의 대부 마누엘 폰세의 기타 작품집

마누엘 폰세는 1923년에 전설적인 기타 연주자인 세고비아의 연주를 들은 뒤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로 이 연주자와 우정을 쌓는 동시에 많은 기타 곡을 작곡했다. 첫 수록곡 '남유럽 소나티나' 역시 '순수하게 스페인적인 성격을 지닌 곡'을 써달라는 세고비아의 요청에 응해 작곡한 것이다. 인상적인 화성 진행을 보여준 느 '주제와 변주, 피날레'는 여기서 처음으로 한 음반에 두 버전 모두 수록되었으며, '카베손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폰세의 마지막 기타 작품이다. '안단테'는 스페인 내전 중에 악보가 사라진 '소나타 2번'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분이다.

8.573488

하이든: 오페라 서곡집

파르두비체 체코 체임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미하엘 할라스(지휘)

오페라 작곡가 하이든의 면모를 보여주는 다양한 서곡 모음집

하이든의 오페라는 오늘날 자주 연주되지 않는 편이지만 당대에는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그의 오페라는 첫 작품인 '아치데와 갈라테아'부터 '철학자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거의 30년에 걸쳐 작곡되었으며, 이탈리아 오페라뿐만 아니라 독일 징슈필이나 꼭두각시 인형극을 위한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 실린 서곡들은 그 자체가 하이든 오페라의 축약판이라 할 수 있으며, 작곡가의 뛰어난 음악성과 극적 재능을 잘 보여준다.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서곡 녹음들로 명성을 얻은 바 있는 할라스는 여기서도 말쑥하고 잘 다듬어진 연주를 들려준다.

8.573491

베이네르: 총고르와 튄데,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발라드(비올라 버전)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MAV, 발레리아 차니 (지휘)

교육자 베이네르의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들

부다페스트의 리스트 아카데미에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많은 후진을 양성한 레오 베이네르는 음악사에서 교육자로 주로 인식되지만, 상상력 돋보이는 색채감과 능숙한 관현악법, 서정성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도 많이 썼다. '총고르와 튄데'는 총고르라는 왕자와 튄데라는 이름의 요정이 악의 방해를 물리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내용의 시를 희곡으로 개작한 것에 곡을 붙인 것으로, 작곡가는 자신의 '최고 걸작'을 여겼던 이 곡을 죽기 1년 전에 발레용으로 개작했다. 인상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발라드'는 비올라 버전으로 연주되었다.

8.573527

스크랴빈: 피아노 작품집

이소연(피아노)

쇼팽의 영향을 러시아적으로 재창조한 스크랴빈의 피아노 작품들

스크랴빈의 피아노곡이라면 소나타와 전주곡이 주로 조명되지만, 그는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곡들도 많이 작곡했다. 소품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중요성이나 독창성은 다른 대작들에 미치지 않는 작품들이다. 곡 제목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스크랴빈은 쇼팽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으면서도 여기에 러시아 특유의 어두운 색채를 더했다. 2004년 공연 예술가 조합 국제 콩쿠르와 2010년 나움부르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이소연은 모든 곡에서 명징하면서도 풍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8.573263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 1집

바르셀로나 심포니 & 카탈루냐 내셔널 오케스트라(연주), 파블로 곤잘레스(지휘)

피아노 작품에 가려졌던 그라나도스의 관현악 작품들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작품들은 그의 작품 전부라고 여겨질 정도로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라나도스가 남긴 관현악 작품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음반에는 피아노 작품에 가려졌던 그라나도스의 관현악 작품들을 재조명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음반이다. 그리그를 연상시키는 '갈리시아 노래에 의한 모음곡(7–10번 트랙)', 비제와 생상스를 연상시키는 부속음악 '토리호스(2–6번 트랙)'는 피아노 음악 못지않은 그라나도스 관현악 작품의 매력을 보여준다. 리듬감과 색채가 살아있는 연주는 기대 이상의 감흥을 선사한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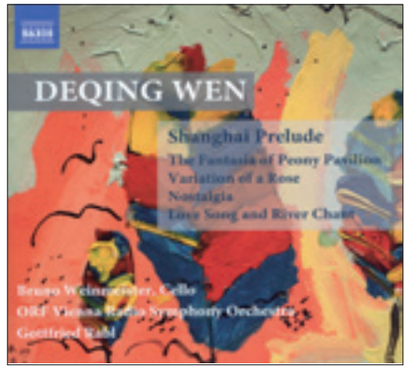
8.573304

아나 소콜로비치 : 민속 영감

앙상블 트랜스미션(연주)

발칸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

본 음반에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사람인 아나 소콜로비치의 매력적인 작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음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베즈(1번 트랙)', '메쉬(6번 트랙)', '샤콘느(8번 트랙)'는 세르비아 출신인 그녀가 발칸 민속음악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보여준다. 민속음악 이외에도 그녀의 영감은 다양한 악기가 갖고 있는 매력을 이끌어내는 작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피아노, 첼로, 클라리넷, 플룻 등 다양한 악기의 독주와 앙상블이 보여주는 변화무쌍한 음향은 놀랍기만 하다. **'3개의 연습곡(3–5번 트랙)', '메쉬(6번 트랙)', '안개 다발(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0619

더칭 원: 상하이 서곡, 모란정 환상곡 등

브루노 웨인마이스터(첼로), 비엔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고트프리트 라블(지휘)

중국 전통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더칭 원의 작품들

중국 출신 스위스 작곡가 더칭 원의 작품이 수록된 음반. 중국의 정취와 전통 예술을 재해석하고 있는 더칭 원의 작품들은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탕현조(湯顯祖)가 쓴 《모란정환혼기(牡丹亭還魂記)》의 쿤취(KunQu opera, 崑曲) 버전을 모티브로 작곡한 '모란정 환상곡(2번 트랙)'에서는 경극의 한 장면이 생생하다. 프랑스 민요 '맑은 샘에서)'를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색채로 재해석한 '노스텔지아(4번 트랙)'를 비롯해 중국 각지의 민요를 주제로 작곡한 작품들(3 · 5번 트랙)에서는 민요의 무한한 가능성도 느껴볼 수 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446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들

오하이오 주립대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러셀 미켈슨(지휘)

관악 앙상블이 보여주는 현란한 색채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관악 앙상블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켈슨과 오하이오 주립대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신보이다. 다른 악기와 구분되는 관악기의 매력은 이번 음반에도 가득하다. 관악기의 폭발적인 힘과 현란한 색채가 인상적인 케빈 푸츠의 '네트워크(1번 트랙)'와 스티브 브라이언트의 '관악 앙상블을 위한 협주곡(9–13번 트랙)'은 본 음반의 백미이다. 올리버 너센과 콜린 매튜스가 편곡한 '바위 위에 박힌 검 조곡(2–7번 트랙)'과 말러의 '한밤중에(8번 트랙)'에서 관악 앙상블은 묘사적인 느낌도 탁월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8.573402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피아노 3중주 1집

트리오 판게아(연주)

19~20세기 포르투갈 실내악의 재조명

19~20세기 포르투갈의 실내악 작품은 같은 시기 관현악 작품과 더불어 르네상스 이후 포르투갈 음악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성과이다. 포르투갈 작곡가들의 피아노 3중주를 조망하는 첫 번째 결과물인 본 음반도 같은 연장선 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각 프랑스와 독일 음악의 영향을 받은 클라우디오 카르네이루와 루이 코스타의 작품을 비롯해 아제베두가 야나첵의 '안개 속에서'를 주제로 작곡한 피아노 삼중주 '후크발디(8번 트랙)'는 포르투갈 음악과 유럽 음악의 통섭을 보여주고 있다. **'후크발디 삼중주(8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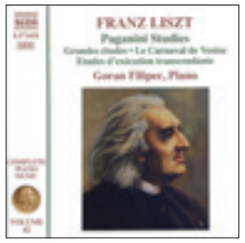
8.573429

이투랄데: 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 전곡

히메네스(색소폰), 오카냐(피아노), 드랑글레(알토 색소폰)

이투랄데가 음반을 위해 직접 편곡한 작품들(2014년 버전)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이투랄데의 음악은 많은 버전들 때문에 음반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음반 녹음을 위해 이투랄데가 그의 작품을 직접 편곡한 본 음반은 '정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즈와 클래식, 민요 모티브가 조화를 이루는 그의 음악적 색채는 색소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언뜻 엔리코 피에라눈치를 떠오르게 하는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어 본 음반의 편곡은 한층 새롭게 느껴진다. 재즈와 클래식 팬 모두 부담없이 이투랄데의 음악에 빠져들 수 있는 음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4년 편곡 버전(음반 수록 작품) 세계 최초 녹음**



8.573458

리스트 피아노 작품 42집: 두 개의 파가니니 연습곡

고란 필리펙(피아노)

두 개의 파가니니 연습곡(S.140, S.141)을 비교 감상해 볼 수 있는 음반

크로아티아 출신 피아니스트 고란 필리펙은 2011년 이탈리아 파르마 리스트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에 입상했다. '파가니니 초절기교 연습곡(S.140)'과 '파가니니 대연습곡(S.141)'이 모두 수록된 본 음반에서 고란 필리펙은 콩쿠르에서 검증받은 리스트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면모와 가능성을 한껏 보여주고 있다. 음반 초반부에서 그의 연주는 다소 건조하게 느껴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정확하고 자신감 넘치는 터치와 또렷한 울림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매우 인상적인 연주로 귀결된다.

8.573466
쇼스타코비치, 3개의 실내교향곡
키에프 솔로이스츠(연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지휘)

유장한 흐름과 장중한 반향 속에 투영된 쇼스타코비치의 자화상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사중주는 내면의 자화상에 투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쇼스타코비치 생전에 그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인 루돌프 바르샤이는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현악 사중주 중 다섯 작품을 관현악 작품으로 편곡했다.(실내교향곡) 본 음반에는 그 중 세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야블론스키가 지휘하는 키에프 솔로이스츠는 관현악 편곡에서 느낄 수 있는 유장한 흐름과 장중한 반향 속에서 작품 속에 투영된 쇼스타코비치의 내면을 인상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감상과 소장을 권할만한 연주이다.

8.573471
메시앙의 초기 오르간 작품들
톰 윈페니(오르간)

메시앙 작곡 여정의 출발점을 보여 주는 음반
새소리에 대한 탐구로 잘 알려져 있는 올리비에 메시앙의 작곡 여정은 오르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그가 작곡가로서의 길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드뷔시의 작품이었다. 그의 초기 오르간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비도르, 비에른, 뒤프레로 이어지는 프랑스 심포닉 오르간 계보 속에서 메시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메시앙의 초기 오르간 작품에 나타나는 색감과 명징한 음향의 연원을 짐작케 한다. 에든버러의 명소인 세인트 자일스 성당의 오르간 음색을 들어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8.573537
스트라빈스키 : 병사의 이야기 (전곡, 영어버전)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첼버 플레이어즈(연주), 조앤 팔레타(지휘) 외

영어버전으로 만나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극, 《병사의 이야기》
1차 세계대전은 스트라빈스키 음악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다. 본 음반에 수록된 《병사의 이야기》는 분기점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음악극'이라는 파격적인 형식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인성에 대한 성찰)가 주는 의의는 오늘날에도 퇴색되지 않는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지휘자 조앤 팔레타가 이끄는 버지니아 아츠 페스티벌 첼버 플레이어즈의 연주는 공간감을 살린 녹음과 함께 배우들의 대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어 버전에서도 원곡(프랑스어 버전) 못지않은 묘미를 느낄 수 있다.

8.573668
20세기 영국의 하프시코드 작품들
크리스토퍼 D. 루이스(하프시코드)

영국의 하프시코드 전통에 대한 경의와 재해석
오늘날 하프시코드를 위한 작품은 언뜻 명맥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프시코드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D. 루이스는 20세기 프랑스의 하프시코드 작품을 수록한 전작에 이어 20세기 영국 작곡가들의 하프시코드 작품들을 녹음했다. 레녹스 버클리에서부터 존 제프리스에 이르는 작품들은 영국의 하프시코드 전통에 대한 경의와 재해석을 담고 있다. 허버트 하웰스가 그의 저명한 친구들을 모델로 작곡한 '하웰스의 클라비코드'는 본 음반에서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OUR Recordings Our Recordings

www.ourrecordings.com

6.220615
천사들이 노래하다: 크리스마스 캐럴과 노래들
미칼라 페트리(리코더), 덴마크 국립 보컬 앙상블, 미카엘 보예센(편곡/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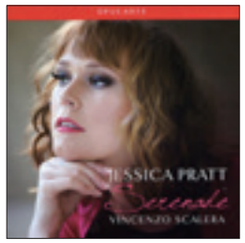
리코더의 순박하면서도 밝고 경쾌한 음색이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마스 합창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탄생한 열일곱 곡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노래들을 수록했다. 이 음반의 특징은 이 노래들을 리코더와 합창을 위해 새롭게 편곡했다는 데 있다. 리코더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악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악기로, 수록곡들 간의 수백 년의 차이에도 모두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또한 리코더의 순박하면서도 밝고 경쾌한 음색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매우 잘 어울린다. 여기에는 미카엘 보예센의 뛰어난 편곡과 모든 음악에서 탁월한 해석력을 보여주는 리코디스트 미칼라 페트리의 연주가 그 중심에 있다.

OPUS ARTE Opus Arte

www.opusarte.com

OA CD9032
영국 가곡집
벤 존슨(테너), 제임스 베일리외(피아노)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지는 영국 국민주의 작곡가의 영어 가곡 21곡
벤 존슨은 2008년에 캐슬린 페리어 상, 2013년 BBC 콩쿠르에서 관객상 등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진 테너이다. 〈사랑의 인사〉로 유명한 엘가의 〈애원〉과 오페레타로 유명한 설리번의 〈잃어버린 화음〉, 영국 국민주의를 대표하는 스탠포드의 〈부드러운 날〉, 본 윌리엄스의 〈류트를 들고 있는 오르페우스〉 등이 수록되어있다. 대부분 영국 국민주의 작곡가의 영어 가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토속적이면서 간단한 노래부터 엘가와 같이 짙은 낭만적인 곡, 그리고 설리번과 같이 극적 표현력이 풍부한 곡까지 다양한 노래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다.



OA CD9038
세레나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낭만 가곡집
제시카 프라트(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빈첸초 스칼레라(피아노)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벨칸토 가수가 부르는 화려한 낭만 가곡
"빛나는 사운드, 자유롭고 편한 고음, 민첩한 콜로라투라의 흐름, 그리고 서정적인 우아함" 뉴욕타임즈로부터 격찬을 받은 제시카 프라트는 2013년 '라 시올라 도로' 수상자로,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벨칸토 가수 중 한 사람이다. 이 음반은 낭만시대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가곡을 수록했다. 특히 마스네, 구노,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등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들의 가곡이어서 오페라적인 극적 표현이 풍부하며, 벨칸토 아리아와 같은 고음의 화려한 기교가 많다. 이 음반에서 들을 수 있는 프라트의 음성은 앞의 격찬을 충분히 증명한다.

OA CD9039
레스피기: 네 개의 토스카나의 시, 숲의 신명, 리스트: 세 개의 페트라르카 소네트
로사 페올라(소프라노), 이아인 번사이드(피아노)

들을 기회가 적은 리스트의 〈순례의 해: 이탈리아〉의 원곡과 레스피기의 가곡
로사 페올라는 2010년 플라치도 도밍고 국제 오페라 콩쿠르에서 관객상과 사라수엘라상을 받은 실력파 젊은 소프라노이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들을 기회가 적은 리스트와 레스피기의 가곡을 불렀다. 〈로마의 소나무〉에서 찬란한 음색을 들려준 레스피기의 〈네 개의 토스카나의 시〉는 차분지만 독특한 화음으로 화사하게 빛나는 노래이며, 〈숲의 신명〉은 목신의 이야기로서 극적인 표현이 뛰어나다. 리스트의 〈세 개의 페트라르카 소네트〉는 〈순례의 해: 이탈리아〉의 원곡으로, 페올라는 화려하고 극적인 음성으로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연출한다.

Orlando Records

www.orlando-records.com

or 0021
에스테르하지 궁전의 '유행가'(Gassenhauer at Esterhazy Palace)
안톤 홀차펠(오르간)

에스테르하지 가문에 의한, 에스테르하지 가문을 위한 음악
'가센하우어'(Gassenhauer)는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 중 한 곡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연애의 대가가 부르는 길거리 노래를 뜻하는 말로 오늘날에는 유행가를 뜻한다. 이 음반은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부터 베토벤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곡가들이 실내용 오르간을 위해 쓴 소품들을 수록하고 있다(일부 곡은 원래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사서였던 니메츠가 발명한 피리시계를 위해 작곡된 것이다). 연주에 사용된 오르간은 이들 작곡가들이 활동하던 시대 유럽 최대의 음악 후원자였던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궁정 안에 보존되고 있는 그 오르간이다.

or 0018
파가니니, 파야, 피아졸라, 줄리아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
다니엘 라울랜드(바이올린), 알베르토 메시르카(기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들
바이올리니스트 라울랜드는 런던 왕립음악원 교수이자 저명한 브로드스키 사중주단의 제1바이올린을 맡고 있으며, 기타리스트 메시르카는 두 차례에 걸쳐 영예로운 '황금 기타' 상을 수상했으며 카스텔프랑코 베네토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두 정상의 음악가들이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파가니니의 〈칸타빌레〉와 소나타들,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기타 음악의 보고인 줄리아니의 〈그랑 두오 콘체르탄테〉, 스페인의 향기가 짙은 파야의 〈일곱 개의 유명한 스페인 노래〉 등을 연주했다.

or 0023 **[추천음반]**
아코드: 첼로와 아코디언의 만남
아나 토팔로비치(첼로), 니콜라 조리치(아코디언)

첼로와 아코디언이 선사하는 뜻밖의 매력
첼로와 아코디언의 만남은 언뜻 클래식 음악에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을 듣고 난 후에는 이 같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 퍼셀과 바흐에서부터 피아졸라에 이르는 레퍼토리의 폭은 물론이고 첼로는 인간의 목소리를, 아코디언은 오르간과 피아노의 음색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두 악기의 만남은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차이코프스키의 《에프게니 오네긴》 중 '렌스키의 아리아(13번 트랙)'에서 이 같은 매력은 절정을 이룬다. 뜻밖의 만남이 보여줄 다음 여정이 기대되는 음반이다.

paladino music Paladino

www.paladino.at

pmr 0011 **[2 FOR 1.5]**
베토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
마르틴 루멜(첼로), 게르다 구텐베르크(피아노)

베토벤의 강인한 정신이 느껴지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듀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첼리스트 마르틴 루멜은 바흐와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고전음악 음반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베토벤의 다섯 곡의 첼로 소나타와 세 곡의 변주곡 등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곡을 수록한 이 음반은 루멜의 뛰어난 음악성과 해석력을 보여준다. 다양한 활쓰임을 통해 각 부분의 성격을 뚜렷하게 표현하며, 남성적인 음색으로 베토벤의 강인한 정신까지 전달한다. 구텐베르크는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 음대의 교수로, 고전음악에 탁월한 연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여러 거장들을 반주해온 전문 반주자이다.

pmr 0040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1, 22, 23, 32번
마리아 바더-쿠비체크(레오폴트의 바이올린), 리차드 풀러(18세기 포르테피아노)

모차르트가 직접 들었을 아버지의 악기로 듣는 매우 특별한 경험
빈 소재의 예술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동시대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를 직접 연주한 의미가 큰 음반이다. 레오폴트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선생으로서, 아들인 볼프강은 이 악기의 연주를 직접 들었을 것이다. 그 악기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바더-쿠비체크는 시대악기연주에 정통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아르농쿠르가 이끄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에서 연주하기도 한다. 풀러는 엠마 커크비를 반주하고 빈 포르테피아노 트리오를 설립하는 등 고전음악 분야에서 두드러진 연주자이다.

pmr 0061
하프와 피아노를 위한 고전작품들
프락세디스 후그-뤼티(하프), 프락세디스 주니비에브 후그(피아노)

롤라, 뵐플, 말라카르네, 보엘디외 등 하프와 피아노를 위한 희귀한 고전작품들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오 프락세디스'는 하프와 피아노라는 악기 조합뿐만 아니라 모녀지간의 이중주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독특한 악기 조합을 위해 편곡을 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음반은 본래 하프와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작품들을 수록하여 이 앙상블의 진수를 들려준다. 파가니니의 스승으로 유명한 롤라의 〈안단티노 콘 바리아치오니〉는 두 악기의 애정 어린 대화와 수준 높은 기교가 잘 어우러져 있으며, 모차르트의 제자이자 베토벤과 라이벌이었던 뵐플의 〈그랑 두오〉는 큰 스케일을 가진 대곡이다.

pmr 0057
페드리니 :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낸시 윌슨(바이올린), 조이스 린도프르(하프시코드)

유일하게 알려진 페드리니의 작품
예수회 선교사였던 페드리니는 중국 청나라 강희제 재위 시절(1711년) 이래 건륭제 재위시절 그가 사망하기까지(1746년) 약 35년간 중국 북경에 머물렀다. 그는 강희제의 명을 받아 후에 옹정제가 될 옹친왕(雍親王)에게 서학(西學)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음악가로도 활동했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12개의 바이올린 소나타(op.3)'는 현재 유일하게 알려진 그의 작품으로서(악보원본은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영향을 보여준다. 린도르프는 본 작품에 관심을 기울인지 24년 만에 음반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PRO MUSICA Pro Mus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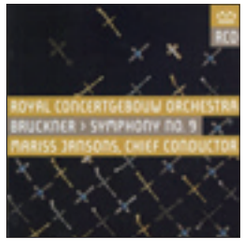
www.grappa.no

PPC 9024
'이 달콤한 크리스마스에'
보딜 아르네센(소프라노) 외, 악티무스(연주), 하랄 비에르크(지휘)

순박하고 고즈넉한 북반구의 겨울 풍경 속에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노르웨이의 작곡가 아르네 닥스뷔크의 '이 달콤한 크리스마스에'와 더불어 그가 편곡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수록된 음반. 전반부에는 바흐, 막스 레거, 시벨리우스의 크리스마스 캐롤도 더불어 수록되어 있다. 순박하고 고즈넉한 북반구의 겨울 풍경 속에 흐르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정겹기만 하다. 아르네 닥스뷔크가 편곡한 노르웨이의 전통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채로움을 더한다. 특히, '이 달콤한 크리스마스에'에서 하랄 비에르크가 지휘하는 악티무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려 보기에 충분한 연주를 보여준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www.rcoliv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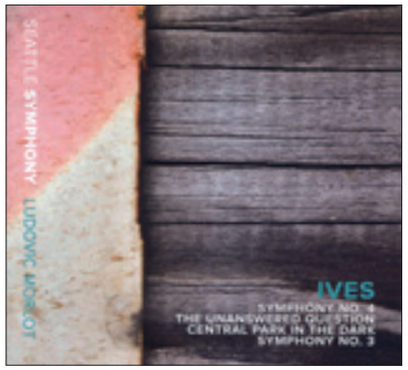


RCO 16001
브루크너 : 교향곡 9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지휘)
칸타빌레적인 해석이 돋보이는 얀손스의 브루크너 9번 실황
2014년 3월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공연 실황. 브루크너가 9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향곡 9번'은 작곡가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며, 좋은 녹음을 찾기가 유난히 어려운 곡이기도 하다. 얀손스는 웅대한 스케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도 밸런스를 고르게 설정해 어느 성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다루며, 특히 콘세르트허바우 현의 부드러운 소릿결을 십분 활용해 유려하고 넉넉한 흐름을 이끌어낸다. 각별히 정성스러운 연주로 칸타빌레적인 느낌을 잘 살려낸 아다지오 악장은 특히 돋보인다.

RCO 15008
야나체크: 믈라디, 마르티누: 6중주, 베레슈: 소나티나, 풀렝크: 6중주
로얄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목관 단원, 예룬 발(피아노)
세계 최고의 관현악단 RCO의 목관 단원들이 연주한 독특한 목관 작품
세계 최고의 관현악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RCO의 목관 단원들이 독특한 목관 작품을 연주했다. 체코 작곡가 야나체크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쓴 〈믈라디〉는 민속리듬을 기반으로 밝고 경쾌하여 그의 괴짜 같은 매력이 더욱 드러난다. 역시 체코 출신인 마르티누의 〈6중주〉는 세련되고 중후한 멋이 있으면서도 민속적인 경쾌함이 바탕에 있다. 베레슈는 버르토크 이후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소나티나〉는 민속적인 운동성과 현대적인 표현이 결합되어 있다. 프랑스 6인조의 일원인 풀렝크의 〈6중주〉는 살롱음악 풍의 경쾌함과 나른함이 인상적이다.

Seattle Symphony Media

www.seattlesymphony.org



SSM1009
아이브스 : 교향곡 3 · 4번, 대답 없는 질문, 어둠 속 센트럴 파크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루도빅 모를로(지휘) 외
아이브스의 대표작과 루도빅 모를로의 만남
뒤티외와 존 아담스의 작품을 통해 평단의 호평을 받은 루도빅 모를로가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이브스의 작품을 녹음했다. 본 음반에는 아이브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대답 없는 질문', '어둠 속 센트럴 파크', '교향곡 3 · 4번'이 수록되어 있다. 너른 공간감, 광택 넘치는 색채감, 파국의 이미지 속에서도 또렷이 살아있는 각 파트의 연주와 더불어 명쾌하고 자연스런 흐름이 압권이다. 아이브스 교향곡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두루 느껴볼 수 있는 매력적인 음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Rondeau

www.rondeau.de

ROP6085/86 [2 FOR 1.5]
바흐 : 오르간 독주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 (1–6번) BWV 525–530
울리히 뵈메(오르간)
작품의 성격에 맞는 오르간의 선택과 연주가 돋보이는 음반
성 토미스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서 봉직하고 있는 울리히 뵈메가 본 음반의 녹음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각별하다. 그는 1730년 바흐 자필 악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오르간의 매력을 집약해 놓은 본 작품에 적합한 음향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오르간을 선정했다. 연주와 음색 모두 작품이 갖고 있는 뚜렷한 색채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는 사뭇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북클릿과 음반을 통해 독일 중부 지역 소재 유명 오르간들의 음색을 보고 듣는 것은 본 음반의 또 다른 매력이다.

ROP6102
삶과 죽음의 노래
트리스탄 마이스터(지휘), 앙상블 보케펠라 림부르크(연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작곡가가 대했던 삶과 죽음의 문제
1집 'In der Ferne(먼 곳에)'에 이은 앙상블 보케펠라 림부르크의 두 번째 음반. 이번 음반에서는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다루었다. 음악을 통해 삶과 죽음에 접근하는 것은 작곡가 역시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대하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무게감을 깊이 느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음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슈베르트의 작품들, 그중에서도 '물 위의 정령의 노래'에서 앙상블 보케펠라 림부르크의 묵직하면서도 간결한 음색은 깊은 사색으로 이끈다.

ROP612122
드레스덴 궁정의 수난곡
카펠라 자기타리아나 드레스덴(연주), 노르베르트 슈스터(지휘)
카펠라 자기타리아나가 연주하는 페란다의 마가 수난곡
하인리히 쉬츠는 드레스덴 궁정에서 봉직할 당시 3개의 수난곡(마태 · 요한 · 누가 수난곡)을 작곡했다. '마가 수난곡'이 빠진 이유는 작품을 위촉받았을 당시 그는 일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백조의 노래(SWV 482–494)'를 작곡 중이었던 터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쉬츠는 드레스덴 궁정의 부 카펠마이스터였던 페란다에게 '마가 수난곡'의 작곡을 넘겼다. 슈스터는 쉬츠를 비롯해 동시대 드레스덴 궁정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페란다의 '마가 수난곡'을 보완하고 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반향에 빠져드는 음반이다.

Simax

www.simax.no

PSC1336
마리타 솔베르크가 부르는 오페라 아리아
마리타 솔베르크(소프라노), 노르웨이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연주), 존 피오레(지휘)
마리타 솔베르크의 첫 번째 솔로 음반!
마리타 솔베르크.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2006년 발트뷔네 콘서트를 통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본 음반은 그녀의 첫 번째 솔로 음반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4번 트랙)'와 드보르작의 《루살카》 중 '달에 부치는 노래(12번 트랙)'에서는 그녀의 청아한 음성을 한껏 느껴볼 수 있다. 존 피오레가 지휘하는 노르웨이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밝은 색채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돋보인다.

Sinfonieorchester Basel
www.sinfonieorchesterbasel.ch

SOB10

스트라빈스키 : 불새(관현악 버전 +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버전)

마키 나메카와(피아노), 바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지휘, 피아노)

'불새'의 관현악 · 피아노 버전이 모두 수록된 음반

필립 글래스를 비롯해 다양한 현대 음악을 레퍼토리로 삼고 있는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의 신보. 스트라빈스키의 '불새'가 수록된 본 음반에서는 전작인 '봄의 제전'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관현악 버전,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버전을 두루 감상해 볼 수 있다. 마키 나메카와는 전작에 이어 러셀 데이비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피아노 버전의 섬세한 연주는 관현악 버전에서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선율미를 드러낸다. 관현악 버전에서는 산뜻한 중저음과 색채감이 인상적이다. '피날레'는 봄볕을 머금고 흩날리는 벚꽃을 떠오르게 한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234

내가 사랑하는 트럼펫 협주곡들

요제프 호프바우어(트럼펫), 쇤부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연주), 귀도 만쿠시(지휘)

폭 넓은 레퍼토리에 담긴 음악 여정

본 음반에서 오스트리아 출신 트럼페터 요제프 호프바우어는 쇤부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의 지난 음악 여정을 되돌아본다. 토렐리에서부터 아루티우니안에 이르는 폭 넓은 레퍼토리 안에는 그의 음악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드러움과 온기를 갖춘 그의 연주는 휘황찬란한 윤기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트럼펫 특유의 낭만적인 서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만쿠시가 지휘하는 쇤부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담백하고 경쾌한 연주는 토렐리, 네루다, 하이든의 작품에서 호프바우어와 인상적인 앙상블을 보여준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044

스타인웨이 스피리오가 재현하는 유리케인 · 제니 린의 연주

유리 케인 · 제니 린(피아노)

'스타인웨이 스피리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음반

2015년 스타인웨이가 출시한 '스피리오(Spirio)' 모델은 연주자의 미세한 뉘앙스까지 재현할 수 있다는 자동 연주 피아노이다. '스타인웨이 스피리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본 음반에 유리 케인과 재니 린이 참여했다. 다른 음반과 차별되는 본 음반의 특징은 녹음 방식에 있다. 제니 린이 녹음용 피아노를 이용해 녹음한 소스를 '스피리오'로 재생하고, 유리 케인을 여기에 맞춰 녹음용 피아노로 즉흥 연주를 녹음한다.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스피리오'로 재생되는 두 사람의 녹음을 음반에 담았다. 기대 이상의 정교함에 감탄하게 된다.

30045

클라라 민이 연주하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작품

클라라 민(피아노)

투명한 색채와 맑은 울림이 인상적인 연주

베를린과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클라라 민(민유경)의 신보이다. 2013년 쇼팽의 마주르카에 이어 본 음반에서는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작품을 녹음했다. 미묘하고, 섬세한 음색, 풍부한 표현력으로 정평이 난 그녀의 터치는 스크리아빈의 작품에서도 여전하다. 투명한 색채와 맑은 울림이 인상적인 '전주곡 1번과 7번(7번 & 13번 트랙)'은 겨울을 보듬으며 내리는 봄비를 연상시킨다. '전주곡 후반부(특히, 18번 & 29번 트랙)'와 '연습곡 2-1번(34번 트랙)'에서 보여주는 깔끔한 페달링과 터치는 조아한 느낌을 준다.

Tactus
www.tactus.it

TC672259

비발디: 현을 위한 협주곡과 교향곡

라르키첼발로

시대악기의 고풍스러운 사운드와 비발디의 드라마틱한 표현이 돋보이는 연주

비발디는 수백 곡의 협주곡을 작곡하여 오늘날 협주곡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약 20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여 한 세대 후에 교향곡이 꽃필 고전시대를 준비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고음악 앙상블인 라르키첼발로는 이러한 비발디의 협주곡과 교향곡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음반을 내놓았다. 독주와 합주가 돌아가며 연주한다는 의미의 '리토르넬로' 형식을 도입한 협주곡들과 모두 함께 연주한다는 의미의 교향곡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라르키첼발로는 시대악기의 고풍스러운 사운드와 비발디의 드라마틱한 표현이 돋보이는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318

데이비드 매튜스: 현악사중주 전곡 4집

크로이처 사중주단(연주)

베토벤과 그의 현악사중주에 대한 데이비드 매튜스의 헌사

데이비드 매튜스가 회고하듯 16살 때 만났던 베토벤 '합창'은 그를 작곡가의 길로 이끌었으며, 20대에 접했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는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본 음반에는 데이비드 매튜스의 베토벤과 그의 현악사중주에 대한 헌사가 담겨 있다.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을 현악사중주로 편곡했거나 그의 작품을 주제로 인용해 작곡한 현악사중주(매튜스, 현악사중주 11번)이다. 매튜스의 현악사중주 전곡을 녹음하고 있는 크로이처사중주단의 연주는 베토벤의 현악사중주를 떠올릴 정도로 작품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다.

Accentus DVD

www.accentus.com

Accentus 20345 [DVD]
Accentus 10345 [Blu-ray]

베토벤/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니콜라이 즈나이더(바이올린 협주곡),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리카르도 샤이(지휘)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와 거장 지휘자가 만나 이뤄낸 멋진 결실

2012년 9월(멘델스존)과 2014년 10월(베토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공연 실황. 1975년생으로 덴마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라이 즈나이더는 1992년에 카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97년에는 퀸 엘리자베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 영상물에서 즈나이더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청명한 음색으로 칸타빌레를 충분히 살려 연주하며, 일부 대목에서는 약간 가필도 더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샤이는 충실하면서도 중후한 반주로 즈나이더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보조자료]

– 2012년 9월(멘델스존)과 2014년 10월(베토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공연 실황. 1975년생으로 덴마크 출신 유대계 바이올리니스트인 니콜라이 즈나이더는 16세인 1992년에 제4회 카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997년에는 대망의 퀸 엘리자베트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친 바 있다.

–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중견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즈나이더는 이 영상물에서 북구의 풍광을 연상케 하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청명한 음색으로 칸타빌레를 충분히 살려 연주하며, 베토벤 협주곡 2악장 등 일부 대목에서 가필한 버전으로 연주하는 등 치열한 탐구심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샤이는 정감 있으면서도 중후함이 돋보이는 반주로 즈나이더를 충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수록곡]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바흐: 파르티타 1번 중 '사라방드', 파르티타 2번 중 '사라방드'

Arthaus

www.arthaus-musik.com

Arthaus 109178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베르디: 레퀴엠

프라이스(소프라노), 노먼(메조소프라노), 카레라스(테너), 라이몬디(베이스), 아바도(지휘)

최고의 성악진과 젊은 시절의 아바도가 만나 탄생한 명연

1982년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공연 실황. 마가렛 프라이스와 제시 노먼, 호세 카레라스, 루제로 라이몬디…. 모든 독창진이 이제는 다시 모으기 어려울 수준의 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이들을 이끄는 아바도는 작품의 오페라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안에 깃든 인간적인 감성 역시 가슴 깊이 전달하고 있다. 젊은 시절 아바도의 원기 왕성한 모습만으로도 새삼 감동적인 영상물. 아날로그 오디오 원음을 그대로 보전하는 '하이레스'(Hi-Res) 오디오 기술 특유의 고품격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보조자료]

– 1982년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공연 실황. 소프라노에 마가렛 프라이스, 메조소프라노 제시 노먼, 테너에 호세 카레라스, 베이스에 루제로 라이몬디라는 캐스팅은 당시로서도 초호화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엄두도 못 낼 수준이다. 아바도는 각자 최고의 기량과 뚜렷한 개성을 지닌 네 성악가들을 훌륭하게 통솔하면서 작품 특유의 오페라적인 성격을 주의 깊게 드러내며, 동시에 그 안에 깃든 인간적인 탄원과 간구의 느낌을 살려내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아바도가 떠나고 없는 지금, 그의 젊은 시절 원기왕성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새삼 감동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Arthaus 109179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티펫: 프리아모스 왕

매컨(베이스), 워커(소프라노), 켄트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노링턴(지휘)

현대적인 분위기로 각색한 발레의 영원한 고전

1985년에 촬영한 영상물. 지금까지 베를리오즈 등 '일리아드'에서 소재를 따 오페라를 쓴 작곡가는 더러 있었지만, 트로이의 늙은 왕 프리아모스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없었다. 현대 영국 음악계의 최대 거물인 마이클 티펫은 3년에 걸쳐 대본과 음악 모두를 직접 쓴 '프리아모스 왕'에서 지극히 금욕적인 관현악법과 엄격한 서법을 보여주며, 동정심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가혹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아날로그 오디오 원음을 그대로 보전하는 '하이레스'(Hi-Res) 오디오 기술 특유의 고품격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보조자료]

– 1985년에 촬영한 영상물이다. 지금까지 베를리오즈의 대작 '트로이 사람들'처럼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 소재를 따 오페라를 쓴 작곡가는 더러 있었지만, 파리스와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통치자인 늙은 왕 프리아모스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없었다. 현대 영국 음악계의 최대 거물로 군림하고 있는 마이클 티펫은 1958~61년에 걸쳐 '프리아모스 왕'의 대본과 음악 모두를 직접 썼다. 이 오페라는 프리아모스가 파리스를 내다버리는 장면부터 트로이의 함락과 프리아모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일리아드'의 거의 전체를 포괄한다. 이 오페라에서 티펫은 자신의 이전 스타일과 결별하고 지극히 금욕적인 관현악법과 엄격한 서법을 보여주며, 악기의 음색과 리듬이 각 등장인물을 상징하게끔 하고 있다. 그는 몇 가지 기억할 장면을 통해 동정심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가혹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의 평소 믿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Arthaus 109180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모차르트: 레퀴엠 K.626

애디트 마티스(소프라노), 페터 슈라이어(테너), 콜린 데이비스(지휘)

모차르트의 마지막 걸작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화려하게 재현

모차르트가 남긴 미완의 대작 '레퀴엠'은 1984년 전 세계를 모차르트의 열기 속으로 빠뜨렸던 밀로스 포만 감독의 명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우리에게 한층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다. 외모에서부터 모차르트를 빼어 닮은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마에스트로 콜린데이비스 경(卿)이 이 위대한 걸작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펼쳐나간다. 이 영상물은 콜린 데이비스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했을 당시인 1984년의 기록으로 동(同)악단의 본거지인 뮌헨 Herkulessaal에서의 실황을 담았다. 당당한 스케일과 더불어 온화한 기운을 함께 머금은 콜린 데이비스의 전통적인 해석이 일품이며, 에디트 마티스와 페터 슈라이어라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남녀 리트가수의 미성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 역시 놓칠 수 없는 매력거리다. 영국의 대표적인 베이스가수 귄하웰와 카라얀의 교황집전미사 실황으로 낯익은 독일의 실력파 알토 트루델리제 슈미트가 나머지 두 솔로파트를 담당하였다.

Arthaus 109182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베를리오즈: 파우스트의 겁벌

안네 소피 폰 오터(마거리트), 키스 루이스 (파우스트), 솔티(지휘)

오페라에 준하는 일대 서사시 〈파우스트의 겁벌〉의 결정판

괴테의 대작〈파우스트〉를 오페라로 작곡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본바닥의 독일 작곡가들은 자국 문화계의 비평에 미리 겁먹어 아예 기권해 버렸고, 프랑스 작곡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베를리오즈가 그 첫 주자였으나 심혈을 기울인 〈파우스트의 겁벌〉을 현명하게도 오페라라 칭하지 않고 '극적 전설'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1846년 자신이 지휘한 초연당시에도 무대극이 아니라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무대상연 형식의 초연은 작곡가 사후인 1893년 몬테카를로에서 이루어졌다. 전체4부 구성이며 괴테 원작의 제1부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 거대한 작품은 콘서트 공연과 무대 공연이 병존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대 상연을 강요하지 않았으므로 콘서트 형식으로 했을때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 전설적 실황이 게오르그 솔티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테너 케네스 루이스(파우스트),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마르그리트), 베이스 호세 반 담(메피스토펠레)과 공연한 것이다. 특히 베를리오즈는 이 작품의 시작을 헝가리로 옮겨놓았는데, 바로 솔티가 헝가리 출신인지라 한층 더 치열하게 몰입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Arthaus 109181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마이어베어: 아프리카의 여인

플라시도 도밍고(테너), 셜리 베렛(소프라노), 마우리치오 아레나(지휘)

도밍고의 열연이 돋보이는 마이어베어의 최고 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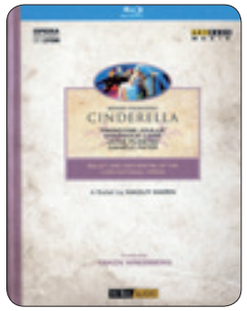
1988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 공연 실황. '아프리카의 여인'은 마이어베어가 대본작가 외젠 스크리브와 더불어 1837년부터 기획했던 작품으로, 실제 완성한 것은 작곡가가 죽기 직전인 1864년의 일이었다. 희망봉을 발견한 실존 인물 바스코 다 가마를 주인공으로 하는 가공의 줄거리를 지닌 이 오페라는 자연스럽고 명료한 서법을 보여주며 마이어베어의 최고 걸작으로 일컬어진다. 냉철한 탐험가이자 격정적인 연인인 바스코 다 가마 역을 빼어나게 소화한 도밍고가 특히 돋보인다. '하이레스'(Hi-Res) 오디오 특유의 고품격 음질도 즐길 수 있다.

[보조자료]

– 1988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 공연 실황. 전체 5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연 시간이 3시간을 넘는 대작 '아프리카의 여인'은 마이어베어가 당대 제일의 대본작가 외젠 스크리브와 더불어 1837년부터 기획했던 작품으로, 실제 완성한 것은 작곡가가 죽기 직전인 1864년 4월의 일이었다. 마이어베어는 같은 달에 이 곡의 초연 당시 리허설을 지휘하다 쓰러져 죽었다.

– 마이어베어의 오페라는 흔히 화려하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러한 평가가 그의 모든 작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고 명료한 서법을 보여주는 이 오페라는 마이어베어의 최고 걸작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 이 오페라는 희망봉을 발견한 실존 인물 바스코 다 가마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미지의 왕국 왕녀(셀리카)가 여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가공의 줄거리를 지닌 작품이다. 냉철한 탐험가이자 격정적인 연인인 바스코 다 가마 역을 빼어나게 소화한 도밍고가 특히 돋보이며, 그를 사랑하지만 결국 놓아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셀리카 역의 셜리 베렛 역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다.



Arthaus 109183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프로코피에프: 발레 〈신데렐라〉

리용 국립 오페라 발레단/ 야코프 크라이츠베르크/ 리용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어린 시절의 인형놀이를 추억하게 만드는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신데렐라〉

샤를 페로의 유명한 동명 동화를 토대로 완성한 3막의 발레인 〈신데렐라〉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더불어 프로코피에프를 대표하는 양대 발레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2차 대전 중에 완성되어 종전 직후인 1945년 11월에 볼쇼이극장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스토리에 작곡가 특유의 화려하고도 섬세한 음악이 더해짐으로써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탈을 이용한 인형극의 형태로 이 발레를 재창조하였던 마기 마랭의 프로덕션을 담고 있다. 1985년 리용 오페라 발레단을 위해 처음 만들어졌던 이 프로덕션은 탈을 뒤집어쓴 무용수들의 춤사위를 통해 자연스레 어린 시절의 인형놀이를 추억하게끔 만드는데, 그와 더불어 그로테스크한 모양새의 탈들이 만들어내는 묘한 공포감이 공존한다. 1989년 리용 오페라 발레단이 영상물 제작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공연한 버전이 수록되었다. 얼마 전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야코프 크라이츠베르크가 지휘를 맡았다.

Arthaus 109184 [Blu-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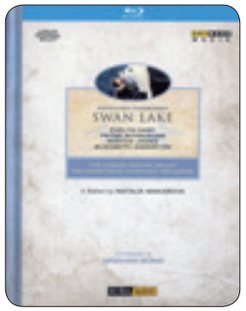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푸치니: 라 보엠

미렐라 프레니(미미)/ 파바로티(루돌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1988

파바로티와 프레니가 커플을 이룬 바로 그 〈라보엠〉의 유일한 실황!

1935년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나란히 태어난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미렐라 프레니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스승도 같은 사람이며 오페라 무대에도 자주 같이 섰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파리의 가난한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푸치니의 〈라보엠〉이다. '그대의 찬 손', '내 이름은 미미'등 주옥같은 아리아는 물론 3막에서 로돌포와 미미가 헤어지는 장면, 4막의 미미의 죽음은 모든 이의 콧등을 시큰하게 만든다. 파바로티와 프레니가 노래한 〈라보엠〉 녹음은 카라얀이 지휘한 전설적인 데카 녹음부터 해적판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정규 영상물로는 198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연된 본 자료가 유일하다. 파바로티와 프레니가 아직 오십대 초반으로 전성기 기량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높은 공연을 이끌어내고 있다. 마르첼로 역에 지노 퀼리코, 콜리네 역에는 프레니의 두 번째 남편 니콜라이 갸우로프가 가세한 최강의 출연진이다. 지금도 가장 활발한 여류 오페라 연출가로 맹활약 중인 프란체스카 잠벨로가 연출한 프로덕션이다. 부디 오페라 영상자료의 진정한 고전을 놓치지 마시라.



Arthaus 109185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

하트(오데트), 샤우푸스(지그프리드), 런던 페스티벌 발레단 외, 본드(지휘)

마카로바의 안무로 새롭게 탄생한 '백조의 호수'

1988년에 촬영한 영상물. 나탈리아 마카로바는 한때 러시아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였으며, 안무가로 변신한 뒤에도 지극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런던 페스티벌 발레단과 함께한 이 '백조의 호수'는 그녀가 1988년에 새로 짜낸 안무에 기초한 것으로, 드라마적인 요소를 강화하면서 한층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주역을 맡은 이블린 하트와 페터 샤우푸스는 이 새로운 안무를 대단한 기량으로 소화해냈다. 아날로그 오디오 원음을 그대로 보전하는 '하이레스'(Hi-Res) 오디오 기술 특유의 고품격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보조자료]

– 1988년에 촬영한 영상물이다. 1940년 생인 나탈리아 마카로바는 한때 러시아 최고의 프리마 발레리나였으며, 그녀의 무용은 "예술성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으며, 같은 세대에 속하는 전 세계 발레리나 가운데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안무가로 변신한 뒤에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독창적인 안무를 만들어내 호평을 받고 있으며, 런던 페스티벌 발레단과 함께한 이 '백조의 호수'는 그녀가 1988년에 부분적으로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에 기초해 새로 짜낸 안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여기서 마카로바는 드라마적인 요소를 강화하면서 한층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일체화된 안무를 보여준다. 주역을 맡은 이블린 하트와 덴마크 발레계의 왕자 페터 샤우푸스는 이 새로운 안무를 대단한 기량으로 소화해냈다. 그레이엄 본드가 지휘하는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은 뛰어난 적응성을 보이면서 이들을 빈틈없이 뒷받침해내고 있다.

Arthaus 109186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들리브: 코펠리아

보야잔(코펠리우스), 브라운(코펠리아), 리옹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나가노(지휘)

현대적인 분위기로 각색한 발레의 영원한 고전

1994년 리옹 국립 오페라 극장 공연 실황. 프랑스 현대무용계에서 뛰어난 안무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마기 마랭은 의상 및 무대 팀과 협업하여 현대적인 맥락의 안무를 선보이며, 코펠리아 역의 마리아 브라운 이하 모든 무용수들은 빼어난 연기로써 이를 잘 살려냈다. 당시 리옹 오페라단의 수장으로 갓 부임한 상태였던 나가노 역시 노련하고 생생한 지휘를 보여준다. 아날로그 오디오 원음을 그대로 보전하는 '하이레스'(Hi-Res) 오디오 기술 특유의 고품격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보조자료]

– 1988년 리옹 국립 오페라 극장 공연 실황. E.T.A. 호프만의 환상소설에서 착상을 얻어 자유롭게 개작한 작품이다(줄거리가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의 한 에피소드와 비슷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프란츠는 코펠리아라는 여자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자동인형이다. 코펠리아를 만들어낸 코펠리우스는 프란츠의 생명을 빼내 자신의 인형에 옮기려 하지만, 이를 알아챈 프란츠의 연인 스바닐다의 활약으로 프란츠는 살아나고 스바닐다와 결혼한다.

– 프랑스 현대무용계에서 뛰어난 안무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마기 마랭은 의상 및 무대 팀과 협업하여 현대적인 맥락의 안무를 선보이며, 코펠리아 역의 마리아 브라운과 스바닐다 역의 프랑수아즈 줄리, 프란츠 역의 요수 자발라 등 모든 무용수들은 빼어난 연기로써 이를 잘 살려냈다. 당시 리옹 오페라단의 수장으로 갓 부임한 상태였던 나가노 역시 노련하고 생생한 지휘를 보여준다.

Arthaus 109187 [Blu-ray]

[하이레스 오디오(Hi-Res Audio)]

펭귄 카페의 정물 (Still Life At The Penguine Cafe)

로열 발레단, 펭귄 카페 오케스트라

예측을 불허하는 기발한 음악과 안무 속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장면들

'펭귄 카페 오케스트라'는 1973년에 결성되었다.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로 이 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먼 제프스의 말을 빌자면, 단원이 여덟 명에 불과한 이 '오케스트라'는 '베토벤부터 롤링 스톤스, 바흐, 서아프리카, 아바(ABBA)에 이르는 낯선 체험'을 제공한다. 이 영상물에는 이들의 연주에 데이비드 빈틀리가 안무한 발레가 결합된 발레 영상과, 연주 및 제프스의 인터뷰가 수록된 '펭귄 카페 오케스트라' 영상이 실려 있다. 아날로그 오디오 원음을 그대로 보전하는 '하이레스'(Hi-Res) 오디오 기술 특유의 고품격 음질을 즐길 수 있다.

[보조자료]

– '펭귄 카페 오케스트라'는 현실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음악을 추구하는 악단으로 1973년에 결성되었다. 말이 오케스트라지 실제로는 단원이 단 여덟 명이며, 그것도 기타, 우쿨렐레, 쿠아트로(기타 비슷한 악기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로 사용된다),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타악기라는 기괴한 조합을 보여주는 이 '오케스트라'는 작곡가로서 이들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를 맡아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먼 제프스의 말을 빌자면 '윌슨 피켓, 베토벤, 롤링 스톤스, 종교 합창곡에서 서아프리카 민속 음악,I 바흐, 스트라빈스키, 아일랜드 백파이프 음악, 심지어 아바(ABBA)에 이르는 낯선 체험'을 선사한다.

– 이 영상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펭귄 카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데이비드 빈틀리가 안무를 맡은 발레가 결합된 '펭귄 카페의 정물'과, 연주 사이사이에 사이먼 제프스 등의 인터뷰가 결합된 '펭귄 카페 오케스트라'가 그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을 보더라도 문자 그대로 예측불허의 신선한 체험이 될 것이며, 이 작은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유쾌함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Arthaus 111110 [2DVDs]
Arthaus 111111 [Blu-ray]

(CALTALOGUE 2015/2016 부착)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슈라이어 (돈 바질리오)/ 르네 파페 (피가로)/ 도로테아 뢰쉬만 (수잔나)/ 에밀리 매기 (백작부인)/ 연광철 (바르톨로) / 다니엘 바렌보임(지휘)

구(舊) 베를린 슈타츠오퍼 운터 덴 린덴에서의 피가로의 결혼

1999년 베를린에 위치한 슈타츠오퍼 운터 덴 린덴에서 열린 다니엘 바렌보임 지휘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전곡 영상물. 이전에 ArtHaus에서 DVD로 발매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영상 업스케일링 및 음성 리마스터링 처리를 거쳐 새롭게 발매되었다. 슈타츠오퍼는 현재까지도 오랜 기간 공사중으로서 옛 분위기와 음향을 간직한 영상물인만큼 그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토마스 랑호프의 연출로서 성악진은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싱싱하며 웅장하다. 우선 돈 바질리오에 전설적인 독일 테너 페터 슈라이어가 등장하여 중심을 잡아주고 피가로와 수잔나, 백작부인에는 지금은 중견으로서 세계 최정상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르네 파페와 도로테아 뢰쉬만, 에밀리 매기가 출연한다. 그리고 바르톨로에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성악가 연광철 선생이 출연한다.

Arthaus 101476 [Blu-ray]

CALLAS ASSOLUTA

절대적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삶과 예술을 담은 다큐멘터리

2007년 필립 코흘리(Philippe Kohly) 감독이 제작한 마리아 칼라스 다큐멘터리 칼라스 아솔루타의 블루레이 버전. **세계의 저널과 평론가들로부터 격찬을 받은 명품 다큐멘터리로서 지금까지 발매된 그녀의 다큐멘터리 가운데 가장 자세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리아 칼라스가 오페라를 자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이입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영상물은 그녀의 삶과 예술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위대한 칼라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삶을 상기한다는 것 자체로 디바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라 스칼라에서 활동했던 칼라스의 동영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녀가 입었던 의상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에리오 피카질리아니(Erio Piccagliani)가 스칼라에서 찍은 사진들과 무대 스케치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무대와 오페라 그 자체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칼라스의 존재감을 시간의 저편으로부터 다시금 현재로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 칸느 페스티벌에서 레드카펫을 밟기 5주 전 비밀리에 아이를 낳았지만 8시간만에 죽어서 가슴 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대목에서 저 위대한 영광스러운 금자탑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만날 수도 있다.

Arthaus 101586 [DVD]
Arthaus 108035 [Blu-ray]

Le Songe – 몬테 카를로 발레단

몬테 카를로 발레단이 에로틱하고 환상적으로 해석한 한 여름 밤의 꿈

LE SONGE(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창작발레로서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바탕으로 안무가 장-크리스토프 마일로(Jean-Christophe Maillot)가 안무와 감독을 맡은 작품이 수록된 스튜디오 영상물. 세익스피어의 이 환상적이고 색채감 풍부한 고전을 몬테 카를로 발레단이 재해석한 이 영상물은 모나코 캐롤린 공주가 참관하에 제작되어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인다. 펠릭스 멘델스존과 다니엘 테루기, 베르트랑 마일로의 음악이 사용되면서 갖가지 상상력 넘치는 의상과 무대가 화면에 펼쳐진다. 작은 규모의 무용들과 스케일 큰 발레, 표현력 넘치는 마임과 서커스 같은 액팅, 신화적인 캐릭터들과 동화적인 인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우아하면서도 엑스타시 넘치는 에로티시즘을 세익스피어의 고전으로부터 새롭게 읽어낸다.

Arthaus 108049 [Blu-ray]

아당: 지젤 [2006년 파리 국립 오페라 실황]

파리 오페라의 별, 뤼졸과 르 리쉐가 등장하는 2006년 지젤

낭만주의 발레의 극치로 손꼽히는 지젤. 1841년 파리 오페라의 살르 펠레티에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플롯을 기반으로 한 첫 번째 발레로서 현재까지 초연 당시의 오리지널 안무가 거의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역사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오리지널 안무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 지난 150여년이 지나도록 마리우스 페티파가 담당했던 오리지널 안무 그 자체에는 거의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채 공연되고 있을 정도다. 이후 이 공연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페티파가 1887년 상뜨 뻬쩨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가진 리바이벌 무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여기 수록된 2006년 파리 국립 오페라 실황은 프티파에 대한 탁월한 두 전문가인 파트리스 바르트(Patrice Bart)와 유진 폴랴코프(Eugène Polyakov)가 1991년에 새롭게 안무한 작품으로서 1924년 알렉산드르 베누아(Alexandre Benois)가 디아길레프 발레 뤼스를 위해 제작한 무대와 의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올-스타 캐스팅으로서 우아함과 완벽함을 겸비한 라에티시아 퓌졸(Laëtitia Pujol)이 지젤로, 아름다움과 강인한을 겸비한 니콜라스 르 리쉐(Nicolas Le Riche)가 알브레히트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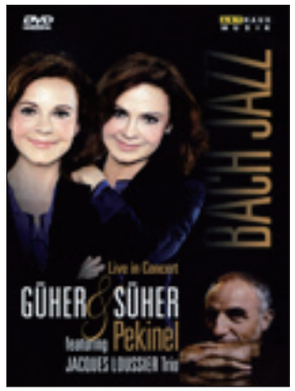
Arthaus 108133 [Blu-ray]

라벨: 어린이와 마법사,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네덜란드 단스 테아터 & 로열 발레 스쿨

어린이를 위한 20세기의 두 개의 걸작을 발레로 제작한 역사적인 영상물

이 두 개의 발레 레코딩은 프랑스의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오페라 '어린이와 마법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한 극음악 '피터와 늑대'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어린이와 마법사'는 네덜란드 단스 테아터가 무대와 의상을 맡고 이리 킬리안스(Jirí Kyliáns)이 안무와 디자인을 한 것이고 '피터와 늑대'는 로열 발레 스쿨을 중심으로 매튜 하트(Matthew Hart)와 안소니 도웰(Anthony Dowell)이 안무와 제작을 맡은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상과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이 영상물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버전으로서 음악은 로린 마젤이 지휘한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DG 레코딩을 사용했다. 두 작품 모두 어린이가 주인공으로서 음악적으로나 무용적으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향유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동화적이며 환상적이다. 어린이가 초자연적인 환경에 놓인 채 흥미진진한 모험을 벌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편 스타일적으로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러시아 작곡가의 전혀 다른 접근방식 또한 돋보이는데, 특히 라벨의 초인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색감 및 프로코피에프의 간결하면서도 원색적인 분위기가 무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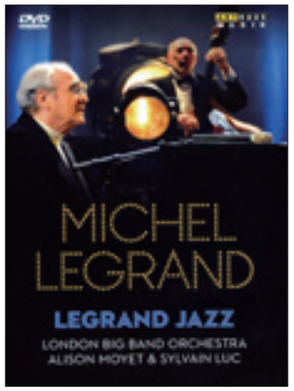


Arthaus 101389 [DVD]

귀허 & 쥐허 페키넬 자매와 자크 루시에 트리오
– BACH JAZZ

페키넬 자매와 자크 루시에의 재즈적 바흐로의 여행

피아노 듀오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귀허 & 쥐허 페키넬 자매의 정통 클래식 콘서트 실황들과 바흐 재즈의 대가인 자크 루시에와 함께 한 연주회 실황, 그리고 페키넬 자매의 다큐멘터리 필름인 Double Life가 수록되어 있는 풍성한 음악적 만찬! 가장 먼저 2001년 슈베친겐 페스티벌 실황. 페키넬 자매와 함께 연주한, 자크 루시에가 편곡한 바흐의 두 대의 피아노와 현을 위한 협주곡 BWV1060과 3중 협주곡 BWV1063, 그리고 중간에 자크 루시에 트리오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이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2007년 5월 23일 런던 카도간 홀에서의 실황으로서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잉글리쉬 첨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바흐의 두 대의 피아노와 현을 위한 협주곡 BWV1062이 수록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2006년 11월 20일 루체른 피아노 페스티벌 오프닝 콘서트 실황으로서 페키넬 자매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모음곡 1번 Op.5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노 린케(Hanno Rinke) 감독의 다큐멘터리 Double Life가 이어진다. 더불어 미요의 스카라무슈를 비롯하여 풀랑크, 모차르트, 브람스, 루토프와프스키의 피아노 듀오 실황 발췌가 보너스로 첨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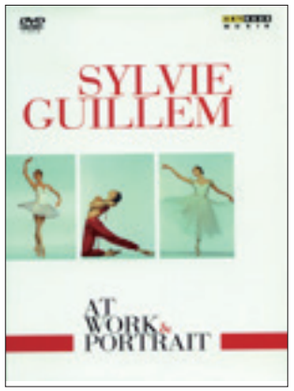


Arthaus 101547 [DVD]

미셸 르그랑
– LEGRAND JAZZ

프랑스의 위대한 음악가 미셸 르그랑의 연주회 실황

다재다능한 음악가인 미셸 르그랑을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전천후 가수이자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지휘자이자 프로듀서인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며 주옥같은 걸작들을 남겨왔다. 또한 그의 분야 또한 한정되지 않고 영화음악과 대중음악, 재즈와 클래식 음악, 샹송과 월드뮤직을 넘나들었고 국제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모은 진정한 의미의 월드스타다. 2009년 파리의 살르 플레옐에서의 라이브를 담은 이 DVD는 일종의 르그랑 갈라 콘서트로서, 그는 런던 빅 밴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자신의 음악을 지휘하는 한편 피아노도 직접 연주한다. 뛰어난 영국 가수인 알리손 모예(Alison Moyet)와 탁월한 실력의 기타리스트 실뱅 뤽(Sylvain Luc)이 피쳐링으로 등장하는 이 날의 콘서트에서는 "The Windmills of you minds", "I will wait for you", "Between yesterday and tomorrow", "Dingo Rock", "What are you doing the rest of your life?"등의 주옥같은 명곡들이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화질과 음질 모두 좋아서 AV적인 완성도 또한 대단히 높다.



Arthaus 107519 [2DV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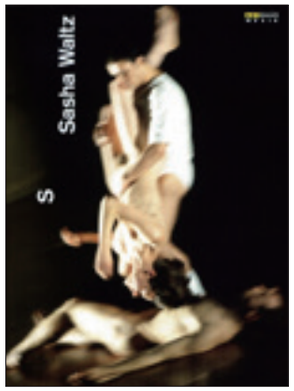
실비 기옘
– At Work & Portrait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레리나 실비 기옘의 모든 것

두 장의 DVD로 구성된 이 합본은 André S. Labarthe가 감독한 At Work와 Nigel Wattis가 감독한 Portrait로 구성되어 있다. 실비 기옘은 1965년 파리 출생으로서 11세까지 리듬체조선수로 활동하다가 파리 오페라 발레 스쿨에서 발레를 공부하며 두각을 나타내다가 1981년 파리 오페라 발레에 입단, 84년에 수석 무용수로 승격한 뒤 무대를 압도해왔다. 현재 영국 로열 발레단 객원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1994년에 프랑스 문학예술훈장, 2000년에 니진스키상을 받았고 모리스 베자르, 애크람 칸과의 프로덕션으로도 유명하다.

*At work: 이 영상물은 완벽을 향한 그녀의 헌신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것으로서 리허설, 학과, 연주회 등등을 둘러싼 프리마 발레리나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보여준다. 누레예프의 라이몬다, 루디 반 단치그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윌리엄 포르시테의 In the Middle, Somewhat Elevated, 베자르의 La Luna 등등이 포착되어 있다.

*Portrait: 안무가 모리스 베자르, 매츠 에크, 안쏘니 도웰, 평론가 존 퍼시벌, 클레망 크립스 등등이 기옘의 완벽함과 놀라운 재능, 성격과 캐리어 등을 설명하는 한편 흔치 않은 기옘의 인터뷰까지가 포함된 다큐멘터리로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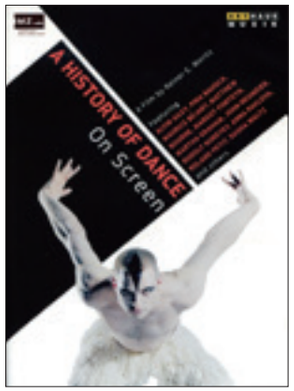


Arthaus 101584 [DVD]

샤샤 왈츠: S

Körper, noBody와 더불어 샤샤 왈츠의 대표적인 트릴로지의 하나인 "S"

1999년 샤샤 왈츠(Sasha Waltz)는 인간의 몸을 주제로 3부로 구성된 대규모 무용작품을 기획, 안무했다. 인체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관찰을 담아낸 Körper는 그 첫 번째 작품으로서 샤샤 왈츠는 해부학적이면서도 육체적인 관점에서의 인간의 존재를 연구해서 자신의 무용수들의 몸을 건축과 과학, 역사와 연관시켰다. S는 삶의 근원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작품으로서 에로스와 감수성을 탐구한 작품이고, noBody는 인간성의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담아냈다. 이 트릴로지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인 S는 육체적인 Körper와 형이상학적인 noBody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실존적인 작품으로서 다른 두 작품에는 없는 에로스와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를 가장 중심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다룬다. 한편 음악은 Cremaster Cycle을 통해 매뉴 버니와 오랜 콜라보레이션을 지속해 온 것으로 유명한 뉴욕의 음악가 조나단 베플러(Jonathan Bepler)가 작곡한 것으로서 방으로 둘러쌓인 듯한 제한된 환경에서의 다양한 감정과 효과를 드러낸다. 음악과 안무가 어우러지며 성과 욕망에 대한 강도 높은 파격과 예상치 못한 낯선 아름다움에 정신적인 충격과 이에 파쇄된 이성을 전혀 새롭게 재조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Arthaus 101690 [DVD]

A History of Dance on Screen

지난 백 년간 영상에 담긴 무용의 역사를 일별하는 야심찬 다큐멘터리

새로운 예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각광받는 라이너 E.모리츠가 선보인 다큐멘터리 A History of Dance on Screen는 20세기 초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의 수많은 무용가들과 안무가들이 미디어에 담겨온 무용의 역사를 담아낸 기념비적인 영상물이다. 그는 질문을 던진다 "20세기 동안 미디어가 어떻게 무용에 영향을 끼쳤을까? 혹은 반대의 경우는?" 백여 년 동안 아름다운 안무들과 무용수들이 필름 혹은 TV를 통해 기록되었고 미디어 덕분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 댄스 무비나 발레 영화 같은 새로운 장르의 예술은 영상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명해졌고 무용은 카메라를 위해 특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 A History of Dance on Screen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무용가들과 안무가들이 남긴 희귀하거나 대표적인 영상물들을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재편집하여 그 예술가들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금 감상할 수 있는 동시에 그 내면에 흐르는 무용과 미디어의 공생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도모할 수 있다. 안나 파블로바, 앨빈 에일리, 피나 바우쉬, 마이야 플리세츠코이, 이사도라 던컨, 마르타 그래험, 모리스 베자르, 매뉴 폰, 마고트 폰테인, 존 노이마이어, 루돌프 누레예프, 로란트 프티, 샤샤 왈츠 등등의 영상을 만날 수 있다.

Arthaus 108129 [Blu-ray]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오페라 컬렉션 – 피델리오, 마탄의 사수, 게노베바

요나스 카우프만(테너) 외,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아르농쿠르(지휘)

서거한 거장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는 이 시대에 시대악기 연주 전통의 부활을 주도해 왔던 위대한 지휘자였다. 이 블루레이는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와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를 연 베버의 '마탄의 사수', 슈만의 야심작 '게노베바'가 실려 있으며, 각 오페라에는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페터 자이페르트, 소프라노 카밀라 닐룬드, 율리아네 반제 등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아르농쿠르가 은퇴를 선언한 지 정확히 석 달 뒤인 2016년 3월 5일에 타계하고 없는 지금, 이 블루레이는 거장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보조자료]

– 2015년 12월 5일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의 86회 생일 바로 전날이었다. 바로 이날 아르농쿠르는 '내 체력이 내가 장래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체력은 그의 여생을 지탱하기에도 모자랐던 듯, 거장은 은퇴를 발표한 지 정확히 석 달 만인 2016년 3월 5일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아트하우스에서 나온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오페라 컬렉션'도 아르농쿠르가 은퇴를 선언한 뒤 그의 음악유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었으나, 공교롭게도 그의 타계를 추모하는 의미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우리 시대 음악계의 가장 뚜렷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인 시대악기 연주 부활이라는 흐름을 주도하다시피 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삶 자체가 고음악 부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블루레이에는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2004년 실황),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신호탄이 된 베버의 '마탄의 사수'(1999년 실황), 슈만이 오페라에 야심차게 도전한 결과물인 '게노베바'(2008년 실황)가 실려 있다. 세 오페라 모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성악가들이 포진한 게 특징이다. '피델리오'에서는 요나스 카우프만이 피델리오, 소프라노 카밀라 닐룬드가 레오노레를 맡았으며, '마탄의 사수'에서는 테너 페터 자이페르트가 막스 역을 맡았다. 한편 '게노베바'에서는 소프라노 율리아네 반제가 게노베바 역을, 메조소프라노 코르넬리아 칼리슈가 마르가레타 역을 맡아 열창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뿐만 아니라 연출(셋 다 다른 사람이 맡았다)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충실하고 신선한 이들 오페라는 아르농쿠르가 우리 시대에 남겨준 유산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위대한 지휘자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더 이상 그의 공연을 실제로 볼 수 없게 된 지금, 이 블루레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Arthaus 108130 [Blu-ray]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오페라 컬렉션 – 돈 조반니, 코시 판 투테

체칠리아 바르톨리(테너) 외,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아르농쿠르(지휘)

서거한 거장의 최고 장기였던 모차르트 오페라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는 이 시대에 시대악기 연주 전통의 부활을 주도해 왔던 위대한 지휘자였다. 이 블루레이에는 그의 최고 장기였던 모차르트의 두 오페라 '돈 지오반니'와 '코시 판 투테'가 실려 있으며, 각 오페라에는 이 시대 최고의 고음악 전문 소프라노인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위대한 바그너 성악가 마티 살미넨, 일세를 풍미한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등의 성악가가 포진하고 있다. 아르농쿠르가 은퇴를 선언한 지 정확히 석 달 뒤인 2016년 3월 5일에 타계하고 없는 지금, 이 블루레이는 거장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보조자료]

– 2015년 12월 5일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의 86회 생일 바로 전날이었다. 바로 이날 아르농쿠르는 '내 체력이 내가 장래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체력은 그의 여생을 지탱하기에도 모자랐던 듯, 거장은 은퇴를 발표한 지 정확히 석 달 만인 2016년 3월 5일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아트하우스에서 나온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오페라 컬렉션'도 아르농쿠르가 은퇴를 선언한 뒤 그의 음악유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었으나, 공교롭게도 그의 타계를 추모하는 의미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우리 시대 음악계의 가장 뚜렷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인 시대악기 연주 부활이라는 흐름을 주도하다시피 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삶 자체가 고음악 부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 블루레이에는 그의 최고 장기였던 모차르트의 두 오페라 '돈 지오반니'(2001년 공연 실황)와 '코시 판 투테'(2000년 실황)가 실려 있으며 두 오페라 모두 역사에 길이 남을 스타 성악가들이 포진한 게 특징이다. 두 오페라 모두 우리 시대 최고의 고음악 전문 소프라노로 거듭난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주연을 맡았으며, '코시 판 투테'에는 일세를 풍미한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가, '돈 조반니'에서는 위대한 바그너 성악가이자 특히 최고의 하겐이었던 마티 살미넨이 등장해 남다른 위엄을 풍긴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뿐만 아니라 연출(둘 다 위르겐 플림이 맡았다)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충실하고 신선한 이들 오페라는 아르농쿠르가 우리 시대에 남겨준 유산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위대한 지휘자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더 이상 그의 공연을 실제로 볼 수 없게 된 지금, 이 블루레이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Arthaus 109114 [Blu-ray]

말러: 교향곡 '대지의 노래'

케니스 리겔(테너), 도리스 조펠(알토),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콜린 데이비스(지휘)

진심을 다한 '대지의 노래' 해석과 연주

1988년 뮌헨 필하모니 공연 실황. '대지의 노래'가 뮌헨에서 초연된 지 77주년이 되는 해이다. 콜린 데이비스는 일반적으로 말러 전문 지휘자의 대열에 끼지 않으며, 실제 녹음한 곡도 적다. 그러나 '대지의 노래'만큼은 여러 차례 지휘할 정도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다. 격심한 다이내믹 대비로 격동의 파노라마를 펼치는 1악장부터 몰입하게 될 것이다. 테너 케네스 리겔과 알토 도리스 조펠은 진지하고 주의 깊게 노래하며, 1983년부터 데이비스를 상임지휘자로 두어온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지휘자의 모든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조자료]

– 1988년 뮌헨 필하모니 공연 실황. 일찍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말러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이라 불렀던 '대지의 노래'는 1908년에 완성되었지만 작곡가 생전에 연주된 적이 없으며, 작곡가 사후 1911년이 되어서야 브루노 발터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초연 장소가 바로 뮌헨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콜린 데이비스는 일반적으로 말러 전문 지휘자의 대열에 끼지 않으며, 실제 녹음한 곡도 음반 기준으로 '교향곡 4번'과 '8번' 등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대지의 노래'만큼은 여러 차례 지휘할 정도로 유독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으며, 예를 들어 1985년에는 존 비커스와 제시 노먼의 노래로 이 곡을 지휘한 바 있다.

– 이번 1988년 실황에서도 데이비스는 1악장 '현세의 고통에 대한 술 노래'부터 격심한 다이내믹 대비로 장대한 격동의 파노라마를 펼쳐내면서 듣는 이를 1악장부터 몰입하게 한다. 2악장의 스산한 기운과 3악장의 풋풋한 봄내음 사이의 대비도 실로 인상적이며, 6악장의 고적한 정취 역시 다른 누구의 해석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 테너 케네스 리겔과 알토 도리스 조펠 모두 진지하고 주의 깊은 태도로 노래하며, 특히 도리스 조펠은 곡의 절반을 차지하는 마지막 악장 '고별'에서 가사에 깊은 의미를 담아 부르고 있다. 1983~92년에 걸쳐 콜린 데이비스를 상임지휘자로 두었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도 데이비스의 모든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연주하고 있다.

Arthaus 100011 [DVD]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2세기에 걸친 이탈리아 바로크의 영광을 노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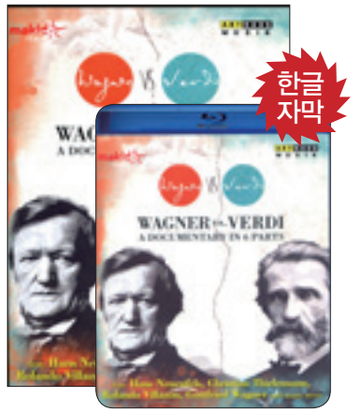
시대악기 연주의 부활 움직임을 타고 등장한 여러 악단 중에서도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그들이 1994년에 비발디의 '사계' 녹음으로 음악계에 충격을 준 지도 이미 이십여 년이 지났지만, 음악을 향한 그들의 도전정신은 여전하다. 시칠리아의 여러 장소를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며, 맨 앞에서는 조반니 안토니니를 비롯한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리오 카스텔로부터 비발디에 이르기까지 2세기에 걸친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이 실려 있다. 비발디의 경우에는 자막 선택 란에서 악보를 지정해 음악과 함께 볼 수 있다.

[보조자료]

– 지난 수십 년 동안 클래식 음악계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시대악기의 부활이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타고 등장한 여러 악단 가운데서도 우리말로 '조화(혹은 화성)의 정원'이라는 뜻을 지닌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그들이 1994년에 낸 비발디의 '사계' 녹음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바소 콘티누오를 동원함으로써 음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들이 혜성처럼 등장한 지도 이미 이십여 년이 지났지만, 음악을 향한 그들의 도전정신은 지금도 여전하다. 시칠리아의 여러 장소를 배경으로 제작된 이 영상물은 맨 앞에 플루트 주자이며 현재 고음악 지휘자로도 맹활약하고 있는 조반니 안토니니를 비롯한 단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다리오 카스텔로부터 안토니오 비발디에 이르기까지 2세기에 걸친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이 실려 있다. 자막 선택 란에서 '악보'를 지정할 경우 모든 비발디 작품을 해당 대목의 악보를 덧씌운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수록곡]

– 다리오 카스텔로(1590~1658) : '협주곡풍의 소나타 Op.2' 가운데 '4번'과 '10번'
– 타르퀴니오 메룰라(1595~1665) : 3성부 샤콘느
– 안토니오 비발디(1678~1741) :
– 류트와 두 대의 바이올린 및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RV93
– 플라우티노와 두 대의 바이올린 및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RV90
– 플루트와 두 대의 바이올린 및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RV104
– 기타 조반니 바티스타 스파다(1609~24), 비아조 마리니(1594~1663)의 작품들



Arthaus 102192 [DVD]
Arthaus 108120 [Blu-ray]

'바그너 대 베르디'

크리스티안 틸레만, 롤란도 비야손 외

음악사의 영원한 라이벌 관계를 심도 있게 조명한 다큐멘터리

바그너와 베르디는 둘 다 1813년 태생이기도 하지만 생전에 각각 독일과 이탈리아의 오페라를 주도하면서 대립 관계를 이뤘고, 후대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들의 라이벌 관계를 주목해 '혁명가들', '베르디의 세계', '바그너 종교', '여성들', '그들의 음악이 미친 영향' 등 여섯 항목으로 나눠 접근했다. 이 시대의 뛰어난 바그너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 이탈리아 오페라 전문가인 롤란도 비야손 등 음악가뿐만 아니라 고트프리트 바그너 등 바그너의 후손들까지 등장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글 자막 포함

[보도자료]

– 빌헬름 리하르트 바그너와 주세페 베르디만큼 음악사에서 뚜렷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1813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바그너는 독일 오페라를 혁명적으로 바꿔놨으며, 베르디는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따르면서 여기에 새로운 요소를 더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국의 오페라를 주도하면서 대립 관계를 이뤘고, 후대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 이 다큐멘터리는 이들의 라이벌 관계에 주목해 '혁명가들', '베르디의 세계', '바그너 종교', '여성들', '그들의 음악이 미친 영향' 등 여섯 항목으로 나눠 접근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각각 다른 감독이 제작했다. 이 시대의 뛰어난 바그너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틸레만, 이탈리아 오페라 전문가인 롤란도 비야손 등 음악가뿐만 아니라 에바 바그너-파스키에, 고트프리트 바그너 등 바그너의 후손들까지 등장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두 사람의 위대함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해 흥미도 충분히 자극하는 다큐멘터리이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자체 제작 CD, DVD, Blu-Ray, LP 국내에 공식 수입되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위대한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이 시대의 변화상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나가고 있다. 자신들의 공연실황들을 인터넷의 도움을 통해서 세계각지의 음악애호가들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콘서트 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몇몇 공연실황들은 자체 제작의 CD, DVD와 Blu-Ray, LP로 음반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40021
[2DVDs + 1Blu-ray]

JS 바흐: 마태수난곡 BWV244

[피터 셀라스 무대 연출 버전]

마크 패드모어(복음사가)/ 크리스티안 게르하허(예수)/ 카밀라 틸링(sop)/ 막달레나 코체나(alt)/ 토피 레티푸(te)/ 토마스 크바스토프(bass)/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커

마태수난곡의 공연사(公演史)에 일획을 그었던 화제만발의 연주실황

2013년 4월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필하모니에서 도합 5회에 걸쳐서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공연하였다. 이 공연이 특별했던 것은 바흐가 남긴 인류 최고의 교회음악을 천재적인 연출가 피터 셀라스의 놀라운 혜안을 통해서 연기가 수반된 무대극의 형태로 완벽하게 변형시켰다는 점이다. 셀라스는 파격적이고도 현대적인 스타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들을 변형시켰던 괴짜 연출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공연에서는 마태수난곡에 담긴 교회음악으로서의 본질을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냄으로써 이 위대한 걸작의 감동을 배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복음사가를 맡은 마크 패드모어는 뛰어난 가창과 더불어 복음서의 내용을 감동적인 연기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는 따뜻한 음성으로 인간미가 돋보이는 예수를 열연하였다. 만삭의 몸으로 열연한 카밀라 틸링, 연기와 노래 모두에서 풍부한 표정을 드러내는 막달레나 코체나, 각각 맑은 미성과 중후한 저음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토피 레티푸와 토마스 크바스토프 등의 활약도 나무랄 곳 없다. **[2013 BBC MUSIC MAGAZINE AWARDS]**

[제품 구성]

- 2 DVD discs :
  마태수난곡 전곡 공연실황(195분) + 사이먼 래틀과 피터 셀라스의 대담(51분)
  (NTSC 16:9, PCM Stereo, DTS5.1)

- 1 Blu-ray disc :
  1과 동일한 구성 (1080i Full HD 16:9, PCM Stereo, DTS-HD Master Audio 5.1)

-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 홀 1주일 무료이용권

- 고급스런 린넨 커버 스페셜 패키지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40031
[2DVDs + 1Blu-ray]

JS 바흐: 요한수난곡 BWV245

[피터 셀라스 무대 연출 버전]

마크 패드모어(복음사가)/ 로데릭 윌리엄스(예수)/ 카밀라 틸링(sop)/ 막달레나 코체나(alt)/ 토피 레티푸(te)/ 크리스티안 게르하허(bass)/ 베를린 방송합창단/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

마태수난곡의 성공에 이은 피터 셀라스와 사이먼 래틀의 두 번째 협력작

2010년 4월 베를린 필의 수장 사이먼 래틀과 천재 연출가 피터 셀라스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선보였던, 마태수난곡의 무대 연출 공연은 공연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추후에 발매되었던 영상물로도 많은 음악애호가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때의 성공을 바탕으로 래틀과 셀라스는 바흐가 남긴 또 다른 교회음악 걸작인 요한수난곡 역시도 유사한 콘셉트로 무대에 올렸다. 2014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베를린의 필하모니에서 공개되었던 이 공연 역시 전작에 상응하는 호평을 받았는데, 마태수난곡에 비해 보다 간결하고도 드라마틱한 요한수난곡의 특징이 이러한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서 더한층 큰 위력을 드러내었다. 마크 패드모어의 복음사가를 위시한 전작의 독창진이 대부분 이번 공연에도 참여하였는데, 앞서 예수를 노래했던 게르하허가 빌라도와 베드로, 그리고 아리아를 담당하는 대신, 영국의 실력파 베이스 로데릭 윌리엄스가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와 근엄한 음성으로 예수를 열연하였다. 요한수난곡 공연 영상에는 한글자막이 제공된다.

[제품 구성]

- 2 DVD discs :
  요한수난곡 전곡 공연실황(135분) + 사이먼 할시의 인트로덕션 영상(20분) +
  사이먼 래틀과 피터 셀라스의 대담(33분) (NTSC 16:9, PCM Stereo, DTS5.1)

- 1 Blu-ray disc :
  1과 동일한 구성 (1080i Full HD 16:9, PCM Stereo, DTS-HD Master Audio 5.1)

-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 홀 1주일 무료이용권

- 고급스런 린넨 커버 스페셜 패키지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50071
[2CD + 1Blu-ray + Download on +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

슈만: 교향곡 전집

사이먼 래틀/ 베를린 필하모니커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시작된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자체 레이블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이 2013년 2월(2,3번)과 10/11월(1,4번)에 필하모니에서 연주했던 슈만의 교향곡 전집이 베를린 필의 자체 레이블인 'Berliner Philharmoniker Recordings를 통해서 풍성한 패키지로 출시되었다.

96kHz/24bit 오디오 트랙이 수록된 Blu-Ray Audio 트랙과 연주회 실황을 HD급 화질로 담은 Blu-Ray Video 트랙을 모두 포함하는 Blu-Ray 디스크 1장과 일반 CD2장에 더하여, 교향곡 전곡의 192kHz/24bit 고해상도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코드와 베를린 필 디지털 콘서트 홀의 무료 7일 이용권까지 포함되어 있다.

튼튼한 하드커버로 마무리 된 패키지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만족감을 주는데, 커버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센 왕립 도자기 제작소의 오리지널 창작 도자기의 아름다운 문양이다. 비교적 아담한 사이즈의 악단을 통해 경쾌한 리듬과 섬세한 디테일을 강조한 이번 전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반적인 개정판이 아니라 1841년의 초고판을 적용한 교향곡 4번이다. 래틀은 이 버전에 대해 "경쾌함, 귀여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있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제품 구성]

– [CD 1 & 2]
Symphonies Nos. 1–4

– [Blu-ray Disc]
Blu-ray AUDIO : Symphonies Nos 1–4 in Pure Audio 24-bit / 96 kHz 2.0 PCM Stereo o 5.0 DTS-HD MA
Blu-ray VIDEO
Symphonies Nos 1–4 in High Definition Video [Full HD 16:9 / PCM Stereo o 5.0 Surround DTS-HD]
Bonus interview and "behind the scenes"

– [Audio Download Code]
For high resolution audio files of the entire album (24 bit / up to 192 kHz)

– [Digital Concert Hall]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s video streaming servic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50071
[4CD + 1Pure Audio Blu-ray + 1Video Blu-ray Disc + Download on +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

베를린 필하모니커의 역사상 첫 번째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집 녹음

시벨리우스의 신비로운 음악어법을 온전히 개화시키다

사이먼 래틀은 얀 시벨리우스에 대해 "당대에 가장 경이로운 독창성을 가진 작곡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음악에는 독특한 음악어법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기인하는 많은 아름다움들이 그의 7개의 교향곡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낭랑하게 울려퍼지는 따스함만큼이나 절제된 북유럽 민속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의 음악에는 컨셉에 있어서의 대범함까지 겸비하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음악적인 발견의 여행을 만끽할 수 있기도 하다. 2015년 작곡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여 청중과 평론가들에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환호와 극찬을 받았다.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사이먼 래틀은 시벨리우스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베를리너 자이퉁은 리뷰를 실으며 "오케스트라는 엄격하면서도 신랄한 힘을 발산하여 이들 시벨리우스 음악에 중요한 방점을 찍어주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이먼 래틀은 어린 시절부터 얀 시벨리우스 음악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10세의 소년 래틀은 생전 처음으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을 듣고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벼락을 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베를린 필하모니커 또한 작곡가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로서 1902년 작곡가의 지휘로 그의 교향곡 연주회를 가졌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을 좋아하여 레코딩을 남겼지만 전곡 녹음을 남기진 못했던 바, 사이먼 래틀이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함께 2010년 교향곡 3번을 연주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벨리우스 전곡 사이클을 연주, 녹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게 되었다. 베를린의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이 시벨리우스 사이클과의 만남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음반을 통해 이 시벨리우스 기념해의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소개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사이먼 래틀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 실황 레코딩은 전체 네 장의 CD 분량으로서 이 박스에는 HD 화질과 DTS 서라운드가 지원되는 Blu-Ray 영상물과 비압축 고음질을 지원하는 Pure Audio Blu-Ray 두 장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대단히 완성도 높은 북릿과 사이먼 래틀의 인터뷰 비디오 클립도 제공되어 시벨리우스의 일곱 개의 교향곡 모두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더불어 아이튠스 다운로드 쿠폰도 포함되어있다.

[제품 구성]

– **4CD** : Symphonies Nos. 1–7
– **1Pure Audio Blu-ray Disc** : All recordings in Pure Audio 24-bit / 96 kHz / Running time: 227 mins (2.0 PCM Stereo / 5.0 DTS-HD MA) (58 min Bonus video) (Full HD 16:9, Region Code: ABC [worldwide]) / Video Blu-ray Disc Symphonies Nos. 1–7 in High Definition Video / Running time: 297 mins (Full HD 16:9 / PCM Stereo / 5.0 Surround DTS-HD, Region Code: ABC [worldwide])
– **Booklet** : 64 pages / German, English
– **Download-Code** : For high resolution audio files of the entire album (24-bit / 192 kHz)
– **Digital Concert Hall**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s virtual concert hall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50061
[4CD + 1Pure Audio Blu-ray + 1Video Blu-ray Disc + Download on +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슈베르트 교향곡

[8CD + 1Blu-ray Audio HARDCOVER DELUXE EDITION]

베를린 필하모니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베를린 필의 현대적 기능성과 아르농쿠르의 권위적 역사성이 빚어낸 새로운 빈의 영광

"슈베르트는 내 마음과 가장 닮아 있는 작곡가"라고 말한 바 있는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그는 이번 전집에서 베를린 필하모니와 함께 작곡가의 화려하면서도 다채로운 초상을 그려내었다. 여기에는 슈베르트의 덜 알려진 초기 작품들부터 '미완성'과 '그레이트'와 같은 후기 작품들까지가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에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음악으로 일컬어지는 슈베르트의 마지막 두 개의 미사를 포함하여 재발견된 그의 오페라 '알폰소와 에스트렐라'도 수록되어 있다.

아르농쿠르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쿠르트 스트라이트, 도로테아 뢰쉬만, 크리스티안 게르하허와 같은 탁월한 성악진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압도적이다. 그러나 이번 에디션의 음악적인 중심은 어디까지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교감에 있다. 이번 슈베르트 연주는 색감이 풍부하고 드라마틱한 것이 특징으로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고유한 사운드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의 투명한 간결성 및 역사적인 연주 방식과 절묘한 통합을 이루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녹음된 연주들을 8장의 CD에 담았고 여기에 비압축 24비트 오디오 파일을 Blu-Ray 디스크에 담은 음반이 추가되어 있다. 레코딩의 수준 높은 퀄리티에 수준을 맞추고자 두터운 북릿과 예술적인 하드백 커버, 슈베르트와의 특별한 관련성에 대한 아르농쿠르의 인터뷰 비디오 등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제품 구성]

- 8CD
- 1BLU RAY Audio 디스크 (비압축 24비트 오디오 파일+ 보너스 비디오)
  [Blu-ray Disc] All recordings in Pure Audio 24-bit / 48 kHz
  [2.0 PCM Stereo / 5.0 DTS-HD MA 24-bit]
  보너스 비디오 – Nikolaus Harnoncourt in conversation
  [Full HD 16:9, Region Code: ABC (worldwide)]
- Booklet
  104 pages / German, Englisch
- Download-Code
  For high resolution audio files of the entire album (24-bit / 48 kHz)
- Digital Concert Hall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s virtual concert hall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50061
[8CD + 1Blu-ray Audio disc + [Blu-ray Disc] All recordings in Pure Audio 24-bit / 48 kHz + 보너스 비디오 + Download-Code + Digital Concert Hall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s virtual concert hall]

아르농쿠르가 지휘하는 슈베르트 교향곡 8LP (180g)

베를린 필하모니커/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베를린 필의 현대적 기능성과 아르농쿠르의 권위적 역사성이 빚어낸 새로운 빈의 영광

"슈베르트는 내 마음과 가장 닮아 있는 작곡가"라고 말한 바 있는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그는 이번 전집에서 베를린 필하모니와 함께 작곡가의 화려하면서도 다채로운 초상을 그려내었다. 여기에는 슈베르트 교향곡의 덜 알려진 초기 작품들부터 '미완성'과 '그레이트'와 같은 후기 작품들까지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번 슈베르트 연주는 색감이 풍부하고 드라마틱한 것이 특징으로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고유한 사운드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의 투명한 간결성 및 역사적인 연주 방식과 절묘한 통합을 이루고 있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녹음된 연주들을 이전에 블루 레이로 발매한 후 이번에 8장의 180g LP에 담아 출시했다.

[제품 구성]

- 8 LPs 180g vinyl (symphonies Nr.1-8) Symphonies Nos. 1-8
- Booklet Hardcover, 44 pages
- Download Code For high resolution audio files of the entire album (24 bit/up to 48 kHz)
- Voucher Digital Concert Hall
-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s video streaming service (Running time: 273 mins)

[수록곡]

Symphony No. 1 in D major, D 82
Symphony No. 2 in B flat major, D 125
Symphony No. 3 in D major, D 200
Symphony No. 4 in C minor, D 417 "Tragic"
Symphony No. 5 in B flat major, D 485
Symphony No. 6 in C major, D 589
Symphony No. 7 in B minor, D 759 "Unfinished"
Symphony No. 8 in C major, D 944 "Great"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50061
[2CD + 1Blu-ray Audio disc + Download-Code + Digital Concert Hall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s virtual concert hall)]

아바도와 베를린 필의 마지막 실황

[2CD + 1Blu-ray Audio HARDCOVER DELUXE EDITION]

베를린 필하모니커/ 클라우디오 아바도/ Deborah York(Soprano)/ Stella Doufexis (Mezzo-Soprano)/ Damen des Chors des Bayerischen Rundfunks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베를린 필 마지막 콘서트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는 베를린 필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2013년 5월 라스트 콘서트로, 그와 베를린 필과의 특별한 파트너십은 끝났다. 프로그램은 낭만주의 시대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두 작품, 즉 베를리오즈의 몽환적인 〈환상 교향곡〉과 멘델스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위한 마술적이고 찬란한 음악이다. 2016년 1월 20일 클라우디오 아바도 2주기를 기해, 그날 저녁의 기념비적인 오디오, 비디오 레코딩이 하드커버 호화 에디션으로 출시되었다. 설득력 있는 글과 보너스 비디오 부분 그리고 전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 즐비한 이 아이템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지휘자로 일했던 아바도의 작업내용을 보여준다.

녹음은 그 날 저녁의 특별한 분위기를 인상 깊게 담고 있는데, 음악 연주에 대한 환호는 물론이고, 이를테면 베를린 필과 청중들이 갖고 있던 아바도에 대한 깊은 애정 같은 것이 담겼다. 아바도는 특히 콘서트 프로그램을 잘 짜기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두 작품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다루며 음악의 꿈이란 주제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 원작의 다채로운 마술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반면, 베를리오즈의 작품에서는 운명적인 사랑과, 마약으로 인한 환각이라는 혼탁한 의식 얘기를 하기 위한 세련된 수단을 사용한다. 아바도의 연주는 악보에 나타난 찬란한 빛을 충분히 이끌어내는데,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 지는 이렇게 썼다. "이것은 놀라움이고 자유이며, 머지않아 80세가 될 사람이 펼쳐놓은 젊은 영혼이며, 그 기운이 지휘자 석에서 발산되어 청중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음원은 CD와 고음질 블루레이 오디오로 발매, 그날 콘서트의 영상도 담겼다. 보너스로 베를린 필의 수석 지휘자로 첫 해를 보내던 당시, 아바도의 역사적인 활동 영상 다큐도 포함되어 있다.

[보조자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2013년 5월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함께 한 마지막 콘서트 실황

카라얀의 뒤를 이어 베를린 필하모니커를 이끌었던 아바도. 래틀에게 자리를 물려준 뒤 간헐적으로 베를린 필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았지만, 2014년 1월에 세상을 뜬 만큼 이 공연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즐겨 연주했던 두 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1부에서는 멘델스존의 부수음악 '한여름 밤의 꿈' 발췌를, 2부에서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 그것. '한여름 밤의 꿈'은 SONY 레이블로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전곡을 CD로 발매한 적이 있는 반면, 환상 교향곡은 DG에서 시카고 심포니와 CD를 녹음했을 뿐 베를린 필하모니커와는 음반을 제작한 적이 없다. 그러한 만큼 아바도가 베를린 필과 남긴 유일한 환상 교향곡으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여름 밤의 꿈'은 이전 음반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생기차고 투명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어 전곡연주가 아님에 아쉬움이 남는다. 성악가로는 소프라노 데모라 요크와 메조 소프라노 스텔라 도우페시스가 함께 했다. 환상 교향곡은 아바도 특유의 디테일과 보다 강한 응집력 및 다이내믹이 인상적으로서, 베를린 필 단원들은 그들의 전임 지휘자의 지휘봉에 극도로 집중하며 여느 영상물에서 보기 힘든 열기와 집중력을 발산한다. 연주 내내 혼신의 힘을 다해 음악을 만드는 아바도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특히 연주가 끝난 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와중에도 단원들 하나하나에게 감사를 표하는 모습에서 음악 이상의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바도의 베를린 필과의 마지막 연주회가 될 줄은 몰랐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붉은 색 천으로 마감된 음반자켓으로부터 아바도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이 베를린 필하모니커 자체 레이블 음반의 제목은 Claudio Abbado - The Last Concert. 2장의 CD와 최고의 화질로 포착된 영상물과 Pure Audio 트랙이 수록된 한 장의 Blu-Ray, 동일 음원 Downloda Code 및 Digital Concert Hall 7-day 티켓으로 구성된 이 앨범에는 콘서트 실황과 더불어 보너스 트랙이 두 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바도가 베를린 필을 처음 맡았을 때 제작된 올드 필름인 "Claudio Abbado in Berlin - The First Year"와 베를린 필 단원들이 그에 대해 회상하는 뉴 필름인 "Members of the Berliner Philharmoniker remember Claudio Abbado"가 수록되어 있다. 베를린 필과 함께 했던 아바도의 처음과 끝을 다시 한 번 회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필름들로서, 아바도의 그 찬연했던 예술혼과 단원들의 변하지 않는 존경을 동시에 전달받을 수 있다.

[제품 구성]

* Claudio Abbado and the Berliner Philharmoniker The Last Concert May 2013
* 2CD+Blu-ray Video/Audio+Audio Download Code+Digital Concert Hall 7 day Ticket

Pure Audio Tracks:
2.0 PCM Stereo 24-bit/48KHz
5.0 DTS-HD MA 24-bit/48KHz
Running time: 96 mins

Concert Videos:
Full HD 1080/60i - 16:9
Sound: 2.0 PCM Stereo / 5.0 DTS-HD Master Audio
Region code: ABC(worldwide)
Running time: 107 mins

Bonus Videos:
Documentary, Claudio Abbado in Berlin - The First Year
Interview, Members of the Berliner Philharmoniker remember Claudio Abbado

belvedere DVD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BVE08005 [3DVDs]
belvedere BVE08009 [3Blu-ray]

1080p Full HD로 만나는 브람스의 진정한 깊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상물

BRAHMS CYCLE

브람스: 교향곡 전곡, 피아노 협주곡 전곡, 바이올린 협주곡, 비극적 서곡, 대학축전 서곡,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예핌 브론프만(피아노)/ 율리아 피셔(바이올린)/ THE CLEVELAND ORCHESTRA/ 프란츠 벨저-뫼스트 (지휘)

1080p Full HD로 만나는 브람스의 진정한 깊이를 만난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부터 4번까지 전곡을 포함하여 브론프만과 피셔가 함께 한 협주곡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중요한 서곡과 변주곡을 총망라하고 있는 역사적이고도 의미 있는 영상물 전집. 클리브랜드 세베란스 홀에서 2014년 1월과 2월, 9월에 열린 브람스 치클루스 실황을 촬영한 것으로서 가장 먼저 1080p Full HD의 고화질을 통해 전달되는 세베란스 홀의 아름다움과 음악가들의 영상미는 이전 영상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협주자로 등장한 브론프만과 피셔는 이들 작품에 대한 최고의 해석가들로서 벨저-뫼스트와 함께 진정한 브람스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한편 보너스 트랙으로 세 명의 음악가들이 협주곡에 대해 나누는 대화가 수록되어 있어 음악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에 일조한다.

belvedere BVE08015 [DVD]
belvedere BVE08016 [Blu-ray]

드보르작: 교향곡 9번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마리스 얀손스의 진정한 명연과 모습을 담다

지금까지 마리스 얀손스가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를 여러 차례 레코딩하고 영상물도 발매했지만, 아마도 여기 수록된 2015년 11월 뮌션 레지덴츠 궁전 내에 위치한 헤르쿨레스잘 실황만큼 완벽하지는 않다고 장담할 수 있다. 자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일사분란하고 혼연일체된 앙상블과 완벽함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연주력, 남부 독일 악단 특유의 그윽한 음색과 격조 높은 향기는 감동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특히 1080p Full HD로 재생되는 4K 카메라가 잡아낸 헤르쿨레스잘의 구석구석의 아름다움을 통해 바이에른 왕가가 추구했던 품격과 예술에 대한 의지를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전람회의 그림'의 엄청난 에너지감과 노거장의 불꽃투혼도 결코 잊을 수 없다.

belvedere BVE08013 [DVD]
belvedere BVE08014 [Blu-ray]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 마리스 얀손스(지휘)/ 에린 월, 미호코 후지무라, 크리스티안 엘스너, 리앙 리

하이엔드 오디오파일용 클래식 영상물의 기준

2015년 3월 마리스 얀손스가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다국적 성악가들을 이끌고 스위스 루체른에 위치한 KKL 콘서트 홀에서 가진 실황을 1080p Full HD로 담은 대단히 소중한 영상물. 모든 프레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음악에 못지 않은 영상적 집중력을 발산하는 동시에, 중심 피사체의 외곽 및 뒷배경까지 일체의 흐릿함 없이 또렷하게 잡힌 모습, 검은색의 다채로운 농도 차이와 깊이감, 밝되 눈이 부시지 않고 그윽한 질감이 배어나오는 채도와 밝기 등등, 현대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화질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감동은 너무나 크고 장대할 뿐만 아니라 노장 얀손스의 환희와 집중을 오가는 그 눈빛과 미소도 음악 이상으로 감동적이다.

C Major Entertainment

www.cmajor-entertainm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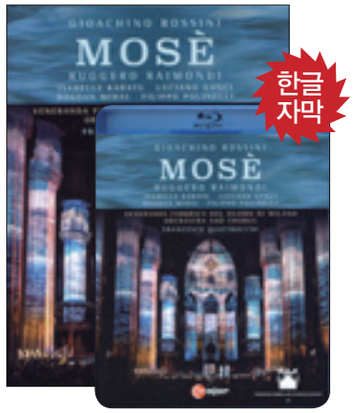
C Major 734308 [2DVDs]
C Major 734404 [Blu-ray]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VOL.2

루돌프 부흐빈더

현존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부흐빈더가 연주하는 '고별'과 '함머클라비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루돌프 부흐빈더. 12세에 빈 음악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저명한 교수인 브루노 자이들호퍼를 사사한 그는 지금까지 독일-오스트리아 레퍼토리에 묵묵히 헌신해왔다. Teldec 시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첫녹음한 뒤 2011년 SONY 레이블에서 두 번째 전집을 발매하고 빈 필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영상물을 내놓으며 진정한 베토베니안으로서 기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 생애 세 번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레코딩을 도전했으니, 그것이 바로 C Major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영상물이다. 2014년 8월 모차르테움 그로서 잘에서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이 2집에는 26번 '고별'과 29번 '함머클라비어'를 비롯해서, 3,6,7,16,19,24,28번이 수록되어 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명연!**



C Major 735308 [DVD]
C Major 735404 [Blu-ray]

로시니: 모세

라이몬디(베이스), 미하이(테너), 폴리넬리(바리톤), 콰트로치(지휘)

대성당 안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찬 이집트 탈출기

로시니는 오페라를 작곡하는 데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지만, 모세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드는 데는 유난히 공을 들였다. 두 편의 시작을 거쳐 완성한 '모세'는 그 최종판으로, 가장 화려하고 장대하다. 또한 독립된 아리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은 대개 합창이라는 것 역시 당대의 관행에서 벗어나 있다. 이 오페라 역사상 최초로 성당(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에서 공연된 이 영상물은 음악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이 오페라가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근접한 공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 일반적으로 로시니는 오페라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작곡했다고 전해지며, 오페라 선율이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않아 자신이 선율을 쫓아다니게 되고 나서는 오페라에서 손을 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도 모세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드는 데는 유난히 공을 들였다. '이집트의 모세'와 '모세와 파라오, 또는 홍해의 횡단'은 그가 '모세'라는 최종본을 만들기 전에 작곡했던 일종의 시작(試作)이다. 이런 여러 해에 걸친 고난 끝에 완성된 '모세'는 이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장대한 작품이다.

– 이 곡은 여러 면에서 당대 오페라의 관행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예를 들어 독립된 아리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다 오히려 음악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은 대개 합창 장면들이다. 이런 요소는 이 작품이 오페라 극장에서 환영받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오페라 사상 최초로 성당에서 공연된 이 영상물에서는 앞서 말한 특징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에서 이루어진 공연 실황으로, 무대장치는 최소화한 대신 조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출이 볼만하다. 22분에 걸친 보너스 영상에서는 700여 년에 걸친 두오모 대성당의 역사와 비밀, 그리고 이 대성당 소속 음악가 집단인 'Veneranda Fabrica'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33308 [DVD]
C Major 733404 [Blu-ray]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크리스티안 틸레만(지휘)

브루쿠너의 '음악적 유언'에 대한 충실한 재현

2015년 5월 24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공연 실황. 브루크너는 '교향곡 8번'의 초판을 완성한 직후인 1887년 8월에 '교향곡 9번'의 스케치를 시작했지만 3악장까지만 완성했을 뿐, 피날레는 죽는 날까지 끝내지 못했다. 훗날 많은 학자들의 작업으로 4악장 버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영상물은 통례대로 3악장 버전으로 연주했다. 2012/13년 시즌부터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상임을 맡고 있는 틸레만은 브루크너의 '음악적 유언'을 3악장 마지막의 호른 종지음에 이르기까지 느슨함 없이 꼼꼼하게 다룬다. 연주 후 30초간 침묵이 흐르는 것도 감동적이다.

[보도자료]

– 브루크너의 교향곡 대부분은 일종의 종교적 승화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리고 '교향곡 9번'은 그러한 경향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곡가가 이 곡을 '선하신 하느님께' 바쳤다는 사실도 이 점을 잘 보여준다.

– 자료에 따르면 브루크너는 '교향곡 8번'의 초판을 완성한 직후인 1887년 8월에 이 곡의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3악장까지만 완성되었을 뿐, 피날레는 브루크너가 사망한 1896년 10월 11일까지도 작곡을 끝내지 못했다(그는 사망한 당일에도 이 곡을 작업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는 브루크너가 워낙 더디게 작곡했던 탓도 있지만(그래서 생전에 별명이 '아다지오 작곡가'였다), 중간에 작곡을 완전히 중단하고 '교향곡 8번'을 비롯한 이전 작품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행인지 불행인지 브루크너는 타인의 비판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담대하지도 못했고 귀도 얇았다. 그런 개정 작업을 통해 더 완성도 높은 버전이 나오기도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곡을 3악장까지만 연주하는 게 관례이다. 여러 학자들이 피날레 악보를 긁어모아서 나름대로 추가로 보필해 완성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순전히 학구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정도여서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으며 본 영상물처럼 3악장까지만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 이 영상물은 2015년 5월 24일 바덴바덴 축제극장 공연 실황을 담고 있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2009년에 이미 틸레만을 차기 상임지휘자로 선임한 상태였으며, 그의 임기는 2012/13년 시즌부터 시작되었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의 임기는 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는 오늘날 독일-오스트리아 음악 전통을 가장 잘 보전하고 있는 악단으로 평가되며, 크리스티안 틸레만 역시 현존하는 지휘자 가운데 베토벤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이르는 시기의 독일-오스트리아 주류 작곡가의 작품 해석에 가장 능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이 양자 간의 화학반응은 이 곡에서도 진가를 발휘하며, 틸레만은 브루크너의 '음악적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이 곡을 맨 첫머리부터 3악장 맨 끄트머리의 호른 종지음에 이르기까지 느슨함 없이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마지막 음이 잦아든 다음에도 30초간 어떤 소리도 없이 정적이 흐르는 모습 또한 감동적이다.

Dacapo DVD

www.dacapo-records.dk

Dacapo 2.110412 **[DVD]**

닐센 : 사울과 다윗

로이터(바리톤), 리스(테너), 덴마크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쇤반트(지휘)

성서상의 이야기에 기초한 남자들 사이의 치밀한 심리극

카를 닐센은 생전에 오페라를 두 곡 작곡했고, 그 가운데 '가면무도회'보다 먼저 작곡된 '사울과 다윗'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다. 그러나 이 4막짜리 오페라는 잘 알려진 성서상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사울과 다윗을 비롯한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관계를 매우 잘 그려낸 수작이다. 무대감독 데이비드 푼트니는 현대적이면서도 위화감 없는 연출을 보여주며, 이미 낙소스에서 발매한 일련의 닐센 교향곡 녹음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미하엘 쇤반트는 여기서도 자신이 이 시대 최고의 닐센 전문가임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 덴마크의 국민 작곡가로 불리는 카를 닐센은 생전에 오페라를 단 두 곡 작곡했다. 이 가운데 나중에 작곡한 희극 '가면무도회'는 곧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덴마크의 국민 오페라로 자리 잡았으나, 이보다 먼저 작곡된 '사울과 다윗'은 무거운 주제를 다룬 탓인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다. 그러나 에이나르 크리스티안센의 대본에 기초한 이 4막짜리 오페라는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서상의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주역인 사울과 다윗을 비롯한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갈등관계를 매우 잘 그려낸 수작이라 할 수 있다.

– 오페라 전문 연출가로 명성 높으며 열광적인 닐센 애호가이기도 한 데이비드 푼트니는 여기서 무대감독을 맡아 현대적이면서도 위화감 없는 연출로 이야기의 초점을 심리적 긴장감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사울 역의 베이스 바리톤 요한 로이터와 다비드 역의 테너 닐스 외르겐 리스 등 주요 배역 모두 충실한 연기를 보여준다.

– 또한 이미 낙소스에서 일련의 닐센 교향곡 녹음을 내놓아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지휘자 미하엘 쇤반트는 여기서도 작품과 작곡가에 대한 강한 애정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지휘로써 자신이 이 시대 최고의 닐센 전문가임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Dynamic

www.dynamic.it

Dynamic 37715 **[DVD]**

하세 : 아르타세르세

주스티니아니(테너), 스키아보(소프라노), 이탈리아 국립 오케스트라, 로바리스(지휘)

거의 300년만에 부활해 영상화된 하세의 걸작 오페라

2012년 7월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공연 실황. 메타스타시오가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대본 '아르타세르세'는 여러 작곡가들에게 좋은 작품 소재가 되었다. 이 가운데 요한 아돌프 하세의 작품은 레오나르도 빈치와 더불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이 DVD는 하세의 이 오페라 영상을 최초로 담아냈으며, 1760년의 나폴리 버전이 아닌 최초의 1730년 베네치아 버전으로 수록했다. 아르타세르세 역의 테너 주스티아니를 비롯한 성악진은 단순화된 무대 위에서 20세기 초의 의상을 입고 열연을 펼친다. 한글 자막 지원.

[보도자료]

–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대본 작가였던 피에트로 메타스타시오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까지도 널리 사랑받은 오페라 대본을 다수 남겼다. 그 가운데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대본 '아르타세르세'는 여러 작곡가들에게 좋은 작품 소재가 되었다. 이 가운데 요한 아돌프 하세의 작품은 레오나르도 빈치의 작품과 더불어 1730년에 작곡되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며, 이후에도 클루크, 치아리니, 그라운, 테라델라스, 갈루피,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등 많은 작곡가가 메타스타시오의 대본에 기초해 '아르타세르세'를 썼다.

– 요한 아돌프 하세(1699~1783)는 바흐와 동시대의 독일 작곡가 가운데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오페라를 바흐가 관람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는 오랜 생애에 걸쳐 오페라만 56곡, 오라토리오 11곡, 미사곡 10곡 등 많은 작품을 썼으며 거듭 성공을 누렸지만 사후에는 거의 완벽한 망각 속에 빠지고 말았다. 베를리오즈가 (그로서는 의외로) 찬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19세기에 그는 음악사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그의 이름과 작품은 서서히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 이 DVD는 2012년 7월에 마르티나 프랑카에서 개최된 제38회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아르타세르세'의 공연 영상을 최초로 DVD에 담아냈으며, 1760년의 나폴리 버전이 아닌 최초의 1730년 베네치아 버전으로 수록했다. 무대감독 가브리엘레 라비아는 최대한 무대를 단순화함으로써 관객이 드라마 자체에 집중하도록 했으며, 의상 디자이너 안드레아 비오티는 의상을 20세기 초 기준으로 설정하고 특히 아르타바노와 아르바체 등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나치 제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입혀 시각적인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하고 있다. 아르타세르세 역의 테너 아니치오 초르치 주스티아니와 소프라노 마리아 그라치아 스키아보 등 모든 배역이 열연을 펼친 이 영상물은 하세 음악의 부활에 어울리는 가치를 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61298 [DVD]
EuroArts 2061294 [Blu-ray]

바이올리니스트 이자벨 파우스트의
'파우스트적' 탐구심과 거장의 원숙함이 만나 이뤄낸 최상의 결실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6번 '전원'

이자벨 파우스트(바이올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지휘)

'파우스트적' 탐구심과 거장의 원숙함이 만나 이뤄낸 최상의 결실

2015년 4월 바덴바덴 축제극장 공연 실황. 공연 당시 86세였던 하이팅크는 '교향곡 6번'에서 물 흐르듯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전원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그러나 이 영상물의 진정한 묘미는 파우스트와 협연한 '바이올린 협주곡'에 있다. 여기서 파우스트는 1악장 카덴차를 전에 없이 독특하게 연주할 뿐만 아니라 2악장에서도 난데없이 카덴차를 연주하고, 3악장에서도 많은 대목에서 가필을 섞어 연주하는 등 모든 대목에서 예측을 불허한다.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의 '파우스트적' 탐구심과 거장의 원숙함이 이뤄낸 최상의 결실이 여기에 있다.

[보도자료]

– 2015년 4월 바덴바덴 축제극장 공연 실황. 공연 당시 86세였던 하이팅크는 거장다운 원숙함으로 '교향곡 6번'에서 물 흐르듯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해석을 선보이면서 베토벤이 꿈꾸었을 전원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그러면서도 4악장의 폭풍우는 충분히 위압적이고 강렬하다. 그러나 이 영상물의 진정한 묘미는 이자벨 파우스트와 협연한 '바이올린 협주곡'에 있다. 현역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최상의 원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파우스트는 이미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두 번이나 녹음한 바 있지만(둘 다 Harmonia mundi), 이 영상물에서 그녀가 들려주는 연주는 두 녹음 어느 것과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어느 연주자와도 다르다. 파우스트는 1악장 카덴차에서 베토벤의 주제를 춤곡 악상과 섞어 연주하면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독특한 연주를 들려주며, 2악장 끄트머리에서도 난데없이 카덴차를 연주하고 3악장에서도 많은 대목에서 기발한 가필을 섞어 연주하는 등 모든 대목에서 예측을 불허한다. 이 영상물은 중견 바이올리니스트의 치밀한 '파우스트적' 탐구심과 거장의 원숙함이 만나 이루어진 최상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EuroArts 2061478 [DVD]
EuroArts 2061474 [Blu-ray]

베를린 필하모니 2015년 송년음악회

안네-조피 무터(바이올린),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사이먼 래틀(지휘)

명 바이올리니스트 무터의 건재를 알려주는 화련하고 유쾌한 공연

베를린 필은 해마다 마지막 날에 신년 이브 콘서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송년음악회를 연다. 2015년 송년음악회는 앙코르로 연주된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을 제외하면 샤브리에의 '별' 서곡부터 풀랑크의 발레 모음곡 '암사슴'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으로만 진행된다. 베를린 필이 들려주는 전혀 위화감 없는 능숙하고 세련된 연주는 이들이 얼마나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오케스트라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며, 무터의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및 라벨 '치간느' 연주는 이 명 바이올리니스트의 건재를 증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 베를린 필은 해마다 마지막 날에 신년 이브 콘서트를 연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송년음악회가 되는 셈이다. 2015년 베를린 필하모니 홀 실황을 담고 있는 이 2015년 송년음악회 영상은 앙코르로 연주된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1번'을 제외하면 에마뉘엘 샤브리에의 '별' 서곡부터 카미유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쥘 마스네의 오페라 '르 시드'에서 발췌한 모음곡, 모리스 라벨의 '치간느', 프랑시스 풀랑크의 발레 모음곡 '암사슴'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으로만 진행된다.

– 베를린 필이 들려주는 전혀 위화감 없는 능숙하고 세련된 연주는 이들이 얼마나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오케스트라인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며, 2002년부터 상임지휘자로서 베를린 필을 이끌고 있으며 2018년까지 지휘할 예정인 사이먼 래틀은 악단과 완전히 일체화된 지휘를 선보인다. 연주 당시 52세인 안네-조피 무터의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및 라벨 '치간느' 연주는 이 명 바이올리니스트의 기량이 아직 쇠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EuroArts 2061178 [DVD]
EuroArts 2061174 [Blu-ray]

'오케스트라를 가로지르는 비행'
– 브람스: 교향곡 2번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투간 소키에프(지휘)

교향악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발한 카메라워크

2015년 6월에 베를린의 옛 발전소에서 촬영한 영상. 이 영상물에서 마치 카메라를 매단 초소형 드론이라도 띄워놓은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전후좌우와 위아래를 자유롭게 훑고 지나는 카메라워크는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연출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향악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온 각 파트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시각적으로 인지시키고자 한 시도이다. 2012년부터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를 이끌고 있는 투간 소키에프의 세부적으로 잘 정리된 해석은 이런 연출을 한층 성공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보도자료]

– 2015년 6월에 베를린의 옛 발전소인 크라프트베르크 룸멜스부루크(Kraftwerk Reummelsburg)에서 촬영. 이 영상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전후좌우와 위아래를 거의 쉴 새 없이 자유롭게 훑고 지나는 카메라워크이다. 마치 카메라를 매단 초소형 드론이라도 띄우고 찍은 듯한 이런 카메라워크는 이전의 다른 어떤 클래식 관련 영상물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연출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향악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 온 각 파트의 개별성과 독자성을 시각적으로 인지시키고자 한 시도이다.

– 투간 소키에프는 1977년생으로 2003년에 웨일스 국립 오페라단의 음악감독이 되었으며(2004년에 캐스팅 문제로 사임), 2005년에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의 상임 객원지휘자 겸 음악고문이 되었다. 2010년에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의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계약은 2012년부터 4년간 유효하다. 또한 2014년에는 볼쇼이 극장의 신임 음악감독이 되었다. 소키에프의 세부적으로 잘 정리된 해석은 카메라워크의 연출 의도를 한층 성공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EuroArts 2061148 [DVD]

미샤 브뤼거고스만
– 자유의 노래(Songs Of Freedom)

미샤 브뤼거고스먼(소프라노), 노바스코샤 미사 성가대, 카메룬 에비니저 성가대

흑인 영가의 음악적 시원을 추적하는 기나긴 여정

캐나다 태생의 소프라노 미샤 브뤼거고스만은 클래식 성악가로서뿐만 아니라 콘서트 아티스트로서 대중음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영상물에서 그녀는 자기 선조의 음악, 즉 아프리카와 북미 간의 노예무역에서 발생한 흑인 영가 가운데서도 특히 자유라는 주제와 연관된 것들을 골라 노래하고 있다. 각 노래별로 일종의 옴니버스식 구성을 보여주며, 후반부는 그녀의 선조가 살았던 카메룬에서 진행된다. 단순히 노래만 실린 것이 아니라 노래를 만드는 과정과 아프리카의 풍광, 브뤼거고스만의 인터뷰 등이 종합된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이다.

낙소스 코리아 추천도서

- 클래식 음악 애호가를 사로잡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

모차르트, 그 삶과 음악 [illegible]	제러미 시프먼 지음 임선근 옮김 155×220mm 280쪽 20,000원	위대한 작곡가이자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매혹적인, 그러나 잡히기 어려운 그의 참모습을 보다.
베토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강병희 옮김 155×220mm 288쪽 20,000원	음악가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장애와 맞물려 싸웠던 영웅, '악성 베토벤', 키가 작다는 것만 빼면 모든 면에서 거인이었다.
하이든, 그 삶과 음악	데이비드 비커스 지음 강병희 옮김 155×220mm 248쪽 20,000원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스승,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일생을 통해 18세기 유럽의 역사와 음악을 배워 본다.
멘델스존 그 삶과 음악	닐 웬본 지음 강병희 옮김 155×220mm 288쪽 20,000원	평론가들이 뽑은 음악사 최고의 천재, 38년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잊기 어려운 기록들을 남긴 위대한 음악가 멘델스존의 일생을 따라간다.
쇼팽, 그 삶과 음악	제러미 니콜라스 지음 임희근 옮김 155×220mm 368쪽 20,000원	피아노의 시인, 피아노의 마음, 피아노의 영혼. 39년의 짧은 삶을 오직 피아노를 위해 살았던 위대한 작곡가이자 연주자 쇼팽을 만난다.
말러,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임선근 옮김 155×220mm 280쪽 20,000원	클래식 애호가의 폭넓은 사랑과 경배를 받는 말러, 인간 말러의 기쁨과 슬픔, 그의 예술적 음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차이콥스키,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김형수 옮김 155×220mm 260쪽 20,000원	고독한 천재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영화음악을 예고하는 러시아의 서정, 섬세하고 매력적인 예술가 차이콥스키를 만난다.
바그너, 그 삶과 음악	스티븐 존슨 지음 이석호 옮김 155×220mm 276쪽 20,000원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재능으로, 반유대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그너의 불꽃 같은 삶과 음악을 만난다.

- 음반 2장과 함께 읽는 〈클래식, 시대와의 만남〉 시리즈

클래식, 고음악과의 만남	루시엔 젠킨스 지음 임선근 옮김 150×220mm 124쪽 20,000원	교회음악과 중세음악은 물론, 음악에 적극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싣기 시작하며 인쇄술의 발전으로 음악의 대중확산에 기폭제가 되었던 르네상스 음악을 모두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바로크시대와의 만남	클라이브 웅거 해밀턴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160쪽 20,000원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음악으로, 바흐, 헨델, 비발디 등의 작품을 통해 '바로크'의 원뜻인 '기괴하다'는 조롱의 시대에서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유럽의 시대상을 맛볼 수 있다.
클래식, 고전시대와의 만남	스티븐 존슨 지음 김지량 옮김 150×220mm 128쪽 20,000원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초까지의 음악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걸작들, 베토벤의 원숙한 첫 작품이 탄생했다. 자연과 인간,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추구한 고전시대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클래식, 낭만시대와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시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184쪽 20,000원	19세기에 성행했던 음악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연주 기법, 그리고 주제와 선율을 소설과 시를 통해서 찾는 표제음악이 발전했다. 슈베르트, 차이콥스키,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이 있다.
클래식, 현대음악과의 만남	데이비드 맥클리시 지음 김형수 옮김 150×220mm 224쪽 20,000원	전통적 표현 수단과 결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활발했던 20세기의 음악으로, 필립 글래스, 쇼스타코비치, 메시앙 등을 통해 무조성 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등을 만날 수 있다.

출판사 : PHONO

판매처 :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문고...

클래식 음반사 Naxos의 한국지사, 낙소스 코리아는
국내 시장의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구독 및 관련사업, 음원유통,
라이센싱 업무 등에 관해서는 낙소스 코리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naxos.co.kr | twitter.com/naxoskorea
Naxos Korea (낙소스 코리아) 02-717-1070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Naxos를 비롯한 Warner Classics, Teldec, EMI Classics...등 다양한 레이블의 1백만여 곡의 음악을 스트리밍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낙소스 코리아)

ODE1279-5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 로망스 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욘 스토르고르즈(지휘)

폭 넓은 레퍼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테츨라프가 드보르작과 수크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녹음했다.
이 중에서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이 기대되는 이유는 실황과 녹음 모두 고른 기량을 보여준 전작 때문일 것이다.
테츨라프는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연주를 보여주며, 악단과 바이올린 모두 군더더기 없고 섬세하고 자유롭다.
드보르작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에서 마을잔 들판을 누비는 바람을 연상시키는 바이올린의 음색은 보헤미안의 이미지 그 자체이다.

★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2016년 3월) ★

표지사진
클래식 음악 영상물 시장에
새롭게 떠오른 레이블
Clasart Classic

〈아울로스뉴스〉 2016년 3월호
통권 제 65호 발행 2016년 3월 2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3길 10 삼흥빌딩 2층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922-0100(代)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며,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지를 받고 싶으신 분은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또는 기타 안내 가능합니다.